

김호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경전에서 해방,
'해석의 자유' 가져 오자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71호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사업 '잰걸음'

등재추진위, 11월 20일 순천서 2차 국제학술회의

조계종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순항 중이다. 기초 자료 수집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가 올해에만 3번에 걸쳐 진행 중이며 내년 등재신청서 작성과 2017년 등재 관련 실사 등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는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경과와 2차 국제학술회의 일정을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24일에는 공주 마곡사에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4일에는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에 대한 국내 석학들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7개 대상 산사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일 련과정들은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특히 1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외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산사에 대한 답사를 진행해 '한국의 전통산사' 등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등재추진위 책임연구원은 "1차 국제학술회의 답사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 등 이웃 종교인들이 많아 사찰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는 꺼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사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면서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제 법구 등에 관심이 높았고, 보존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0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불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2차 국제학술회의 역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열린다.

불교 유산이 주제인 만큼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산들의 역사적 배경, 보편적 가치 등 재 후 현황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한국 역사 속의 불교문화의 위상'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구오 레이 중국 하남성 정주시 문화유산 자치행정부 행정사무관, 노부코 이나바 일본 쓰쿠바대 교수, 트란 딘 탄 베트남 문화유산부 부국장 등이 주요 발제자로 나서 자국의 세계불교유산 등재 과정과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통해서
현재 기초 자료 수집 중
2018년 등재 최종 목표
내년 등재 신청과정 거쳐
2017년 등재 실사 진행

또한 한국 발제자로는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 전통 산사의 세계유산적 의의'를 주제 발표한다.

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입 경로와 공간 구성에서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것이 1,500여년의 불교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국장 석운 스님은 "'한국의 전통산사'는 역사성과 예술성, 가람배치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이 잘 계승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등재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재추진위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친 후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빼빼로보다 가래떡을 드세요 11월 11일이 언제부터인지 '빼빼로 데이'가 됐다. 친구와 연인, 직장 선후배들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것이 마치 관례와 풍습처럼 됐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가래떡 데이)'이기도 하다. 우리 쌀과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날이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지현)는 매년 11월 11일을 맞아 '우리 쌀 소비 촉진 운동- 우리 떡하니 사랑합시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행정국장 등목 스님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해 인사동을 찾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가래떡과 인절미 등을 나눠주며 우리 쌀을 알렸다. 글 · 사진= 신성민 기자

아시아 불교문화 한자리에 모인다

태고종 20일 잠실서 제1회 아시아 불교문화축제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
6주년 기념 행사 일환
영산재 · 코미디 공연 등
화려한 무대 공연 '눈길'
국민위해 전석 무료로

아시아 불교문화를 한 자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11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서 개최하는 제 1회 세계문화유산 아시아불교문화축제가 바로 그것. 이번 행사는 특히 태고종 영산재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6주년을 맞아 광복 70주년과 세계평화,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행사 당일에는 아시아 7개국을 순회하는 세계문화유산 영산재를 바탕으로, '영산재, 아리랑을 만나 하늘을 열다'란 주제로 2016년 새 희망을 염원하는 영산재 스토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병찬 씨로 사회로 진행되는 행사는 총 3부로 나눠진다.

1부는 야단법석의 오프닝과 탤런트 김성환 씨의 인생스토리를 듣는 자리와 기념식, 2부는 세계문화유산 영산재 공연과 웃자 대한민국(추억의 코미디쇼-배일집, 지영옥, 김의환 등 출연), 3부는 해외불교국가 초청공연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가수 김연자(孝 공연), 국악인 김영임씨(회심곡), 아리랑환타지 야단법석, 태극기 퍼포먼스 등으로 무대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공연은 1시간으로 압축한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공연과 태국, 티베트, 중국 등의 문화공연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중국, 태국, 티베트 등 4개국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며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원하는 이들에 한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정작가인 지영빈 감독이 제자 3명의 사진작가들과 함께 부모님 및 가족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행사 실무를 담당하는 태고종 문화사회부장 성인 스님은 "이번 행사에는 영산재보존회를 비롯해 중국, 태국, 티베트 스님 등이 참가해 자국의 무형문화를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불교축제가 아닌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재를 기본으로 최적의 장소 및 최고의 대중 예술인을 통해 국민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아시아불교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태고종이 야심차게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전석 무료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민족통일 위한 연대 강화"

KCRP · 조종협, 9~10일 금강산서 종교인 모임

南北 종교인 200명 참석
선언문 채택… 통일 기원
日 우경화 저지 노력 다짐
금강산 오르며 우의 다져

남북 종교계 대표들이 한데 모여 평화 통일을 위한 연대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 우경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남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강지영, 이하 조종협)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남측 KCRP 회원 150명과 북측 조종협 회원 50명이 참석했다. 남북 종교인들이 대규모로 한데 모여 모임을 가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KCRP 대표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상징"이라며 "종교인들은 평화를 소중히 가꾸고,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해 통일의 씨앗을 싹틔우자"고 당부했다.

강지영 조종협 협회장은 "북과 남 사이에 친척상봉과 노동자축구대회 등 관계개선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기"라며 "7.4공동성명 등 북남합의를 적극적인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들 종교인들은 이번 모임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공동성명'을 채택 · 발표했다. 남북 종교인들은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실천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7.4 공동성명과 남북 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기초해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북 사이의 잦은 접촉과 대화, 교류와 통일 회합이 선언 이행으로 지향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개최했다.

이어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면서 애국애족의 마음과 남북 선언에 기초해 종교인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의 우경화 저지에도 함께 힘쓸 것을 다짐했다. 남북 종교인들은 "위안부 문제 인정 등 과거사 청산을 회피하고 독도 강탈을 시도하는 일본의 행위에 광분한다"면서 "군국주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의 행위를 국제사회와 연대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 이후에는 남북 종교인들은 금강산 신계사와 구룡연, 삼일포 등을 함께 거닐며 친목을 다졌다. 신성민 기자

해종 언론 관련 특별 결의문

최근 종단 관련 현안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해종을 넘어 훼불 수준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매체의 행태를 보면 불교 언론을 표방하는 것이 맞는지, 불자들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일부의 문제를 승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종단에 비방적인 인사들의 발언만 편향적으로 다루는 등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종단과 승가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종단과 승가의 화합을 파할 목적으로 종권 투쟁까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민주적 관용으로 이들을 대해 왔고 인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악의적인 이들의 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묵묵히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종도들마저 걱정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인터넷 매체의 선동과 이에 편승한 일부 해종행위자들로 인해 종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종단의 존엄과 정통성마저 훼손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무분별한 비방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부 악성 인터넷 매체들이 더 이상 종단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종수교(扶宗樹敎)의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왜곡 · 편향보도로 종단과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훼불, 악성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며, 종단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종단은 악성 매체의 해종, 훼불 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앙종회, 총무원, 교구본사 등이 참여하는 해종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 · 말사 및 전체 종도들은 해종언론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즉각 실행한다.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중앙종회 출입과 취재를 금지한다.

불기 2559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본지 기획 '광복70년, 불교70년' 불교언론상 최우수상 수상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발표… 본지 2년 연속 최우수 '쾌거'

심사위 "한국불교사 이해 도움"
대상엔 BTN 불복장 2부작 선정

본지 연중기획인 '광복70년, 불교70년' 이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본지 신성민 기자의 '만해 열반 70년, 만해의 길을 가다' 가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동일 부문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12일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본지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은 광복 이후 한국불교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왔는지 짚어볼 수 있는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광복70년 후 지금까지 불교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심층 취재 기사"라면서 "광복 70주년에 맞추어서 한국불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상세하게 조사, 연구,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불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에는 총 36개 작품이 접수돼 예심을 거쳤으며, 예심을 거쳐 24개 작품이 본선에 올라 8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TN 개국 20주년 특집 '은밀한 의식, 불복장' 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청양 장곡사의 불복장 의식을 통해 대중의 발원이 담긴 복장물과 복장의식을 세밀하게 다룬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EBS 세계문명사 기획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가, 우수상은 울산MBC 특별기획 '강신주의 해탈프로젝트' 와 BBS 광복70주년 기념 특집드라마 '다시 찾은 태극기' 가 각각 선정됐다. 신문 부문 우수상에는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의 '수행현장 체험기' 가 수상했다.

또한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어라 캐릭터로 잘 알려진 지찬 스님이 최우수상을, 어플리케이션 절로가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SBS의 '물은 생명이다–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 과 BBS뉴스 기획보도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불자가 뛴다' 가 수상했으며, 불교언론인상에는 강상구 KBS 경영위원이 선정됐다.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해임" vs "종헌종법 권한 無"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유시… 정상화 전권 인곡 스님 일임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11월 11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사간동 법륜사 앞에서 현 종단 상황에 대한 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곧바로 태고종 총무원 종무회의는 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태고종의 내홍에 정신적 지주인 혜초 종정 스님까지 나서 유시를 내리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지만, 총무원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고 나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종정 혜초 스님은 11월 11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사간동 법륜사 앞에서 발표한 유시를 통해 구속된 현 총무원장과 비대위원장 모두를 해임시키고 종단 정상화의 전권을 승정원장 인곡 스님에게 일임했다. 하지만 집행부 격인 총무원 종무회의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종정 스님의 총무원장 해임은 종헌 · 종법 상 권한이 없음을 못 박았다.

당초 유시 발표는 법륜사 3층 법당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총무원 집행부가 청사를 폐쇄해 법륜사 앞마당에서 긴급히 이뤄졌다.

혜초 스님은 유시를 통해 "노납의 부덕한 소치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게 되어 너무나 참담하다"며 "먼저 국민과 불자 여러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유시를 시작했다.

이어 종정 스님은 "그간의 종단 사태에 대해 화합을 위한 많은 종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수행자로서는 용납할 수 있는 미증유의 폭행사건을 촉발됐다"면서 "11월 3일에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이 구속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위상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장한 어조로 밝혔다.

또한 혜초 스님은 "인곡 스님은 현 종단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종헌종법에 구애됨이 없이 재창종의 의지를 갖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종단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 폐쇄로 청사 앞마당서 발표
"재창종 의지로 갈등 타개" 강조
인곡 스님 "유시 받들어 정상화"
총무원 "해임권한 없다" 반박해

이날 전권을 위임받은 인곡 스님은 "앞으로 전 종도들은 유시를 올바르게 판단해 종무행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유시를 받들어 폐쇄된 법륜사 앞을 떠나지 않겠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용맹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고종 총무원장을 대신해 종무행정을 맡고 있는 종무회의는 종정 스님의 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곧바로 발표했다.

태고종 총무원 종무회의 측은 11월 11일 '종정 예하의 유시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 이란 제목으로 입장문서 "현 종단사태로 종정예하께 심려를 끼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유시 내용에 2014년 3월 중앙종회서 호법원장 선출 당시 종회의장의 무리한 의사진행등의 언급이 없음은 물론 종회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비대위측의 총무원사 무력 점거와 2월 2일 법원의 가처분에도 문을 닫아걸고 총무원을 마비시킨 당사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종무회의 측은 "종정 스님의 총무원장 해임은 종헌 종법상 권한 없는 말씀"이라며 "전권을 위임한 홍인곡 스님은 2001년 이후 15년간 분담금 미납은 물론 한차례 분한 신고도 하지 않아 2014년 3월 승려신분이 정적상태"라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내비쳤다.

이어 "인곡 스님이 소속한 백련사는 2002년 이후 14년간 분담금을 미납해 모든 행정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고사찰"이라며 "현 종단 사태에 대해 오직 총무원장과 종연스님 탓으로 돌리고 정작 책임 져야 할 주도세력은 언급조차 하지 않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종연 스님이 측은할 지경이며 금번 유시는 측근의 무리한 요구와 정황을 모르시고 발표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 본격 활동 시작

11일 1차 회의… 조직 인선 · 활동 계획 결의

공동위원장 우송 · 초격 · 일감 스님
청사 내 해당 언론 사이트 차단
본말사 · 신도단체 등도 지침 시달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회(이하 해종언론대책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종언론대책위는 11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했다.

위원회 조직 구성에는 공동위원장에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선임됐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나왔다. 공통 지침으로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취재지원 중단과 출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광고 및 개별 후원 중단, 기 게재 광고 삭제 △보도자료 배포 금지, 간담회 및 인터뷰 금지 △접속 금지 동참 △각 사찰 홈페이지 배너 삭제, 공동 지침 배너 게재 등을 정했다.

또한 동참 대상 기관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및 시설부터 교구본사, 말사, 포교신도단체, 중앙신도회, 각 교구신도회, 각 사찰 신도회, 종립학교, 각급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조치와 함께 기획실에서 종단 출입기자 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해종언론대책위 1차 회의 후 진행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위원장 초격 스님은 "해종 · 악성 인터넷 매체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비방 · 비난 기사로 인해 한국불교와 종단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면서 "악성 언론사의 보도 행태 근절을 위해 전 종단적 '해종언론대책위원회' 를 구성해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결의사항 시행 의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

13일 취임식 개최… "'일하는 비구니회' 되겠다"

수석부회장 효경 스님 등
11대 집행부 인선 확정해
비구니 위상 강화 등 기대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에 육문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 를 개최했다. **〈취임식 차주 상보〉**

이날 육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일하는 비구니회' 라는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천명했다.

육문 스님은 "그간 비구니회는 회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지 못한 점, 아직도 열악한 비구니 위상 등 반성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승가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을 안고 오늘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약집에서 '일하는 비구니회' 가 되겠다고 약속했듯이 11대 비구니회 집행부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회칙을 제 · 개정하는 일에서부터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 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육문 스님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 승가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은 공약집을 통해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종회의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취임식에서는 새롭게 비구니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인선도 공개됐다. 제11대 집행부는 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효경 스님, 부회장 일연 · 상화 · 본각 · 해주 스님, 법룡사 주지 정현 스님, 사서실장 진명 스님, 기획실장 혜조 스님, 총무부장 자현 스님, 재무부장 명연 스님, 교무부장 대현 스님, 사회부장 정관 스님, 섭외부장 혜욱 스님, 규정부장 혜성 스님, 문화부장 혜연 스님, 문화센터관장 선재 스님 등이다.

전국비구니회 11대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1년여 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3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원폭피해자특별법 법안심사서 통과돼야"

합천평화의집, 9일 성명서

오는 11월 11~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안'이 상정되며, 의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인권 및 복지 활동 시민단체인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11월 9일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데 환영을 표하고, 19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길 바라는 기대를 전했다.

합천평화의집은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 원폭피해자들 지원법 및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 대한 지원이 책임과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한일정부 업무 위탁으로 재한원폭피해자 건강수첩 신청 및 교부 등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천평화의집은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안이 심사안건에 포함된 것은 2004년 특별법 제정운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며 "이번에 의결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어려울지 모른다.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NGO ·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

아름다운 동행, 12월 4일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열린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6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저소득가정의 지원 사업 △대북 또는 탈북자 지원 사업 △환경 보전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지원 사업 △네팔 지진피해 재해복구 등 국제개발 및 구호분야 △기획 지원 분야 등 5개로 구성된다. 지원기금은 총 1억 원이다. 국내 단체들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공모사업 중 국제개발 및 구호분야는 네팔 지진피해 재해복구를 위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배분된다.

공모는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4일까지 이메일(thenanum@hanmail.net) 및 방문, 우편 접수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12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02)737-9595

박아름 기자

문화재法 지각변동, 예의주시 필요

문화재청, 문화재기본법 제정 추진…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문화재청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문화재기본법 제정에 나서며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문화재청은 11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 공청회를 열고 '문화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문화재기본법'은 최근 유네스코등재유산이 1995년 3건에서 42건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과 향유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며 정부차원에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문화재 관련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돼 2009년 문화배보호기금법, 2010년 문화재수리법, 2010년 매장문화재보호법 등 이미 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법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기본법 입법방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 모법인 문화재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재활용법, 세계유산보존관리 특별법 등이 추가되며, 2단계에서는 기존 문화재 보호법이 모두 분법돼 19개의 세부법으로 나뉘게 된다.

이날 기본법안 설명을 맡은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청회 등을 더 열고 20대 국회에서 상정 계획으로 201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법안 중에는 특히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문화재 향유권 강화, 비지정문화재 관리 명시 등에서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중 문화재 향유권은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권한을 명

문화재영향평가 · 비지정문화재 등 불교 성보 관리에 직접 영향 전망
향유권 강화, '양날의 검' 될 수도
비지정문화재 보존방안 수립돼야

시하는 것으로 넓게는 문화재를 공유재산으로 보존 활용하는 권리다. 하지만 국민의 향유권만을 강조하다보니 개인과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불교계의 경우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향유권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논리도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에 기반하고 있다.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법 상에도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입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 향유권 만을 강화하면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받게 된다"며 "사찰을 비롯해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한 재산권 보호 부분도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문화재영향평가 또한 사찰의 불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재영향평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 영향을 평가제도다.

또 현재 시도지자체장이 문화재적 가치로 인해 직접 지정한 문화재자료의 경우 상위인 시도지정문화재와의 개념 중복으로 비지정인 향토문화재로 개편될 수 있다. 향토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관리 등이 지자체의 자율로 진행돼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재팀장은 "불교문화재 7만여 점 중 문화재자료가 상당수 있다. 문화재 행정 공백으로 보존관리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팀장은 "비지정 불교문화재가 6만 여 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문화재 기본법 제정과 함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도 함께 수립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지역 종교인 '생명평화'를 이야기하다

종로 금선사 · 서울교회 등 11일 종교인 문화마당 개최
각 종교 경전 합송 '눈길'



서울 금선사 · 서울교회 · 세검정성당 · 원불교사직교당은 11월 11일 금선사에서 '제3회 종로 지역 종교인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종로 지역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 금선사 · 서울교회 · 세검정성당 · 원불교사직교당은 11월 11일 금선사에서 '제3회 종로 지역 종교인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마당에서는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의신학 교수 박준양 신부가 연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으며, 평화에 대한 각 종교 경전 합송이 이뤄졌다.

박준양 신부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종교간 평화와 환경 파괴 근절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신부는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지구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면서 "다행스럽게도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포용과 존중의 자세를 가질 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종교 간에 반목과 질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상생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리야말로 자못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현재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종교인들은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상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종교 경전 합송에서는 불교는 〈법구경〉의 경구를 소개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도 자신의 경전에 내포된 평화에 대한 경구를 합송했다.

이번 종교인 모임에 대해 금선사는 "이웃종교간 이해와 화해를 통한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생명평화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음식, 슬로푸드와 만나다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서 사찰음식 홍보행사

11월 22일까지 고양 킨텍스서

사찰음식과 불교의 차문화가 슬로푸드를 만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015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에 참가, '일상다반사-마음을 다스리는 茶'를 주제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한국 사찰만의 독특한 차 문화를 선보인다.

잠을 줄여주고 수행에 도움을 주는 까닭에 예로부터 스님들은 차를 가까이 해 왔다. 그렇다면 차 마시는 사회를 장려하는 슬로푸드국제협회의 공식 프로젝트 'SLOW CHA'와 만난 사찰 차 문화의 모습은 어떨까.

사업단은 이번 행사에서 차와 수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특별히 조명한 다양한 전시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관람객들과 함께 고즈넉한 산사(山寺)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눌 계획이다.

계절과 음양오행에 따른 사찰의 차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한 사진전과 전통 다기 · 다구 전시, 차와 함께 곁들이는 먹을거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차를 맛볼 수 있는 시식 · 시음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또 행사장 내 사찰음식 홍보부스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는 '스님과의 차담'을 위한 체험 공간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알맞게 숙성된 차에서 우러나는 향과 스님이 건네는 따뜻한 조언만으로도 바쁜 일상을 잊고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편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은 '차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21일)라는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혜성 스님은 1일 1회(18일~22일) 선차 시연 및 차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식문화 단체와 각국 전문가가 모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생명존중과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는 음식, 사찰음식'에 관한 발표(21일)도 예정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참여는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www.slowfoodfestival.org/)를 통해 사전 접수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사찰음식의 정신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슬로푸드의 가치가 만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와 자비의 정신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1회 불교인권상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불교인권위 20일 조계사서 시상식… 창립25주년 기념법회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 이하 불교인권위)는 11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25주년 기념법회 및 제2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올해 불교인권상 후보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계를 넘어 아시아 여성들 네트워크인 'TAW', 이형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3명이 추천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정대협은 상패와 상금 3백만 원을 수여받는다.

정대협은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 및 법적 지원책 촉구활동 등에 일조한 공적을 인정받아 제21대 불교인권상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2006년 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 한국헌법재판소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2011년 '정부의 부작위 위헌 판결'을 이끄는 등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규명을 위해 매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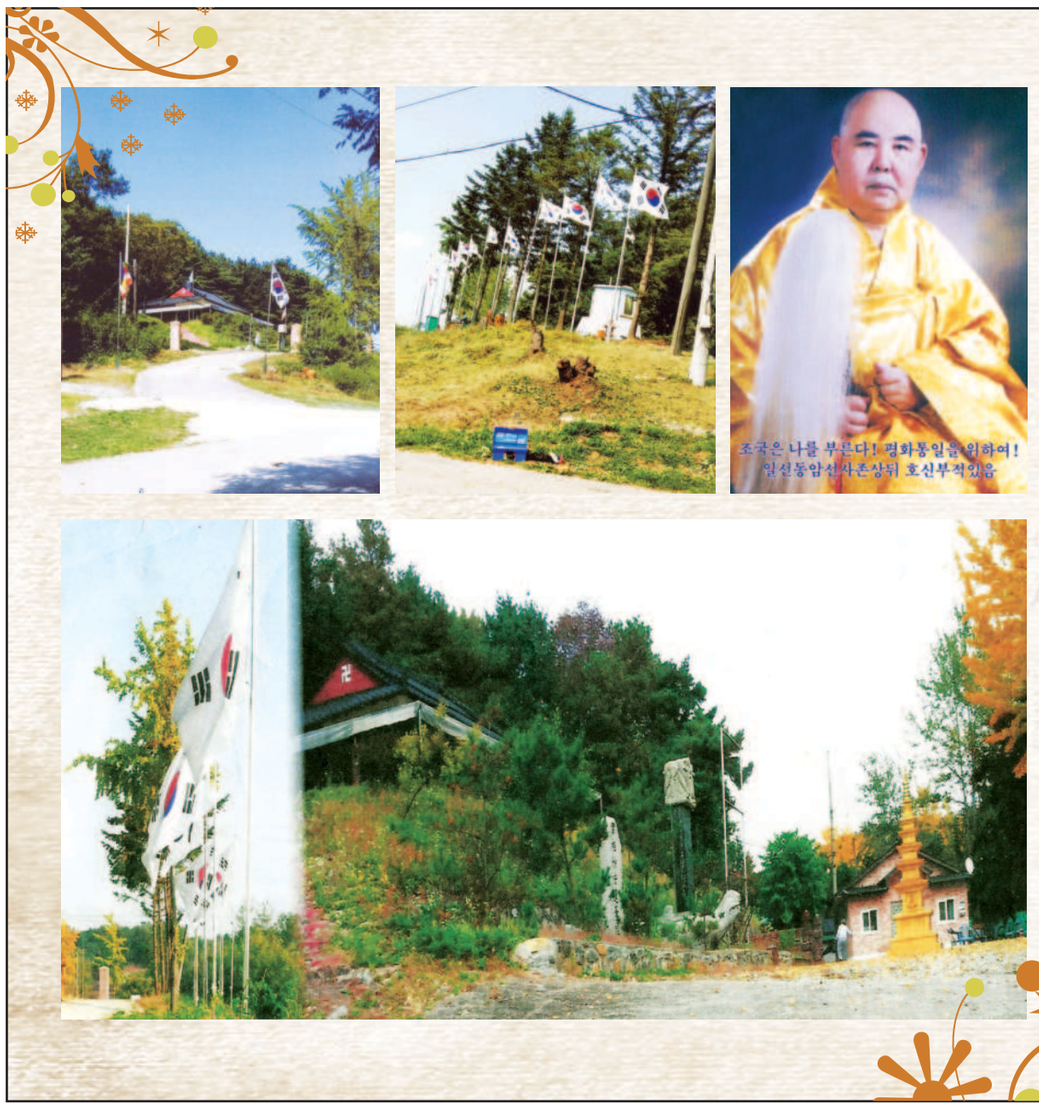
이번 불교인권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3후보 모두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 경력이 출중했다"면서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의 발기라고 할 만큼 국제 ·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위안부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역할과 공로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교인권위는 25주년을 맞아 창립기념법회를 앞두고 있다. 1990년 11월 20일 창립한 불교인권위는 그간 사형제 문제, 비전향장기수(형법 제98조 간첩죄를 적용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양심수로서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 송환문제 등 대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1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5주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사안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 인권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불교인권위는 제25주년 창립기념법회에서 불교계 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을 치하해 태고종 성원 스님과 관음종 명진 스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평화통일사 **위임 공고** (돈거래 없는 위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7번지 (76-35)
전화 031)952-7031 / 핸드폰 010-9415-5818
대한불교조계종 성자 이차돈 선양회 / 평화통일사 일선 윤동암

상기와 같은 주소와 절명은 틀림이 없으며 상기자는 10.27법난 피해자로서 인하여 35년간 휠체어로 생활하며 가람수호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 년령 차이 없이 학득 차별 없이 신심이 돈독한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모시겠습니다. 주지스님이 오시면 평화통일사 주지로 위임하고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삼직을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비구니 및 신도 통일선원을 개설하고자 각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신심을 다하시면 됩니다. 임진각 부근 통일로 부근 태극기 30여개가 크게 게양되어 있어 통일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오도산 산 밑에 아담한 평화통일사가 자리잡은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신도는 100명이상 됩니다. 신도는 주지스님의 노력에 많고 적고 합니다. 서울과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전철도 있고 직행버스도 있고 서울까지 교통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돈은 받지 않으니 물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지 위임을 합니다. 일평생 주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 타고서 생활하는 소납은 조계종 종정을 세번 역임하신 윤고암 대종사님을 은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수계도 받았습니다. 자비보살입니다. 근간 불교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12선사 중 한분입니다. 큰스님을 은법사로서 시봉을 5년간 직접한 바 있는 납자입니다. 뜻이 있는 스님은 속히 왕림하시도록 바라며 선착순으로 할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한국불교예술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성자 이차돈 선양회 총재
서부전선 호국 대선사
세계불교사회평화봉사회 총재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재단 고문
세계평화 법륜대행진 한국승가 푸른부대본부 대표

평화통일사 윤동암 올림

조계종 대덕스님들께서 많이 찾아오신 절입니다.

일 주 문



하와이 무량사 보살계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25일 하와이 무량사 개산 40주년을 맞아 열린 대승보살계 수계법회에서 전계사로 나섰다.



〈불교평론〉 11월 열린논단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11월 19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11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02)739-5781

"불교인재 양성에 써주세요."

변금연 보살, 동국대에 1000만원 전달



평생 사찰 공양주로 살아온 변금연 보살(정진인, 82)은 11월 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변금연 보살은 "스님이 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평생 절에서 기도하며 살아왔다. 인생 말년이 되어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을 순례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찰에 조금씩 불사하며 회향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방송을 통해 100살 넘은 노스님도 기부하신 모습을 봤고, 부처님 뜻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게 돼 인재불사에 동참하고 싶어서 찾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9회 한국불교선리硏 학술상 선정

우수상에 조윤경, 학술상에 강대현·김한상 박사



조윤경



강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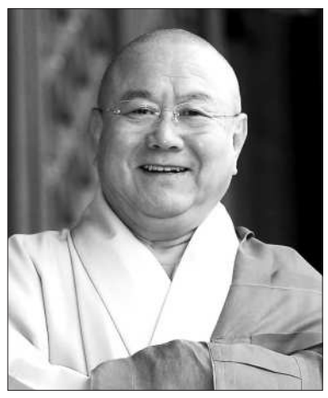
김한상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2015년도 학술상 공모결과 우수상에는 조윤경 중국 베이징대 대학원 박사의 '삼론종에서의 방편(方便)의 의미 – 방편과 권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학술상에는 강대현 위덕대 대학원 박사의 '반야42자문을 통한 대승공사상의 이해와 실천', 김한상 스리랑카 켈라니야 대학교 박사의 '스리랑카의 불교 영웅 둣타가마니의 무용담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 빨리 문헌과 한역 불전을 중심으로' 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정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독도 지키는 것이 곧 통일운동"

〈독도는 통곡한다〉 공저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



韓민족과 1700년 함께 불교
민족 정체성 지키기 나서야
독도 침탈하려는 日 좌시 안돼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하지만 남북분단 70년이자 명상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당한 을미사변 1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에서 큰 아픔인 남북 분단은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다케시마' 라고 부르며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평화헌법을 개헌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前 동국대 정각원장이자 조국평화통일협회장인 법타 스님〈사진〉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성토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의 성토에는 최근 최종환 박사와 공저한 〈독도는 통곡한다〉의 발간 이유가 담겨 있었다.

〈독도는 통곡한다〉는 일종의 독도에 대한 '역사 개론서' 이다. 삼국시태부터 대한제국까지의 독도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고, 한 · 중 · 일 삼국의 고지도를 통해 독도는 한국 소유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의 독도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역사도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법타 스님은 통일 운동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해 '금강국수공장' 설립, 생필품 지원 등 북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북한의 절과 불교〉, 〈평화통일은 진정한 대승보살행〉 등 저서도 통일운동의 산물이다. 통일운동의 선구자인 법타 스님이 독도 지킴이 운동을 해오는 것도 통일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도 지킴이 운동도 크게 보면 통일 운동입니다. 일본은 근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전해준 국가입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가진 독도를 지켜가는 것은 남북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동일한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독도 지킴이 운동을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타 스님은 불교가 민족 동질성 회복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중과 함께 고락(苦樂)을 함께 해 온 불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민족의 아픔은 분단이지요. 17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는 그 역사 속에서 민족의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불교가 모든 노력을 천착해야 합니다. 독도 지킴이 운동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타 스님은 〈독도는 통곡한다〉를 통해 많은 국민과 불자들이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도는 우리 겨레의 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본의 야욕을 없앨 수 있는 독도 지킴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지혜로운 대처 방법도 터득했으면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무송 · 전원주, "네팔에 희망을"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로 'BBS라디오' 재능 기부



전무송



전원주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배우 전무송씨와 전원주씨가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목소리 재능 기부에 나섰다.

전무송, 전원주씨가 지난 10월 22일 과 11월 4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지구촌 공생회 사업소개 및 후원광고' 에서 내레이션을 맡아 목소리 재능을 기부했다. 이는 지구촌공생회가 실시 중인 네팔 지진 장기재건 사업 '스무고개 스무학교 및 케냐 식수지원 사업' 을 소개하고 후원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다.

전원주씨는 "내레이션 참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기쁘다" 면서 "네팔 아이들을 위한 튼튼한 학교가 세워져 희망을 다시 찾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전무송씨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구촌공생회는 "전무송, 전원주씨는 지난 2012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캄보디아 지뢰제거, 케냐 식수사업 등 지구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는 나눔실천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면서 "전원주씨의 화통한 웃음과 전무송씨의 따뜻한 음색으로 네팔을 위한 진심이 담긴 응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를 세우고, 2016년부터 3년 간 네팔 신두팔촉 지역에 학교 20곳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신두팔촉 지역은 지난 대지진으로 전체 학교의 89%가 훼손 또는 붕괴됐다. 후원계좌 기업은행 062-070908-01-011 사단법인지구촌공생회 **박아름 기자**

금강경독송회, 동행에 500만원 전달



사단법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 이하 금강경독송회)는 11월11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세계에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 우수함을 전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 한국알리기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1973년 설립 이후 국내외 1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며,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을 50만권 법보시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2012년 11월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전달 이후 티베트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난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난민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티베트 난민 6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도 티베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군종교구, 불자 장군진급 축하만찬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4일 국방부 국방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장군 진급 불자 대상 축하만찬을 개최했다.

올해 장군으로 진급한 불자는 최병호 육군본부 헌병실장 등 7명으로 이날 만찬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총무국장 지선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오원진 장군과 각 군 선임군승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 불자들에게는 자승 스님이 마련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법문을 새긴 '장군 지휘봉' 과 정우 스님이 마련한 〈달라이 라마 마음의 고향을 찾아〉 책 등이 전달됐다.

정우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로 자신을 통찰하며, 부처님의 자비로 만나는 인연마다 나누고 베푸는 불자 장군이 되길 기원한다"며 "군불교의 발전과 화합, 군장병 포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불자 장성들은 "불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군불교 발전을 함께 염원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특별만남 주선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오민구)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센터장 김도현)는 11월 7일 이른둥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행사는 25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해 △가족사진 촬영 △캐릭터 인형 기념촬영 등 △축하 케이크 컷팅 △이른둥이 아기 성장 동영상 시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24시 동영상 시청 △이른둥이 부모님 양육경험과 소감발표 등을 진행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기술이 국내 최고수준이다. 출생체중이 750g 미만에서 약 50% 이상, 1000g 미만에서는 약 70% 이상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지정받았다.

김도현 센터장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5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한국의 전통문화 ‘인경’〈印經〉 우리 곁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 11월 11일 송광사 인경작업 현장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변영재 인경(印經)장이 1781년 제작된 〈염불왕생첩경도〉를 인경하고 있다. 이 인경본은 책자로 만들어져 문화재청과 송광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 1질씩 자료로 소장하게 된다.



인경한 계초심학인문언해 송광사판을 말리고 있다.



송연묵을 바른 경판에 닥나무 한지를 올리고 마릎으로 문지르고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이 화엄전에서 경판을 꺼내고 있다.

꼼꼼히 먹물을 바른 경판에 한지가 올라간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릎으로 그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 한지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인경(印經) 작업이다. 인출(印出)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업은 박물관에 유물로만 남아 있는 경판이 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11월 11일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일제시대 이후 최초로 공식 목판 인경작업을 진행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14년부터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사료가치가 높은 목판을 선별해 화엄사와 대흥사 송광사의 총 20종 615판에 대한 인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팔만대장경과 직지 등 세계사에 유래없는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는 사찰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큰 사찰에서는 경전을 쓰고, 새기고, 인쇄했으며 스님들은 역경, 조각, 인쇄의 전문가였다. 하지만 활자의 발달로 인쇄문화가 변화하며 사찰에서조차도 인경문화가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인경작업은 잊혀져 간 우리의 전통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인경작업이 진행된 송광사는 해인사 다음으로 많은 불교경판을 소장한 사찰로 그동안 인경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판 보존 · 관리 작업과 병행

전통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작업이기에 인경작업은 정성을 다해 이뤄졌다. 먼저 송광사가 소장한 경판을 인경장소로 반출하는 작업부터 진행됐다.

다른 경판과 달리 불교경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있다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송광사 도감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의 손에 1641년 건립된 장경각 화엄전 문이 열렸다. 화엄전에 보관된 〈화엄경〉 등 경판들은 국보 제314호 화엄탱화와 함께 보관돼 그 가치를 가늠케 했다. 이들 경판에는 빼곡히 이름표가 붙여 있었다. 2014년 진행된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목판일제조사 결과물이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일제조사를 하며 미생물 번식, 온습도 기록과 같은 보존환경 점검과 함께 경판 관리작업 또한 함께 진행했다.

불교계 · 정부 전통 살리기 나서

일제시대 이후 최초 공식 ‘인경’

17세기 전 경판 20종 615판 시행

후대에 과거 · 현재 문화 전해

국내 유일 인경장, 최고 먹 · 한지 사용

인경 매뉴얼화, 전체 사찰 보급 추진

리송재 팀장은 “향후 목판 판각을 후원한 이들과 장인 집단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서문과 발문 해제, 정밀 디지털 이미지 주축 등의 후속작업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차곡히 쌓여 보존된 경판들은 후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천년의 지혜를 다시 전하고 있었다.

인경문화 선례 · 기준점 만들어

자리를 옮겨 성보박물관에서는 미리 옮겨진 경판들의 인경작업이 한창이었다. 인경을 진행하고 있는 이는 50년 동안 사찰의 불교경판을 인경해 온 변영재(67) 인경장. 인경장은 중요무형문화재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 맥조차 잇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변 인경장은 1965년 해인사에서 비공식으로 진행한 팔만대장경 인경에 참여한 당시 인경장 24인 중 유일하게 남은 이였다.

변영재 인경장은 먹물을 수백년 묵은 나무경판에 바르고 닥종이 한지에 찍어냈다. 인경작업에는 소나무 재로 만든 국내 최고의 먹인 송연묵과 문경의 닥나무 산지에서 공수한 전통한지가 사용됐다. 솔도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렵을 사용했다. 한켠에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직원이 경판이 상하지 않게 소금을 먹인 먹물을 초벌로 바르고 있었다.

변 인경장은 “예전에는 사찰에서 스님들도 인경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인경하시는 분이나 배우려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물관 한켠에는 인경을 마친 한지가 소복히 쌓여있었다. 이는 1577년 만들어진 〈계초심학인문언해〉(誡初心學人文諺解) 송광사판이었다. 이 인경본은 전문제작소로 보내 책자로 만들어져 문화재청과 송광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 1질씩 자료로 소장하게 된다.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은 “인경을 통해 육안이나 사진으로 보지 못하는 불교경판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대에 전할 문화가치를 현대에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통방식에 따라 각 사찰 경판에 가장 적합한 전통 인출기법을 찾고 그 가치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송광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경은 경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 스님



“인경은 경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경판을 단순한 자료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 하나에 담긴 지닌 의미를 되살리고자 함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안 스님〈사진〉은 “사찰이 경판을 보관한 내역을 보아도 그 사찰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인경은 교육과 수행 등 불교문화의 핵심인 경판의 본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현재 디지털기술로 3D사진 촬영 등으로 자료를 남기지만 인경만큼 경판이 지닌 정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된 인경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며 연구소는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런 취지에서 경판의 공개를 꺼리는 개별 사찰들의 협조를 얻어냈다. 여기에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년 넘게 한지와 먹 등 재료의 품질에서부터 두께, 농도, 작업속도 등도 연구했다.

스님은 끝으로 “경판은 판 하나 하나에 가르침을 담은 신앙의 대상이자 선지식들이 남긴 지혜”라며 “대장경을 비롯한 문화재를 단순히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야 할지 후손들에게 방향과 방법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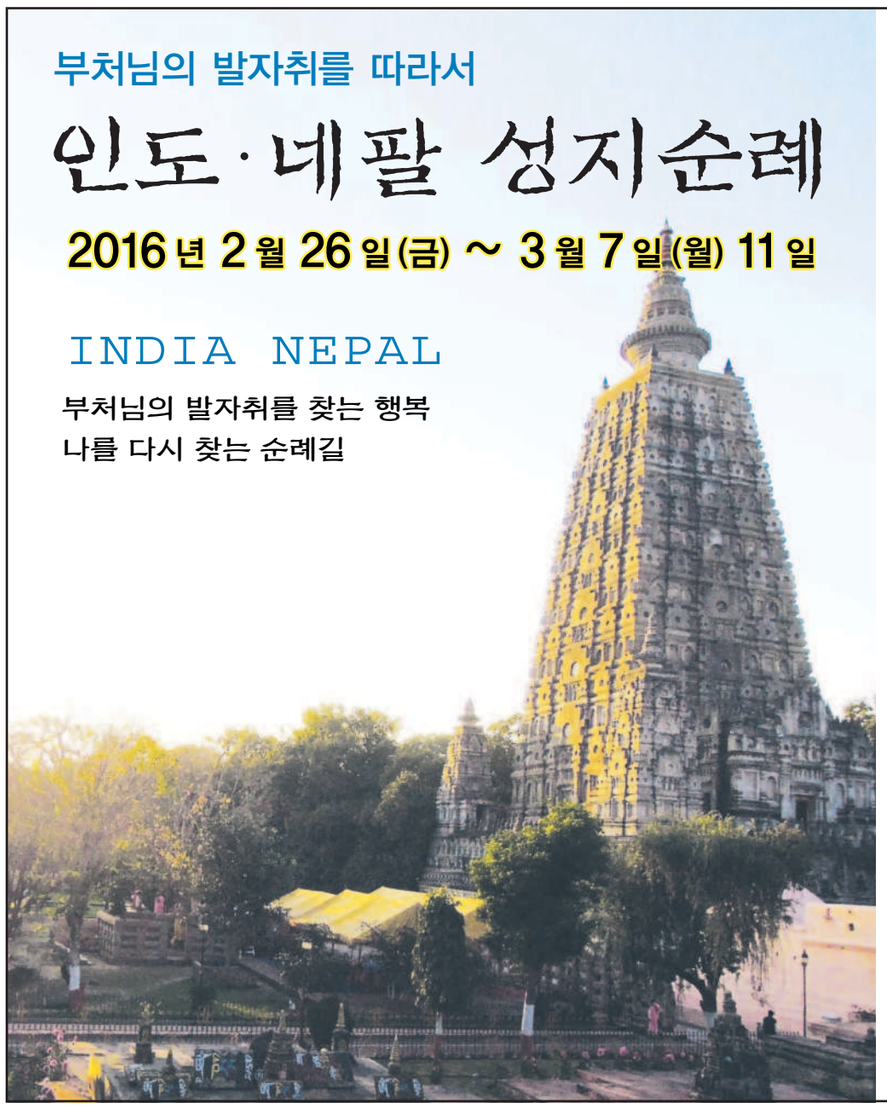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저서 〈추워도 향기를 팔지않는 매화처럼〉 외 다수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지
◇마음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가수, 보건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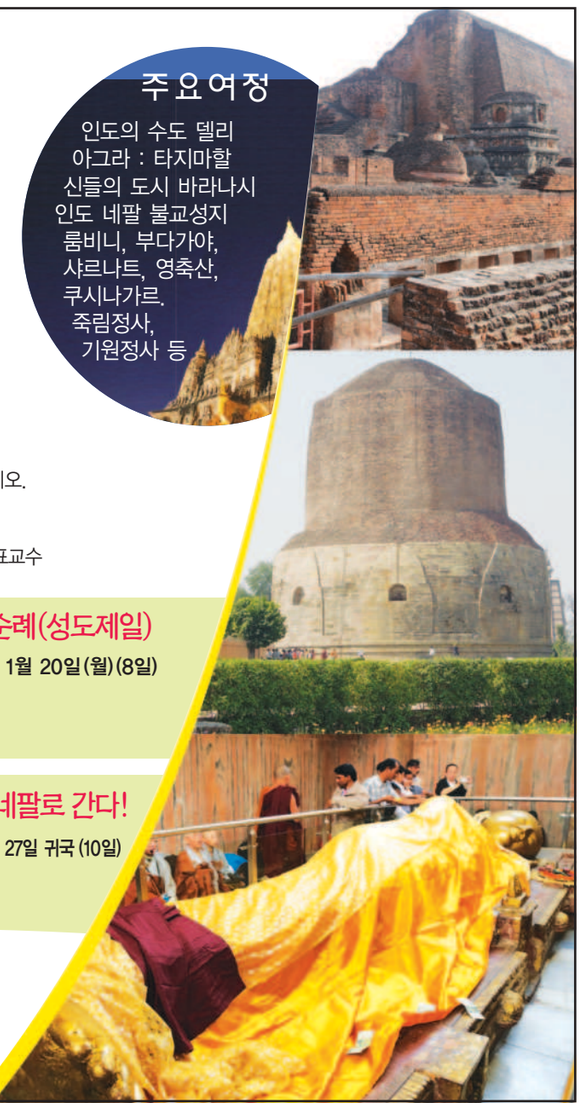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진동에
저절로 흔들이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주요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 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 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 – 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 귀국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성지 – 아그라 – 델리

불타 BUDDHA BOHEMIAN 붓다 보헤미안

어린이법회 '10년 간' 지속… 그 비결은?

서울 역삼동 보리사, 11월 15일 '어린이회 창립10주년 법회'

어린이법회 가뭄 속 10년 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이어온 곳이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조계종 보리사(회주 종하)다. 이곳을 거쳐 간 어린이들만 1백여 명이 넘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이법회가 사라지는 실정에 어떻게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 개신교가 강세인 강남지역에서 대형사찰이 아닌 소규모 사찰이 어린이법회를 지속해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법회 참석률이 저조해지며 보리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는 사찰 측 의지만큼은 결연하다.

보리사 어린이법회는 2005년 명조 스님이 당시 주지로 부임하며 처음 창설됐다. 어린이법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명조 스님은 포교사단에 부탁해 10여 명 포교사들이 모였다. 10년 전 그 때부터 보리사 어린이법회를 담당해온 김석두 포교사는 "창립하면서 어린이들을 모으기 위해 포교사 10명이 함께 초등학교 앞에서 어깨띠를 메고 사탕을 나눠주며 홍보했다"면서 "아이들이 한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매주 20명 넘게 참석할 때도 있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 강남지역에서 작은 사찰에 어린이들이 매주 나오는 것이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보리사는 11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보리사 대웅전에서 '어린이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청소년법회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10년 동안 어린이법회를 거쳐 간 청소년 및 청년 불자들도 함께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10주년 경과보고 및 영상 시청,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등 진행됐다. 특히 2부 축하공연에선 △이연수 학생의 독창 공연 △중학생단의 '카우벨' 연주 △김서연 학생의 '어린이 영문 자타카' △고등학생단의 '콘트라베이스' 연주 △김승헌 외 3명 보리사 밴드 공연 △최현의 외 1명의 염불랩송 △보리사 합창단 △보리사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모든 무대를 보리사 어린이회 출신 학생들이 꾸리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강남 소규모 사찰서 '이례적'
출신 학생만 1백여 명
단 한주도 거르지 않아
다양한 활동 · 꾸준함이 비결

보리사 어린이회는 그간 사물놀이, 비보이 댄스, 밴드, 찬불가 율동, 난타 등 장르 불문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실시해왔다. 여느 사찰처럼 예산 부담이란 고충을 안고 있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김석두 포교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포교사는 "사중 내에서 받는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모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모들이 나서 아이들 체험활동에 적극 지원해주니 포교사들도 덩달아 힘을 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포교사는 보리사 어린이회의 강점을 꾸준한 '지속성'으로 꼽았다. 김 포교사는 "매주 1~2명의 포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포교사단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 교육의 장'이라 일컬어질 만큼 어린이 법회 담당을 맡기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면서 "많은 보리사 어린이회 출신 포교사들이 각 지역별 사찰에서 어린이회 팀장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보리사 어린이법회는 아이들이 몇 명이 오든 무관하게 포교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김 포교사는 "인원이 적을 때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회주 종하 스님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법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며 "1명이 훗날 1백 명을 포교할 수 있다. 항상 문을 열어두면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라 전했다.



보리사는 2005년 어린이법회를 창립하고 10년 간 댄스, 난타, 요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에 11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보리사 대웅전에서 '어린이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험생 '템플스테이'로 스트레스 '훌훌'

11월 12일~12월 8일 전국 사찰서 실시

11월 12일 단 하루를 위해 중 · 고등학교 6년 간 쉼 없이 학업에 정진해 온 고3 수능생들. 그간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기 위해 전국 각지 사찰이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1월 12일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공개했다. 수능 직후인 11월 12일~12월 8일까지 전국 각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대학입시생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서울 진관사는 11월 28~29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KBUF)와 함께 예비 대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 '나를 찾고, 힐링을 찾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KBUF 대학생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멘토로서 조언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아울러 △스님과 차담 △포행 △나에게 보내는 편지 등 프로그램도 구성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경북 성주군 자비선사는 11월 12일~12월 6일 '자비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재수생, 가족 및 친구, 연인, 선후배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무료로 참여가능 한 이번 행사는 선착순 3백 50명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차 명상으로 배우는 소통의 방법 △걷기 명상으로 배우는 쉼의 방법 △닥종이 공예, 합장주 만들기 등 마련된다.

각 사찰별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예약사이트(www.templestay.com) 문의 (02)2031-2000

수험생 위한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명	프로그램명(가안)
고운사	let it go! 저 절로 간다.
구인사	마음을 비우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국제선센터	굿바이 수능! 헬로 템플스테이!
대원사	마음생생
문수암	나를 찾는 명상상담
미황사	수험생을 위한 마음템플스테이
반야사	수고했어
백담사	꿈과 함께하는 어울림 템플스테이
법륜사	내 꿈! 내 꿈! 내 꿈! 발원하옵니다
봉은사	쓰담, 쓰담 수고했어요
송광사(순천)	스무 살을 부탁해
수진사	스키타go 템플스테이
심원사(성주)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쌍계사(하동)	수류화개 '나는 위로받고 싶다'
쌍봉사	수능대박기원템플스테이
용문사(남해)	수능 참가자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용화사(통영)	이제는 놀자
자비선사	명상하며, 휴식하며
직지사	2015수능수험생 새 출발 템플스테이
축서사	안녕! 열아홉, 안녕? 스물
화엄사	NEW START
화운사	내려놓고, 가볍게
흥국사(고양)	때로는 그냥 쉬어보자
흥국사(여수)	대학입시 수험생 템플스테이
진관사	2015대학입시 수험생 템플스테이

박아름 기자

돈관 · 덕조 · 성원 스님 약천사 창건주 승계

11월 7일 대적광전서 봉행… 1천여 명 참석

조계종단 '최초' 창건주권한 승계
불자들 위해 연구할 것 당부
"약천사, 수호하고 발전시킬 것"

약천사 회주이자 창건주인 혜인 스님이 조계종단 최초로 돈관 스님(은해사 주지)과 덕조 스님(맏상좌, 종회의원), 성원 스님(상좌, 약천사 주지)에게 창건주 권한을 승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혜인 스님이 신심과 원력으로 이룬 약천사 창건주 승계식은 지난 11월 7일 대적광전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일면 스님(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혜총 스님(前 포교원장이자 성역화 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법의 스님(은해사 한주),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혜전 스님(비구니회 제주지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혜인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기왓장을 금으로 바꾸고 10만 탑을 쌓는다하더라도 만나는 불자들을 섭섭하게 한다면 그 절 주지의 자격이 없다"며 "약천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즐겁고 편안히 하게끔 자나 깨나 연구하는 것이 약천사 주지의 소명"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한을 승계 받은 돈관 스님 · 덕조 스님 · 성원 스님은 인사말서 "혜인 스님이 거대한 중생제도의 원력으로 창건된 약천사의 의미를 잘 수호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오늘 승계받은 세 스님은 서로 화합해 창건 정신을 이어가라"며 "훌륭한 집은 울타리가 잘 만들어져 있듯이 불자여러분들이 승계받는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약천사 회주이자 창건주 혜인 스님이 11월 7일 대적광전서 조계종단 최초로 돈관 스님과 덕조 스님, 성원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승계했다.

제주불교신문 이병철 기자

여성개발원, 15주년 기념법회 봉행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이하 여성개발원)은 1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1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2부 기념식에 앞서 1부에서는 연극 '토라진 부처님'이 펼쳐진다. 남지심 작가와 임완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이매옥 (사)깨달음과나눔 이사장 외 10인의 여성개발원 회원들이 배우로 나선다. 주제는 '여성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성찰하는 시간'이다.

아울러 3부 토크쇼에는 월호 스님, 진명 스님을 패널로 △여성불자의 자세 △바른 신행 △불교여성개발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일반 패널로는 안주희 불교여성연구소장,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불레협, 제56회 겨울지도자강습회 개최

11월 21일 · 28일 경기지역 및 대구서 2차례 실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오는 11월 21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제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경기도 수원포교당에서, 28일에는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공도량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번 강습회는 '놀이로 배우는 인성'이란 주제로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 불교학교 등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 개발의 장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신옥진 재미재미오감놀이 강사의 '전래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방법' △진성철 크느나무이벤트 대표의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찬불가 율동 지도 및 활용법' 등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문의(02)738-7860 및 불교레크리에이션카페(cafe.daum.net/burec)

박아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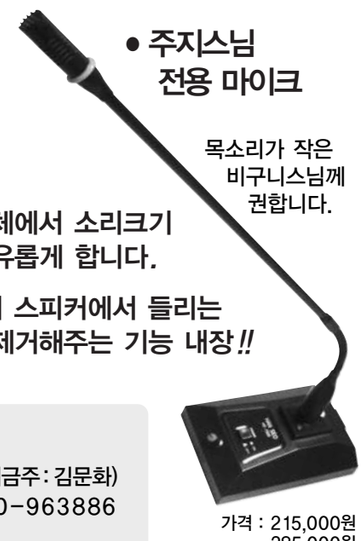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사회복지 미래, ‘인재양성·역량강화’가 해답”

조계종복지재단, 창립20주년 역사와 미래전략 ‘조명’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불교의 위상 및 대사회적 역할 확립을 위한 포부를 다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 설립됐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 당시,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종단 사회복지 전문기구 설립’이 제안되며 본격 추진된 것이 그 시초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재단의 발전 노력은 1990년대 초 90여개에 불과하던 전국 불교사회복지시설이 현재 1천 1백 개가 넘어서는데 마중물이 됐다”면서 “현재 재단은 불교 교세가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소외계층 쉼터 기능을 수행하며 포교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조계종복지재단은 최근 2~3년 사이 ‘긴급재난구호’ 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1996년 파주·연천지역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단초가 돼 2005년 발대한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2013년 우면산 산사태,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에는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세월호 구조지원 활동과정 및 평가를 담은 ‘세월호참사현장 불교계 지원활동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사무국장은 재난구호 부문서 조계종복지재단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과 함께 재난재해발생과 관련 정보 교류 및 역할 분담을 의논하며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사회적으로 재단의 역할이 더욱 막중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현재 조계종긴급구호봉사대를 긴급구호봉사단으로 격상시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조계종복지재단이 1995년 8월 발족한 ‘조계종자원봉사단’도 일반봉사를 비롯해 골기경락·염불·호스피스·집수리 봉사 등 전문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며, 대통령 표창 및 현대아산재단의 아산상 등 수상한 바 있다. 조계종자원봉사단에는 3천여 명이 소속돼 월 평균 7백여 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조계종복지재단은 노인·장애인·아동 및 청소년·다문화·한부모·노숙인·어린이집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산하 182개(2015년 10월 1일 기준)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이 각각 46개와 45개로 가장 큰 수를 차지하며, 장애인복지관이 32개, 지역사회 복지관이 25개로 그 뒤를 잇는다. 이 중 약 85%가 공공기관의 위탁운영을 맡아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위탁운영의 경우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못해 포교 활성화에 영향을 미

1994년 종단개혁 시초돼 출범

전국 182개 산하시설 운영

자원봉사·재난구호부문성장 ‘괄목’

“긴급구호대, 봉사단으로 격상”

복지종합센터 및 대학원 설립 추진

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돼 왔다. 위탁운영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고 지원의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종교적 성격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은 보편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으로 불교적 특성을 도입했다. △난치병어린이돕기 3천배 철야정진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명상 및 참선 교육 △산하시설 직원 윤리교육 등이 그 예다.

최종환 사무국장은 “위탁운영 중인 산하시설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교적 성향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면서 “난치병어린이돕기를 위한 3천배 철야정진 모금행사와 같은 행사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돼 불교 수행법도 전파한 사례다. 이밖에도 수행·명상 등 대중적 프로그램을 운영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최 사무국장은 ‘인재개발’과 ‘역량강화’를 꼽았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올 1월 불교계복지사업을 총괄하는 ‘불교복지종합센터’와 인재양성을 위한 ‘불교복지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중장기 전략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계종 성역화 사업과 맞물려 향후 5년 간 추진할 위 2개 사업은 전국에 흩어진 불교사회복지시설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사무국장은 “조계사를 중심으로 성역화가 본격 추진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2개 사업도 구체화될 것”이라며 “재단 만의 성장이 아닌 불교계복지시설 1천 1백 곳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이 될 것이다. 불교와 복지가 접목된 전문가들에 대한 육성이 바로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8년 2월 22일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올해는 창립20주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2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2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23일 오후 2~8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제1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제1부 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 기반 복지공동체 구축방안’ △제2부 창립20주년 기념법회 △제3부 힐링콘서트 ‘더 나눔’ △제4부 만찬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이날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 및 창립20주년 불교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매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를 선정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표창해 온 조계종복지재단은 올해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시설운영·관리부문 △후원·봉사부문 △학술연구부문△발전공헌부문 등에서 활약한 공로자들을 선정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 외 10인에 총무원장표창을 수여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추위 속에 온기를… 불교계 자비손길 ‘분주’

아름다운동행·조계종복지재단 등 쪽방촌 주민 지원 나서

커피한 잔 값에 연탄 5장

지인 3명 추천 ‘릴레이 기부’

영등포 쪽방촌에 김장 지원도

추운겨울 동장군에 맞서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려는 불교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좋은 일은 함께 하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법, 아름다운동행이 쪽방촌 주민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연탄기부 동참을 이끌고 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연탄기부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실시한다. ‘아이연탄맨’은 지난해 큰 반응을 일으킨 기부동참 릴레이 ‘아이스버킷챌린지’에서 착안한 연탄기부릴레이 사업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전국 16만 가구 이상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만 가구는 저소득가정으로 연탄 지원이 절실하다. 쪽방촌 가구 중 55.2%인 70대 이상 노인 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면서 “겨울나기를 위해 한 가구당 필요한 평균 연탄수는 6백 장, 총 36만원 난방비가 필요하다”며 연탄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기부 희망자는 전화 한 통을 걸어 3천원을 후원하면 연탄 5장이 적립된다. 이후 손바닥에 연탄 그림을 그린 후 찍은 사진을 지인 3명 및 아름다운동행(010-7376-9595)에 전송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아울러 기금동참도 가능하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아이연탄맨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매년 연말 진행된다. 아직도 연탄을 쓰는 가정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도움을 절실히 기다린다”며 “3천원으로 커피한 잔 대신 연탄기부에 동참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37-9595

아울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0일 오후 2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6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김장행사’를 개최한다. 한화S&C 및 동국대 국제교류센터 한화S&C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들과 함께 3천kg 김장을 담가 영등포구 쪽방촌 약 3백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연탄기부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실시한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영등포 쪽방촌은 5백 41개 쪽방에 소외계층 6백 17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지역 5대 쪽방촌 중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이에 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 쪽방도우미봉사회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화S&C는 쪽방도우미봉사회 소식을 전해 듣고 김치 외에 5백kg 백미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연극의 메카’ 대학로서 ‘실버 열정’ 펼치다

5개 노인복지관 참여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

“대사 까먹을까봐 걱정돼 죽겠네.” “괜찮아, 많이 연습했으니까 걱정 마.”

‘연극배우’라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단 어르신들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 묻어났다. 대사를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시니어 배우와 옆에서 다독이는 동료들의 모습이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구자훈)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식이 11월 12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 배우 전원주씨를 비롯해 관객 1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사와 축사에 이어 내빈들 및 5개 기관 연극단 대표 어르신 배우들의 테이프 커팅식, 핸드프린팅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다시 청춘이다!”를 함께 외치며 힘찬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막작으로는 종로노인복지관 연극단 ‘대학노애(老愛)’의 ‘삼시세끼’가 올랐다. 극 중 주인공 장숙자 역을 맡은 김상미(여·73)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연극제 연습을 해 왔다. 이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다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면서 “대본을 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무사히 연극을 마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식이 11월 12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렸다.

한편, 이번 연극제에서는 △종로복지관의 ‘삼시세끼’ △동작복지관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양재복지관의 마당놀이극 ‘원통절통’ △구로복지관의 ‘탭댄서 윤일갑이 들려주는 우리네 인생이야기’ 등 무대가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경전에서 해방, '해석의 자유' 가져 오자

미붓아카데미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에는 '소의경전' 이 있다. 소의경전은 신행과 수행하는 데 있어 지향할 바, 즉 실천 정신의 근본으로 삼는 경전이다. 흔히 이러한 경전들은 신심의 '전제' 가 되고, 전제는 비판과 회의가 없는 해석을 낳는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미붓아카데미 강의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에서 '불교와 해석학' 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저서 〈불교 해석학 연구〉(민족사 刊)를 펴낸 바 있다. 김 교수는 "불교는 서양철학의 성질을 닮을 필요가 있다" 며 "불교의 역사는 멈춰있다. 새로운 해석을 보태고 더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996년 박사학위 취득, 일본교토 소재 불교대학의 객원 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및 일본불교사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대승경전과 선(禪)〉〈천수경의 새로운 연구〉〈천수경의 비밀〉〈천수경과 관음신앙〉〈배낭에 담아온 인도〉〈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 등이 있다.

서양철학과 불교의 관계

불교를 어떻게 철학할 수 있을까요? 불교와 철학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 안에 철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대게가 서양철학과 관련지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서양철학과 불교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양철학은 '전제의 부재' 학문입니다. 즉, 무전제의 철학입니다. 서양철학은 전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은 불자들 세계에서는 100% 진리입니다. 불자들 중에서 부처님 깨침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에게는 부처님 말씀, 즉 〈팔만대장경〉과 같은 경전들이 바로 '전제' 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없으면 무엇이든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붓다의 깨달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회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서양 철학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철학의 4대 성인은 동양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 서양의 예수와 소크라테스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저술이나 저서를 해석하며 자신의 학문을 이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저명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일지라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또 요구하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나갑니다. 앞선 누군가와는 다른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보장돼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대하는 자세와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힌두교인들이 〈베다(Vedas)〉 경전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바라문교에서는 〈베다〉를 최고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경전이 바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진리이자 '전제' 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와 힌두교 등 전제가 없는 학문들이 서양철학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우리의 불교를 생각해보면 복사기가 한 권의 책을 복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똑같이 복사만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복사한다고 똑같은 부처님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하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는 부정의 표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변화가 내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똑같은 부처님이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간 불교의 가르침에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움이 없습니다. 2600년 전 우리나라로 들어온 부처님 가르침이 아직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멈춰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보태지며 발전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철학' 입니다.

'저자의 부재' 와 자기 철학

불교를 서양 철학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기 철학' 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자기철학' 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만의 철학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학자들, 조사승, 석가모니 부처님 등과 다른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 할 수 있는 얘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일지라도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자기철학' 의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 경험 등은 다른 사람과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점이 철학적 사유를 방해하는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철학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그 자체이며, 경전이고, 우리에겐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 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부터가 장애물입니다. 엄청난 부당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삼국유사 이야기에서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을 치려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부처님 손바닥 안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전의 무거움이라 표현합니다. 항상 경전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원전(元典)이 없이도 철학적 사유를 잘 지속해갑니다. 아예 원전이 없다는 것은 어패일 수 있으나, 그야말로 권위를 부여하는 원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에는 '소의경전(종교가 신앙과 수행 및 지향할 바 실천 정신의 근본으로 삼는 경전)' 이 있습니다. 소의경전의 존재는 거기서부터 무언가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철학에는 '전제' 없어
회의와 비판의 자유 보장

경전 무거움과 한계 벗어나야
멈춰있는 불교역사 발전

힌두교의 철학 속에서 그들이 〈베다〉를 대하는 자세는 우리와 비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 경전은 사실 쓴 사람, 처음 책을 펴낸 사람이 없습니다. '텍스트' 자체를 그저 따르는 것입니다. 저자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상 스님의 〈법계도기〉입니다. 의상 대사(625~702)는 당나라 유학 당시 화엄경 공부를 10년 가까이 하고, 공부가 마무리될 때 스스로 〈법계도기〉 주석서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석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펜을 놓기 전에 한 일이 '날짜' 를 적은 것입니다. 의상 스님은 668년 7월 15일이라고 저술연도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에 대해 "불교는 바로 인연이니 인연을 밝히기 위해 날짜를 적는다. 그러나 인연에는 주인이 따로 없으니, 이름을 적지 않는다" 고 밝히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베다〉에 이름이 없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독서행위 속에서 새롭게 저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그 저자로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책 〈불교 해석학 연구〉에서는 '[김호성]' 이라고 했습니다. 기존대로 '김호성' 이라는 이름만 적지 않고 괄호를 함께 표기한 것은 의상 스님의 사례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기 대문입니다. 저자의 부재로부터 상호텍스트성을 읽어내고, 또 상호텍스트성으로부터 불교해석학의 한 독서법을 유추해냈던 입장을 스스로 실천해보고자 함입니다.

종학에서 주관성의 가치

참선하는 사람들은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불립문자(不立文字, 문자에 의하여 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전 바깥에 따로 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경전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그 안목으로 경전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전이 구름이라면, '선' 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마침내 무거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심세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해석학이 학문으로서 형성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서양 불교학자들이 불교해석학이라는 논문집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해석학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론으로 보면 해석학 전통은 사실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현대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입니다.

'관심세계' 는 관(觀, 보다)과 심(心, 마음) 자를 씁니다. 관심석(觀心釋)은 옛 선사 스님들이 처음 쓴 말입니다. 천태사석(天台四釋)의 하나로, 하나의 글귀를 자신의 마음으로 간주하고 그 마음을 관조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일컬어 졌습니다. 예컨대 〈금강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금강경에 있는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경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심석경' 혹은 '관심석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적인 경전 읽기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관문석' 내지 '관경석' 입니다. 경전 속 글을 보면서 내 마음을 그 후에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교종적인 해석학으로 '관문석심' 혹은 '관경석심'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을 공부하면서 마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관찰하고 '내가 얼마나 번뇌가 많은가' 하며 내 마음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천적 영역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심석은 경전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석의 자유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학' 이 아닌 '불교철학' 을 하고 싶습니다.

해석의 방법론 중 하나에는 종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종학은 전통시대 각 종파에서 내세운 자기 종파의 학문입니다. 근대 이전의 불교학은 대개 종학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종학의 극복에 의해 불교학의 근대가 출발했습니다. 종학은 불교학보다 덜 주관적이고, 더 객관적입니다. 종학은 가장 주관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나 원효 대사의 경우, 교판을 제시하면서도 종파주의적 입장에 떨어지지 않고 화엄과 다른 대승불교철학, 예컨대 여래장사상 등 널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교판을 제시하면서도 포괄적인 회통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원효 그 스스로 어떤 종파의 개종자나 초시가 되거나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학문권력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원효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특정한 종파의 이해방식, 즉 종학이나 교학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모두에게 종학적 성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다운 것' 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현되고 재조명 돼야할 종학의 가치입니다. 불교학과 같이 기본적으로 고대의 원전을 더욱 더 중시하는 고전학의 전통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고대의 원전에 더욱더 접근되어 있는 해석자의 해석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대의 해석자가 갖지 못한 장점 역시 우리 시대 해석자들이 갖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고대의 해석자보다 훨씬 더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의 해석자가 놓여 있었던 시간-공간의 컨텍스트와 오늘 우리시대의 해석자가 놓여있는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바로 앞 시대를 살다 간 근현대의 해석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앞 시대의 사상과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확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좌표 내지 출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화엄학은 없다. 법성교학이 있을 뿐”

신규탁 연세대 교수, 학계 화엄경 연구분류에 문제제기… ‘화엄의 사상과 실천’ 학술대회서

일본 학계 분류 근현대 수입

화엄연구가 · 조사 기준 한계 지적

“현대 화엄학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근대적 불교연구가 수입되며 사용됐다. 학이 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범위나 분야, 또는 고유연구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화엄학이라 명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불교학회가 11월 13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화엄의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서 “화엄조사, 또는 화엄경 연구를 기준으로 화엄학을 규명하는 학계 움직임을 보류하고 철학적 주의나 주장을 기반으로 ‘법성교학’으로 불려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소위, 화엄학을 어떻게 규정할까’ 글에서 “일본 학계가 유럽 학문을 수용하며 신조어가 쓰였고, 철학, 물리학, 수학 등의 ‘학’ 용어가 생겨났다. 특히 불교계는 근대적 법령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립되며 대학을 운영했는데 종학의 일환으로 천태학 전공, 밀교학 전공, 선학 전공 등 신조어가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도 화엄교학과 화엄사상 등 구분 시도가 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화엄사상 연구분야에 있어 현재 한국은 ‘화엄사상’ ‘화엄교학’ ‘화엄학’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대만의 화엄종, 중국의 화엄학 용어 사용 등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또 서구에서는 ‘화엄철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신 교수는 “화엄경을 연구한 것으로 화엄학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엄경을 연구한 천태지의도 ‘화엄가’ 인가? 또 선사들도 화엄경을 말하곤 하는데 이 또한 화엄가인가?”라며 “화엄가에 의해 구성된 교리조직이란 분류 개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화엄조사설에 근거한 화엄학 규정 또한 화엄학이 과거에만 있고 현재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며 “철학적 주의 주장이 같은 학문공동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당나라 교봉 종밀 스님이 철학적 주의주장을 기준으로 대승불교를 3종으로 나눈 학설에 기반해 화엄학을 법성종의 학문인 법성교학이란 개념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중생의 본바탕인 법성에는 불가사의한 영험과 청정지혜가 있다는 것으로 화엄경에서는 한마음(일심)이라고 한다”며 “청량 징관, 규봉 종밀, 현수 법장의 ‘화엄경 현담’ 역경과정을 보면 철학적 주의 주장의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다만 현수와 청량 스님의 ‘의리분제’, 교봉 스님은 ‘분제유심’ 등에 분제 기준 서적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수와 청량은 〈법계관문〉을, 규봉과 송대의 장수자선 등은 〈대승기신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모두가 〈법계관문〉에 대한 주석서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철학적 주의주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화엄사상과 그 실천적 모색 △동아시아불교와 화엄사상 △한국화엄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화엄사상과 인도 · 티베트 △화엄사상과 관련한 자유주제 △불교와 관련한 일반주제로 나눠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과 김용표, 고영섭 동국대 교수, 양형진 고려대 교수 등이 나섰다.

노덕현 기자

조선시대 송광사의 위상 살핀다

보조사상硏, 11월 21일 제25차 국내학술대회

조선시대 송광사의 위상과 불교계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1일 오후 1시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조선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을 주제로 제25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해당 서울과학기술대 박사의 ‘15세기 불교계의 동향과 기화에 의한 지눌 사상의 계승’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조선중기 송광사의 불서간행과 불교계 동향’ △이종수 순천대 HK교수의 ‘18세기 불교계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의 ‘19세기 불교계와 송광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은 강호선(성심여대), 오경후(동국대), 김용태(동국대), 김경집(진각대) 박사가 맡는다

미리 발표된 자료 중 특히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19세기 불교계와 송광사’는 근대화 과정에서 극심해진 승역부과 등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한 불교계의 움직임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탁 연구원은 “결사와 염불회를 결성해 불교 진흥을 도모했으며, 사찰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송광사는 고종 대에 삼전의 축원당으로 지정된데 이어 기로소원당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는 송광사의 고승 용운 스님의 공로였다”고 주목했다.



순천 송광사 전경. 보조사상연구원은 21일 송광사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탁 연구원은 당시 송광사 스님들이 중앙 관료 및 사대부들과도 폭넓게 교유를 맺었던 것도 왕실원당의 유치가 가능한 요인으로 꼽았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고려시대 지눌 스님에 의해 전승된 선풍이 후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硏 ‘자비와 깨달음’ 학술연찬회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려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함께 11월 2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14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자비, 깨달음 씨앗인가 열매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연찬회에서는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 인도 대승불교 및 티베트불교, 중국 대승불교 및 선불교, 서양철학 및 신학, 심리학 방면에서 각각 자비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연찬회에서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에서의 자비에 대해 “붓다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자비를 가르쳤으며 상좌부의 보편적 수행법으로서의 자비수행과 선정수행으로의 자비수행, 설일체유부의 사무량심과 오정심관 등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차상엽 금강대 HK교수는 인도 대승불교 및 티베트불교에서의 자비에 대해 “대승불교의 ‘대비(大悲)’는 사무량심의 비(悲)보다 확장되고 깊어진 서원과 실천을 담고 있다. 대승에서의 자비는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세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며 티베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리심 계발 방법도 소개한다.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중국 대승불교 및 선불교에서의 자비에 대해 “‘대지도론’ ‘화엄경’ 등 대승경론을 통해 본 지혜와 자비의 관계는 중생과 진리가 둘이 아님을 말하며 이는 곧 실천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연찬회에 앞서 “깨달음으로서의 지혜와 실천으로서의 자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 · 실천적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밝은사람들연구소는 이번 발표문을 모은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운주사)를 출간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7회 원효학술상 공모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제7회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가운데 한 연구부문에서 진행된다.

시상 부분 및 상금은 교수의 경우 저술상 1000만원, 논문상 700만원이며, 박사후 과정은 비전임 교수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이다. 석 · 박사과정 학생은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이다.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심사대상 논문은 최근 5년 이내(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31일까지)에 발표된 것으로 제한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로 선정자는 4월 중 개별통보된다. 시상식은 2016년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열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를 오는 불교진흥원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미술사연구소, 신흥사 역사 · 문화 조명

11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2회 학술대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1월 21일 국립중앙박물과 제2강의실에서 ‘설악산 신흥사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32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정희 원광대 교수의 사회 하에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벽암각성의 조형활동과 신흥사 불상의 조성’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신흥사 경판의 조성배경과 사상’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흥사 극락보전 건축사적 의의’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신흥사 극락보전 영산회상도’ △김현정 동국대 교수의 ‘신흥사 경판의 조성과 수륙재 의식집의 간행’ △오진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흥사 극락보전 기단 부조상의 의의’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연구원 연구원의 ‘신흥사의 역사와 사상’ 등이 진행된다.

한편,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2014년 7월 28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학술조사단을 구성해 신흥사 경내 성보문화재를 종합조사 · 연구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 공간 미학’ 11월 28일 학술대회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와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례 공간의 미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봉건 서울대 강사의 ‘불교의례와 건축’ △최건업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의 ‘선원건축의 공간미학-해인사 상선원(上禪院)을 중심으로’ △김태연 대구대 교수의 ‘수륙재 지화장엄의 조형미 연구’ △윤소희 부산대 강사의 ‘일상의례의 율조와 한글화’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불화와 의례 공간’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동악미술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동악미술사학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제67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황선우 동국대 박사의 ‘산서성 평순현 대운원(大雲院)의 오대 유마경변상도 고찰’ △장희정 금강문화관 학예사의 ‘백양사 청류암 칠성탱의 작가와 연대 추정’ △정우택 동국대 교수의 ‘조선전기 신도상(新圖像) 선묘관음보살도’ △홍선표 이화여대 교수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쟁점과 관점’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정기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아이들의 시·그림, 도량을 수놓다

완도 신흥사, 11월 6일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성료

"제가 그린 그림이 가장 예뻐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민 아이의 모습에 덩달아 주지 스님의 얼굴이 더욱 환해진다.

완도의 한 사찰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 모였다. 아이들의 열정과 활기가 사찰 곳곳에 가득 배어들었다. 이날 섬 사찰에는 창건 이래 가장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림 그리고, 노래를 하며 놀았다. 오랜만에 많은 아이들을 만난 사찰은 가슴으로 보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11월 6일 전남 도내 초 · 중 · 고등학생 500여 명이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를 찾았다. 1174주기를 맞은 장보고 대사 추모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9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대회(이하, 장보고 백일장)' 가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완도 신흥사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인 장보고 아카데미(원장 법공)가 주최한 이날 백일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쉼 없이 이어졌다. 참가학교도 25개 학교에 이른다.

마당을 정신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보이겠건만, 행사를 주최한 주지 법일 스님과 원장 법공 스님은 하루 종일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올 해 장보고 백일장은 예년과 같이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참가자를 구분하고 시와 산문, 그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목포와 해남지역 학교에서도 참가해 형식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명실공히 전남도내 가장 큰 문예행사로

전남 도내 청소년 500명 참가

"내년 10주년, 성대히 치룰 것"

승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최우수상은 시 부문에서 공동으로 김소희(신지중 3, 전남도지사상), 신유라(완도중초 4, 전남도의회 의장상), 그림 부문 장수인(완도고 1, 전남도교육감상)의 작품이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흥사 법공 스님은 "사찰이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편안한 곳이다"라고 말하며, "내년에는 백일장이 10주년을 맞는 만큼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올해 성공적인 개최의 열쇠를 "적극적인 학교방문이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다"고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은 1999년부터 장보고아카데미를 설립해 문화 ·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장보고 해외유적답사, 템플스테이,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포교원 제27회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도 신흥사는 11월 6일 174주기를 맞은 장보고 대사 추모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9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백일장 대회에는 남 도내 초 · 중 · 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불교대학, 법인으로 '새출발'

11월 8일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 법인 봉헌 선포

1988년 설립돼 지역불자들의 신행활동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불교대학이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 김제 청운사 주지)은 11월 8일 전주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법인 봉헌 선포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사)부처님 세상' 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리이타의 보살의 삶을 선양하고 불교의 대중화, 수행화, 생활화를 목적으로 불교의 저변확대를 위한 포교사업, 전통불교문화체험사업, 생활불교지원 실천사업, 수행방법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초대 이사장 도원 스님은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의 출범과 함께 결속력이 약한 지역의 불교세를 극복하기위해 투철한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상호 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이사와 박정규 감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지난 28년간 약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교육기관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덕의 밭을 일구는 도량으로"

광주 비전사 8일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11월 8일 대웅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향식은 현봉 스님(강원암 암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보혜 스님을 비롯해 2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미타 후불탱화, 신중탱화(108위) 점안도 함께 봉행했다.

점안기도에 이어 법요식에서 현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점안은 부처님의 눈의 뜨게 하는 것이다"며 "불자들도 하루 일과의 시작은 눈을 떠야 세상을 보듯이, 점안을 통해 바로 수행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점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늘 지역의 어려운 곳을 살피는 주지 스님의 원력대로, 중생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도량으로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영산보전 낙성법회 봉행

오백나한 점안도 함께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가 새로운 도량 부지를 마련하고 영산보전 낙성식 및 오백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흥사는 11월 7일 열린선원 법현 스님,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순창 장덕사 청암 스님, 군산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산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송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인연을 함께하고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성흥사 영산보전 낙성을 계기로 기쁨은 배가시키고 슬픔은 반감하는 도량이 되기 바란다" 며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 정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도량으로 되어달라"고 말했다.



성흥사는 앞으로 시민선방 건립, 종각 등의 불사를 계속 추진해 군산 서부지역의 전법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2015 서원축제 개최

금산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지월)이 11월 12일 '2015 서원축제를 개최했다.

정 情 · 드림Dream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서원축제는 올 한해동안 복지관에서 배운 실력과 기량을 뽐내는 작품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 축하공연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는 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오카리나, 판소리, 생활체조의 작품발표와 (사) 전통문화예술진흥단원들의 국악공연과 퓨전섹소폰 연주, 가수 조복임씨의 공연등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장기대회와 바둑대회가 열렸으며 놀이체험, 만들기 체험, 뻥튀기 나누기, 농가체험들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13일에는 복지관 일대에서 복지관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나눔 큰 사랑' 바자회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무등산서 지역민 행복·안녕 기원

미륵사, 10일 무등산 산신대재 "무등산 聖山으로서 가꾸자"

광주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등산 산신재를 열었다.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는 11월 10일 경내에서 지선 스님(고불총림 방장),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무등 스님(광주동구불교연합회장), 박주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 동구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무등산 산신대재' 를 봉행했다.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객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은 이날 행사는 광주동구불교협의회의 후원으로 오전 10시 육법공양, 불교의례, 산신청 · 시식에 이어 2부 법요식이 이어졌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무등산을 잘 가꾸는 것이 산신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국의 산신은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창건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것으로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야한다"면서 "무등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잘 가꾸는 것이 산신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혜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무등산 아래 사는 많은 시민들과 불교인들이 산신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산신재를 통해 지역과 민족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함께 기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신재는 지난 2006년 무등산 중턱에 있는 장불재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이어왔으나, 2014년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산 아래에서 개최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무등 스님은 "무등산 증심사에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산신비가 존재할 정도로 산신재는 시민들과 오랜 역사를 갖는 행사이다. 차후 장불재에서 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무등산 미륵사는 11월 10일 경내에서 '2015무등산 산신대재' 를 봉행했다.

영산재 유네스코등재 6주년 기념

광복 70주년,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

제1회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불교문화 축제



초대합니다

1,700년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국불교태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중생 구제는 물론
찬란한 전통불교문화를 계승 보존해 왔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을 위해
제1회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불교문화축제를
세계각국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국의 고유한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에
귀하를 초대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합장

일 시 : 2015년 11월 20일(음 10.9) 금요일 오후 3시

장 소 : 서울시 잠실학생체육관

문 의 : 아시아불교문화축제 조직위원회 1661-1974
(www.hope49.co.kr)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주 관 : 아시아불교문화축제 봉행위원회

후 원 : 문화재청, 서울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영산재보존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BTN, BBS, 사)아리랑보존회

협 찬 : 물마루

사전행사
유네스코, 영정사진서비스
유네스코지정작가 영정사진서비스

1부 행사
천지 울림 오프닝 : 야단법석 오프닝
인생 : 김성환의 인생스토리

2부 행사
희망49, 세계문화유산 영산재
태고종영산재보존회

Bridge
웃자 대한민국 : 추억의 코미디 쇼
엄용수, 배일집, 지영옥외 10여명

3부 행사
해외불교국가 초청공연
중국, 태국, 티벳

휘나레
Arirang of Unesco
김연자, 김영임, 야단법석

“우리들 마음에는 이미 행복한 봄이 왔어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마음공부 프로그램 ‘행복한 사계절’ 진행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에서 진행한 ‘행복한 사계절’ 프로그램 모습. 사진은 감사한 마음을 참가자들이 서로 나누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와 심리 및 정서적 소외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우울과 자살, 빈곤 등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는 노인들을 위한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이 노년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행복한 사계절’을 개최했다.

‘행복한 사계절’은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조계종 인증 수행 프로그램이다. 행복한 사계절 프로그램은 노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명상을 통한 참 자아와의 만남, 자기표현과 집단대화를 통한 치유에 목적을 둔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이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보살도 실천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11월 9일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법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손잡고 원을 그리고 서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행복한 사계절 인사법은 일상적인 것과 달리 이름도 사는 곳도 말하지 않는다.

참가한 어르신들은 상대방 얼굴을 마주보며 어릴 적 부르던 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율동을 따라했다.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친구가 되어 편안하게 손을 마주 잡았다.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그리기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한가지의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은 다양했다. 밝고 따뜻한 태양, 풍요롭게 열린 과일 나무, 시원한 냇물 등 그림을 들고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발표하며 자신에 대해 설명했다.

노년 마음공부, 명상 통한 참회
매주 월요일 진행, 포교에 활용

또한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발원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는 한마음과학원 혜찬 스님의 마음 만들기가 진행됐다. 명품마음 만들기는 부처님의 법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시간이다.

혜찬 스님은 “용광로가 그 어떤 것도 녹여서 새로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며 “모든 것을 녹여 좋은 것을 만들어 마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사계절’에 참석한 오복순(69)씨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처음에 동요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 천진난만한 마음이 어떤 건지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즐거워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존의 불자들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로 새롭게 온 분들도 계신다. 앞으로 더욱 확장해 포교의 방법으로도 홍보하고 이용 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1월 9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마다 오후 1시에 총 4회에 걸쳐 ‘행복한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주차 나를 찾기(사바의 인연, 소중한 만남), 감사하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2주차 행복하기(내 인생의 보물찾기) △3주차 참회와 용서(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 △4주차 의미찾기(건널강이 어디 있으랴, 소중한 것을 찾아서)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하성미 기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2015부산불교합창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조옥자)는 11월 1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생명 · 사랑 · 나눔 · 보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합창제에는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합창제는 조옥자 회장의 환영사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의 치사,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의 격려사 등이 진행됐으며 클럽 부띠스타, 홍법사 불광 · 깐따모레 연합합창단,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충북 불교연합합창단 등의 무대가 이어졌다.

수불 스님은 “아름다운 찬불 음성 공양은 누구에게나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을 느끼게 한다”며 “신심 돈독한 음성포교사들이 더욱 합심해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달다”고 당부했다.

조옥자 회장은 “이 무대를 계기로 불교음악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합창단원뿐만 아니라 불자와 대중들에이 쉽게 찬불가를 듣고 부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부산연, 재가자 위한 동안거 입재

재가자를 위한 ‘동안거 재가 안거’가 시작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1월 26일부터 2016년 2월 22일 까지 재가자를 위한 동안거 재가안거를 실시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1월 20일 오후 2시 홍법사에서 입재식을 진행한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 108배 및 동안거 재가 안거 수행에 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조계종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의 법문으로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11월 11일 창종 4주년 법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4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날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장 보운 스님 원로위원 해담 · 홍원 · 수덕 · 해산 · 법웅 스님 및 태고종 종오 · 월용 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원로의장 보운스님의 개회선언과 선조사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법운 스님은 “큰 꿈을 품고 힘찬 첫 날개짓을 한 4년 전의 날이 인연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 법석을 함께한 대중은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이 마음을 함께 갖고 수행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종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원로의장 보운 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해운대에 부처님 광명 전하길”

천태종 11월 9일 해운대 해영사 건립기공식


천태종은 부산 해운대에 해영사 건립 불사를 진행한다.

부산 해운대에 천태법광을 전할 새로운 법당이 들어선다. 천태종은 11월 9일 부산 해운대에서 해영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영사는 천태종이 삼광사, 광명사, 용평사, 정법사에 이어 부산지역에 5번째로 건립하는 사찰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 의장 문덕 스님, 감사 원장 용암 스님 비롯한 스님들과 이헌승, 배덕광 국회의원, 백선기 해운대구청장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도용 스님은 이날 법어로 “부처님은 법왕이시라 세상에 그 몸을 나투시어 바른 법을 널리 펼치시니 여래의 공덕 시방에 가득하네. 거룩한 뜻을 함께 모아 새 터전 밝은 곳에 장엄도량 발원하니 이곳은 불은이 서린 곳이라 복덕의 씨앗, 선의 뿌리를 정성으로 가꾸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에서 “불심제일의 도시 부산에서 청정수월도량 해영사 건립의 첫 삽을 뜨는 날”이라며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인연으로 백련화의 씨앗을 심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팔공총림포교사회 창립, 포교활동 본격 시동

11월 9일 창립법회… 포교사회 회장에 박종림 씨


팔공총림 포교사회 창립법회에서 100여 포교사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주지 덕문) 포교사회는 11월 9일 ‘팔공총림 포교사회’ 창립법회를 대구 보현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법광 스님 등 동화사 소임 국장 스님들과 손창수 동화사 신도회장,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장, 정순천 대구시의회 부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덕문 스님은 법회 후 포교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림 회장 등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종림 회장은 “팔공총림의 유구한 역사를 잇고 지역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구의 창설이 필요했다”며 “본회 창립에 발 맞춰 본말사에서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총림이지만 스님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식과 수행, 포교를 실천해 종단의 포교활성화를 이끌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용호종합복지관, ‘북 카페’ 개설



부산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1월 4일 복지관 내 2층에 자리한 북카페 ‘이야기 숲’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은 공로패 전달 및 후원금 전달,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용호종합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북카페를 통해 도서 공유 뿐 아니라 이웃간 정을 나누고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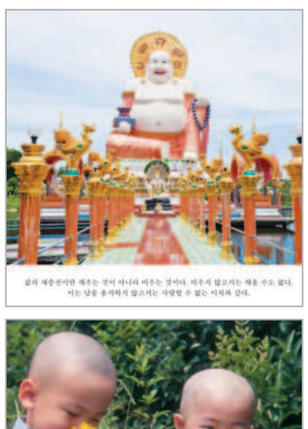
북카페에 있는 책 5000권은 도서기증 캠페인을 통해 120여명의 주민 및 기업의 참여로 조성됐다. 북카페는 오전 10시~오후5까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하성미 기자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63cm
1,600 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19cm
1,600 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9.5cm • 매수:16장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

장성 백양사

禪景

선홍색 빛깔 불을 뿜는 애기 단풍



카메라 셔터만 눌러도 저절로 한폭의 수채화가 되는 쌍계루 앞 연못에는 형형색색의 오색단풍이 물위에 떠있다.

계곡 입구 1.5km 단풍터널 장관
풍광에 놀란 정몽주, 선시 남겨
1300년 문화유산도 또다른 볼거리



오색단풍이 감싸고 있는 대웅전 모습.



진신사리가 봉안된 8층탑. 빨간 단풍이 병풍처럼 쳐있다.

오색창연한 백제시대 고찰의 처마 끝마다 단충이 내려앉았다. 백암산(741m) 백화봉 바위와 파란하늘 담은 물빛에도 수줍은 단풍이 시작되었다. 세 살배기 손바닥만한 애기단풍잎에 감싸인 백양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가을을 떠나보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가을 한 철 보름 정도만 허락된 백양사의 애기단풍은 불을 뿜는 듯한 선홍색 빛깔을 선보인다.

백양사에 가는 새벽공기는 상쾌했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을 나서니 빨간 단풍잎이 맞이한다. 백양사 진입로가 이어지는 삼거리에서부터 일주문, 대웅전까지 모든 길은 단풍나무로 장식된다. 길 양편으로 나무는 단풍터널을 이룬다. 그 아래에는 저절로 단풍 낙엽길이 형성돼있다. 옆의 백암산 계곡에 비친 물빛에도 홍조가 띈다.

백양사의 단풍은 애기단풍으로 불린다. 나뭇잎이 작아서가 아니라 나무가 작아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백양사의 애기단풍은 애기가 아니다. 장성이다. 오랜 수령 때문이다.

1.5km에 달하는 단풍터널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의 첫손에 꼽히는 길이기도 하다. 가을의 심연에 빠져들다 보면 세속의 번뇌는 모두 잊혀진다. 이 길을 따라 따라 일주문을 지나면 백양사 쌍계루와 연못이 길손들을 맞이한다. 뒤편 산에는 운무가 깔려 신비스러움을 더한다. 카메라 안에 가을을 담으려는 사람들, 특별한 추억을 남기려는 연인들, 연못 징검다리를 오가는 것이 마냥 즐거운 아이들, 모두 쌍계루의 단풍을 만끽하고 있다.

어떠한 글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음내키는 대로 저절로 손가락은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고, 눈으로는 단풍을 담았다. 쌍계루 앞 연못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잎이 떠있다. 그 위로 빨갛게 물든 쌍계루가 물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때 백양사를 찾은 정몽주는 '지금 백양승을 만나니/시를 쓰라 청하는데/붓을 잡고 생각하니/재주 없음이 부끄럽구나…' 라고 했다.

백양법계 기둥을 지나 쌍계루 옆 홍교를 건너면 경내다. 홍교를 건너는 사람들이 줄지어 선 모습도 그림이다. 사천왕상 버티고 있는 금강문 안으로 단풍잎 곱게 물든 산을 배경으로 대웅전 등 당우가 자리 잡고 있다. 낙엽이 소복히 쌓인 경내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해 운치를 더한다.

비자나무 숲과 700년 갈참나무 군락도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에 '백암사' 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당시에는 '정토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후 조선 선조 7년(1574) 환양 스님이 다시 지은 후 백양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환양 스님이 백양사에서 매일 〈법화경〉을 읽을 때 흰 양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일이 많아지자 절 이름을 백양사로 고쳤다고 한다. 1300년의 역사 속에 백양사에는 청정한 기운만이 흘렀다.

백양사가 위치한 내장산 국립공원은 내장산(주봉 신선봉 763m), 서쪽 입암산(626m), 동쪽 백암산(상봉 741미터)의 세 개의 산군으로 구성돼있다.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그리고 전남 장성군에 걸쳐 있는 호남에서 손꼽히는 명산이다.

백암산은 백학봉. 옥녀봉. 가인봉 등 백양 3봉을 비롯해 상옥봉과 사자봉으로 이뤄져 있으며 내장산과 함께 대한 8경으로 꼽힌다. 가을 내장, 봄 백양으로 불리지만, 백암산의 단풍 역시 내장산 못지않음을 알 수 있다. 백양사 뒤편의 숲길에는 단풍나무, 갈참나무, 비자나무가 울창하다. 이곳의 비자나무 숲은 천연기념물(제153호)로 지정돼 있다. 백양사로 가는 길 양쪽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절집으로 가는 길에 수령이 700년 된 갈참나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갈참나무다.

백양사 일대에는 이 갈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도토리를 맺어 다람쥐 등 야생동물에 먹이를 공급해주는 나무다. 참나무 중에서 위엄이 높다는 굴참나무에서부터 늦게까지 낙엽을 매달고 있는 갈참나무가 많다.

참나무 중의 졸병이라는 졸참나무와 옛날에 잎을 신발에 깔았다는 신갈나무, 떡을 하면서 얹었다는 떡갈나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도토리라는 상수리나무까지 부지기수다. 이 나무들이 빼곡해 숲의 품격을 높여준다. 학술적으로 보호가치도 매우 높다.

백양사의 단풍이 형형색색이라면, 절집 바깥 마을의 가을은 주홍빛이다. 여기저기 감나무가 많다. 이 나무에 탐스럽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끝자락부터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도 정겹다. 잎사귀를 털어낸 감나무가 홍시를 매달고 있는 풍경도 매혹적이다.

1300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 寶庫

사찰의 주요 건물 중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호인 극락보전이 가장 오래되었다. 환양선사가 세웠다는 극락보전은 면적 50㎡에 이르는 정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웅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43호)은 1917년 만암 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 백양사를 중건하면서 새로 세운 것으로 석가모니불과 보살입상, 16나한상 등이 봉안되고 있다. 이외에도 백양사는 사천왕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44호), 명부전, 칠성각, 진영각, 선실, 요사채, 범종각 등의 당우를 거느리고 있다. 소요대사 부도(보물 1346호)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있는 8층탑도 소중한 유물로 꼽힌다.

쌍계루 옆에는 1974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9월 25일 보물 제1346호로 승격된 소요대사 부도가 있다. 조선 중기의 고승 소요대사 태능(1562~1649)을 기리는 묘탑으로, 대사가 입적한 1649년이나 1650년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 규모는 높이 1.58미터, 지름 1미터, 둘레 2.85미터에 이른다.

소요대사 부도 앞 단풍도 놓치면 아까운 진경으로, 이곳 단풍은 초기에서 절정기로 치닫기 직전에 가장 매혹적이다. 새빨갛게 익은 단풍잎과 아직 덜 물들어 분홍과 노랑, 연두색을 띠는 단풍잎이 뒤섞여 오묘한 색감의 조화를 이루는 까닭이다.

단풍을 뒤로 나오는 길이 아쉬움을 더했다. 백양사 주변의 길을 통해 산을 올랐다. 다소 가파르지만 나무 계단 등으로 잘 정비돼 있어 힘들이지 않고 오를 만하다. 뒤돌아 나오는 길은 가뿐하다. 단풍에 속된 마음을 모두 놓고 와서일까.

장성 백양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는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호남고속도로로 갈아타 백양사나들목을 나온다. 1번국도를 이용해 곰재를 넘어 장성호를 지나 백양사 이정표를 보고 가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광주, 장성, 호남선 백양사역 앞(북이면 사거리) 등지에서 백양사로 가는 버스를 탄다.

〈볼거리〉

백양사인근 장성호 관광지에는 임권택 시네파크가 조성돼 있다. 전망대에 서면 장성호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인근 금곡영화마을은 영화 '태백산맥' 등의 배경이 됐던 산골마을이다. 홍길동의 생가,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의 편백나무 등도 찾아볼 만하다.

〈맛있는 집〉

백양사 입구의 단풍두부집은 단풍나무 수액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두부를 판매한다. 단백질 위주의 두부에 칼륨, 철분 등 단풍나무 수액의 영양이 보태졌다. 모두부를 비롯해 보쌈, 전골, 볶음, 청국장, 된장국 등으로 다양하게 두부를 즐길 수 있다. 단풍수액을 이용한 전통주도 맛볼만 하다. (061)392-1515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 (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불담론 생사 탐구… 불사에도 시주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⑦ 신헌(申櫶)

신헌(申櫶1810~1884)은 실학에 영향을 받았던 추사의 제자다. 무신(武臣)이면서도 박학다식(博學多識)했던 그는 시문에도 능해 유장(儒將)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문인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당시 추사의 문하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학문적 입장을 훈습 받았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는 개화파 인물이었던 박규수(朴珪壽)와 강위(姜瑋) 등과 깊이 교유했기에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도 어느 정도 수용 의지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특히 근대적 군사제도의 수립에도 힘썼던 그는 다산의 민보방위론(民堡防衛論)을 계승, 발전시켜〈민보집설(民堡輯說)〉과 〈융서촬요(戎書撮要)〉등을 저술하였다. 이외에도 금석학, 서법(書法)에 깊이 천착하여 〈금석원류휘집(金石源流彙集)〉과 역사지리서인 〈유산필기(酉山筆記)〉와 농법을 연구한 〈농축회통(農蓄會通)〉을 저술하였다.

따라서 그의 다양한 관심사와 이에 따른 저술의 업적은 그의 학문적 토대인 실사구시를 실천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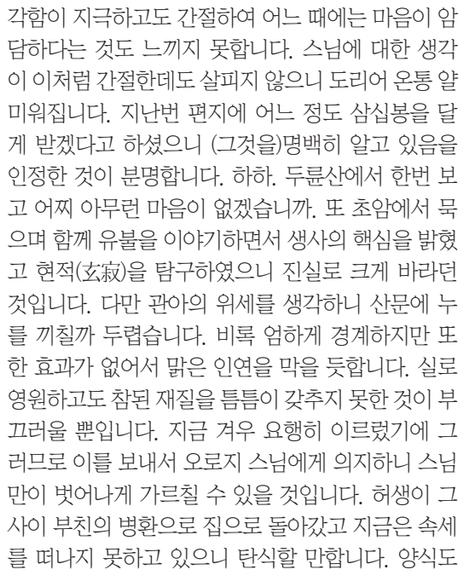
그는 원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나 초명을 관호(觀浩)라 부르다가 헌(櫶)으로 개명하였다. 자는 국빈(國賓)이며 위당(威堂), 금당(琴堂), 동양(東陽), 우석(于石) 등의 호를 사용하였다.

1828년에 무과에 급제, 훈련원주부에 임명된 후에 전라도 병마절도사와 전라도우수군절도사, 도총부부총관 등을 역임했다. 1849년에 헌종이 위독할 때에 사사로이 의원을 데리고 들어가 진찰을 했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전라도 녹도(鹿島)로 유배되었다. 이런 그의 정치적인 위기는 외척세력인 안동 김씨 일파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1854년에 녹도에서 무주로 이배되었다가 1857년경에 해배되었으니 이것은 철종의 배려로 인한 것이다. 그의 환로가 다시 빛을 발한 것은 고종 초기이다. 대원군의 신임을 얻어 형조뿐 아니라 공조, 그리고 병조의 판서를 역임했던 그는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로 임명되어 강화도를 수비하다가 1876년에는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구로다(黑田淸隆)와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1882년에도 전권대관의 자격으로 미국의 슈펠트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등 조선 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그의 외교적 수완은 빛을 더했다. 개항기의 혼란 속에서 그는 보국충신(保國忠臣)의 의지를 잃지 않았다.

한 때 그가 외척 세력의 견제 속에서 영어(囹圄)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를 위로했던 이는 초의선사이다. 전라우수절도사 재임 시절 추사의 소개로 초의를 만났다. 이미 그는 추사로 부터 초의의 수행력이나 시재(詩才)는 익히 들었을 터이다. 물론 차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그의 불교에 관심은 추사의 영향이 컸다 하겠다. 하지만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재임하던 1843년경부터 시작된 초의와의 깊은 교유는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헌이 쓴 '벽파정' 현판. 신헌은 무신이었지만 시 · 서 · 화에 능했다.


신헌이 초의선사에게 쓴 서찰. 추사의 제자답게 불교와 차에도 조예가 깊었다.

실학 영향 받았던 추사의 제자
박학다식 · 시문 능해 '儒將' 칭송
귀양시절 초의선사 만나 위로받아
일지암에 머물며 불교 · 차를 배워



신헌(申櫶1810~1884)의 초상. 그는 실학의 영향을 받았던 추사의 제자로 초의 선사를 만나 불교와 차에 심취했다.

끊긴 서운함이 매우 큽니다. 비가 내린 다음엔 겨울인데도 따뜻해져서 과연 봄기운이 도는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맑고 화목하신지요.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함이 지극하고도 간절하여 어느 때에는 마음이 암담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스님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간절한데도 살피지 않으니 도리어 온통 얄미워집니다. 지난번 편지에 어느 정도 삼십봉을 달게 받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명백히 알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하. 두륜산에서 한번 보고 어찌 아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 초암에서 묵으며 함께 유불을 이야기하면서 생사의 핵심을 밝혔고 현적(玄寂)을 탐구하였으니 진실로 크게 바라던 것입니다. 다만 관아의 위세를 생각하니 산문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비록 엄하게 경계하지만 또한 효과가 없어서 맑은 인연을 막을 듯합니다. 실로 영원하고도 참된 재질을 틈틈이 갖추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 겨우 요행히 이르렀기에 그러므로 이를 보내서 오로지 스님에게 의지하니 스님만이 벗어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생이 그 사이 부친의 병환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속세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탄식할 만합니다. 양식도 함께 여기에서 준비해 보냅니다. 이만 14일. 우석생 돈 감초 3속과 고초장 2승, 진유 2승, 만 향 한 봉지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어떨지요. 종제(從弟)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고 나이가 어리지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阻 比甚 雨餘冬暄 果行小春 卽詢禪履淸穆 懸念切至有時想到不覺 黜 未審師意如是之切也 還切可憎 向書之多少自甘三十棒 可認其白知也明矣 奉呵奉呵 頭輪一見 豈無意也 亦一宿草菴 共談儒佛明核死生 鉤玄探寂 固所大願 第念牙纛之威 恐貽山門之累 雖戒嚴之 亦似無œB自阻淸緣 實多可愧永眞膏材料 間無備焉 今才幸到 故玆以委送 專恃於師 唯師指脫耳 許生間因親病還第 今未得俗去 可嘆也 粮饌Æ¥自此備送耳 不式 十四日 于石生 頓 甘藿三束 古椒醬二升 眞油貳升 萬香一封 可供佛盒否 從弟未經事 年少其善視之也)

우석(于石)은 신헌의 호이다. 실제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은 알 수 있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14일이라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고 편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편지를 쓴 시점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가 "관아의 위세를 생각하니 산문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비록 엄하게 경계하지만 또한 효과가 없어서 맑은 인연을 막을 듯합니다."라고 한 것은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쓴 것임이 분명하다. 이뿐 아니라 그가 "허생이 그 사이 부친의 병환으로 집으로 돌아갔고"한 대목이나 "초암에서 묵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이미 확보한 셈이다. 그럼 허생은 누구인가. 바로 소치이다. 그가 신헌의 막하를 내왕한 것은 1844년경이다. 물론 이 일도 추사의 소개로 성사된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1846년에 소치는 신헌을 따라 상경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전 후 사정을 미루어 볼 때에 신헌의 편지는 대략 1845년경에 쓴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초암에서 묵으며 함께 유불을 이야기하면서 생사의 핵심을 밝혔고 현적(玄寂)을 탐구하였다"고 말한 점인데 이는 그가 초의를 통해 불교에 깊이 천착한 정황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묵었던 초암은 바로 초의의 수행처인 일지암이다. 따라서 그가 전라우수군절도사시절에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신헌이 초의와의 교유에 중요한 촉매제는 불교였다는 것을 확인해 준 자료이다. 더구나 초의에게 의지하여 불교의 깊이 천착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 때문이었던가. 초의는 신헌이 녹도로 유배되었을 때에 험한 파도를 헤치고 적거를 찾아가는 성의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헌이 쓴 '일지암시고후발(一枝菴詩稿後跋)' 에 "내가 녹도로 유배되었을 때에 초의가 위험을 무릅쓰고 거룻배를 타고 와서 만났다. 내가 진서산 선생이 편찬한 〈심경〉을 읽고 있었는데 함께 〈심경〉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찾다가 돌아갔다(余方謫居海中 草衣抗葦涉險而來見 余讀眞西山先生所輯心經 仍與之 玩繹及歸)"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당시 사대부들이 초의의 깊은 수행력이나 생사를 초월한 경계를 인정하고 교유했던 정황은 신헌의 '유연자칠고찬발(悠然子七高贊跋)' 에 "초의는 선에 깊었고 사생에서 대해서도 밝았다 사대부들과 잘 교유하였다(草衣深於禪 明於死生 喜與士大夫)"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신헌은 추사의 해배를 기원하기 위한 불사(佛事)에 크게 시주하여 완성된 것이 대광명전이다. 이곳에서 초의는 추사의 해배를 기원하는 불사를 주도하였으니 신헌의 스승에 대한 우정은 이런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말년에 초의는 대광명전에서 열반했으니 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끈끈하였다.

한편 신헌은 차를 즐기며 지은 몇 편의 다시(茶詩)를 남겼다. 그가 차를 마신 후의 여유로움과 독서의 이로움을 드러낸 〈소재(小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을이 오면 귀밑머리 희어짐을 알겠고
(秋意年來感鬒(毛))
무릎을 용납할 작은 집, 가벼운 거룻배인 듯하네
(小齋容膝似輕舠)
비온 후에 뜰에 비친 달빛 온통 넓고도 환하며
(雨餘庭月空明闊)
숲 끝에 높이 부는 바람, 기세당당하구나
(樹外天風氣勢豪)
붉은 꽃 피운 밀랍초에는 이삭이 맺혔으며
(蠟燭撥花紅結穗)
차 솥에 차를 다리자 녹색 물결이 이누나
(茶?飛雪綠生濤)
번거로운 세상의 인연은 넉넉하고 한가로운 날
얻기 어려워(塵緣難得優閒日)
책 속에서 다시 일생의 근심을 잊었네
(卷裏還忘百歲勞)

이 시는 담박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무엇보다 선비의 거처로, 검소함을 드러낸 소재용슬(小齋容膝)은 겨우 무릎을 용납할 정도의 작은 집을 말한다. 사대부의 검박한 삶은 가벼운 작은 배처럼 단순하여 장식이 많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며 가을은 투명하고 맑은 계절이라 선비의 기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때에 "차 솥에 차를 다리자 녹색 물결이 이누나(茶Œ飛雪綠生濤)"라고 하였으니 담박한 차의 경지는 이미 드러난 셈이다. 물론 이 무렵 그가 마신 차는 산차나 떡차를 마셨을 터이지만 고려나 조선 초기처럼 말차를 즐긴 것은 아니다.

다시(茶詩) 중에 "차 솥에 차를 다리자 녹색 물결이 이누나(茶Œ飛雪綠生濤)"라는 표현은 단순히 차를 다리는 정황을 시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실제 말차를 즐긴 것은 아니다. 조선 말 무관이었던 신헌이 즐기던 차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의 사대부들이 즐겼던 차의 여유와 풍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시대였다.

한편 그의 학문적 토대는 공맹학(孔孟學)이며 〈심경〉을 탁마했다. 이런 사실은 그의 〈벽간소기(壁間小記)〉에 "아침 차를 마시기 전에 20번을 읽고 차를 마신 후에 20번을 다 읽는다. 저녁에 차를 마시기 전에 20번, 차를 마신 후에 20번을 다 읽는다(朝茶前二十遍 茶後二十遍 暮茶前 二十遍 茶後二十遍)"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그가 주자처럼 음다를 일상화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초의차' 가 절정의 진수를 드러냈던 시기에 초의의 초암을 내왕했다는 사실에서 차를 좋아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의 남긴 몇 편의 다시는 이런 정황을 방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기적의 파스요법 저자 –
남산큰스님
건강친견 신행상담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큰스님
10년만에 다시 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친견 | 파스 한 장으로 모든 질병 예방법, 편하게 사는 법
비만관리의 100% 성공비결, 내병은 왜 낫지 않는가?
나무 망치로 건강관리법, 파스요법 전수
신행상담 | 자식 · 부부 · 사업 · 조상 · 부동산 · 창업 · 취직 · 승진
친견일정
서울 ▶ 2015.11.19(목)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6 동광빌딩
(신촌역 8번출구에서 30m 직진한후 좌측길로 100m전방 더착한커피숍 5층)
부산 ▶ 2015.11.20(금)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429
(지하철 1호선 장전역 3번출구 안)
대구 ▶ 2015.11.21(토)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37-4 지하1층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지하1층)
예약전화 080-300-9928 ※사전예약 하신분만 친견이 가능합니다.
약력
아치의과대학교 의학박사
(現)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과 석좌 교수
(現)중국 요녕성 중의약대학교 객원 교수
(現)몽골 징기스칸 대학교 객원 교수
(現)이투콘 의과대학교 교수
(現)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저서
〈남산스님의 고추파스 치료법〉
〈잔주름 확 펴고 군살 쑥 빼고〉
〈오다가다 만난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불교산책〉
〈핵심 반야경〉
〈중국을 모르니까 망하고 돌아오지〉
〈좋은 인연 맺는 법〉
〈남산스님의 수족온욕법〉
〈남산스님의 약손요법〉
〈꿈자리 질병 치료법〉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치료법〉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남산스님의 괄사요법〉
〈남산스님의 테이핑요법〉
〈남산스님의 신비한 오가피요법〉
〈남산스님의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부처눈에는 중생도 부처로 보이고 중생눈에는 부처도 중생으로 보인다〉 등 다수
MBC 화재집중 / 놀라운 세상
SBS 호기심천국 /모닝와이드
포교하기에 어려운 스님들께 특수비법전수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www.jjunheating.co.kr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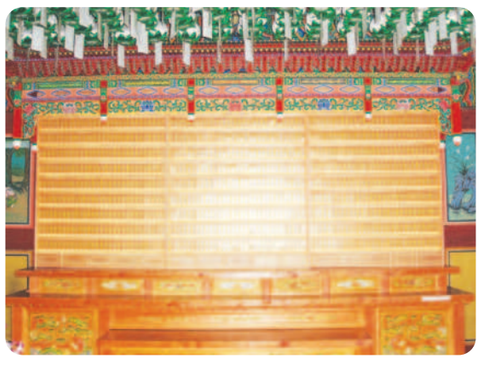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해 왜곡’ 부터 바로잡아야 無知 치유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6〉

무지의 일반적 특성은 ‘사실에 대한 이해의 왜곡’ 이다. 인간은 어느 상황,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이해의 공백상태’ 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지(無知)’ 라는 말은, ‘지식이나 이해의 공백’ 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과 이해’ 를 의미한다. ‘오해’ ‘편견’ ‘선입견’ ‘독단’ ‘독선’ 등이 모두 무지의 양상인 이유이다. 무지는 ‘잘못된 이해’ 이므로 관점이나 견해를 바꾸는 것이 무지 치유의 핵심이다.

무지가 삶을 오염시키는 근원적 요인이며, 무지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 – 이것은 분명 인간 특유의 사태이다. 인간이 고도화시켜 온 사유/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관점 · 견해 · 논리의 수립능력’ 이나 ‘법칙적 · 논리적 포착능력’ , 즉 ‘이해능력’ 이다. 인간에게는 감성 · 감정의 현상도 ‘어떤 이해를 성립시키는데 기여하는 조건’ 이 된다. 예컨대 경이로움, 호감 같은 감정이 사물과 세계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는가 하면, 혐오나 반감 같은 감정은 오해나 편견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이해능력은, 희망과 절망의 면모를 모두 품고 있다. 지식 · 이해능력을 ‘어둠을 밝히는 이성의 빛’ 으로만 찬탄하는 것도 치우친 태도이고, 지식 · 이해능력의 해악성에 환멸을 느껴 지식 · 이해를 ‘해로운 분별’ 이라고만 경멸하는 것도 치우친 태도이다. 지식 · 이해능력의 해악성은 경멸이나 거부와 같은 퇴행적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그 그늘에서 탈출해야 한다.

붓다의 태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언어 · 논리 · 이해의 덫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도 결코 언어 · 논리 · 이해의 능력을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붓다의 시선은 상위 차원의 언어 · 논리 · 이해, 다시 말해 일종의 ‘메타(meta)적 언어 · 논리 · 이해의 능력’ 에 닿아 있다. 본질주의 · 실체주의에 입각한 언어 · 논리 · 이해를 비판할 수 있고, 비본질 · 비실체의 연기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차원 다른 새로운 이해 · 논리 · 언어의 능력을, 붓다는 성취하여 모범을 보여준다. 그는 ‘비(非)본질 · 비(非)실체인 존재와 세계를 읽어내는 이해’ 를 언어와 논리에 담아 펼쳐 놓는다.

붓다가 실존왜곡과 오염의 원점에서 무명의 무지를 지목하는 동시에, 명지(明知; 제대로 아는 것, 실재대로 아는 것, 있는 그대로 아는 것)를 통해 근원무지로부터의 자유(해탈)가 성취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지닌 이중적 면모, 그 양가(兩價)적 의미를, 깊은 수준에서 드러낸 것이다.

인간 특유의 지식 · 이해능력에서 발생한 무지를 지식 · 이해능력의 자기향상을 통해 치유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도 용이하지도 않다. 지식 · 이해능력의 자기초월적 자기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이미 정착한 잘못된 지식 · 이해능력’ 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무지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인가? 논리적 이해, 법칙적 판단, 개념분석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온 인간이, 왜 아직도 ‘오해, 편견, 독단, 선입견, 독선’ 타령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왜 아직도 오해나 편견, 선입견에 쉽게 빠져들며, 또 그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인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이라는 붓다의 말은 그 까닭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기적 사유를 거부하는 인간
오해와 편견, 독단에 사로잡혀
현상은 고정불변 상태가 아니다

‘불변자아라는 환각이 발생 · 유지 · 발전하는 조건인과와 소멸하는 조건인과를 알지 못하기에’ , 다시 말해 연기적 사유를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이나 견해도 ‘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것’ 이라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오해 · 편견 · 독단 · 잘못된 선입견 · 부당한 독선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견해를 ‘조건적’ 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견해와 같은 정신현상, 낮과 밤 같은 물질현상 등,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조건 인과적’ 으로 발생 · 소멸한다. 그리고 그 원인 되는 조건들은, 선택 가능한 것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모두 가변적이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가변적 조건에 따른 잠정적 양태’ 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이나 물질 그 어떤 현상도 ‘무조건 · 고정불변 · 확정 · 절대’ 의 사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견해나 관점도 마찬가지다. 어떤 판단이나 평가는 반드시 특정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수립된다. 그 조건들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그 조건들과 견해 · 관점의 인과적 연결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따라, 견해나 관점의 타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타인의 견해를 ‘조건인과적’ 으로 이해하며, 견해의 성립조건이 부적절하거나 틀렸으면 적절하고 합당한 조건인과로 대체하여 견해를 수정한다.



부처님 제석굴 설법을 묘사한 부조. 부처님은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 연기적 사고를 강조했다.

반면, 무지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견해를 ‘무조건적’ 으로 이해하여, 이미 수립된 견해를 무흠결의 절대정답으로 확정하거나 절대오답으로 판정해 버리는 태도를 취한다. 그리하여 부적절한 조건인과에 의해 수립한 · 선입견일지라도, 자기 내지 자기집단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무조건 · 불변의 절대정답 · 절대오답’ 으로 확정하려는 태도를 선호하게 된다. 무지의 표현양상인 오해 · 편견 · 독단 · 선입견은 ‘조건적 이해능력’ 의 결핍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이미 수립된 오해 · 편견 · 독단 · 선입견들은 그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여 그대로 유지시켜 간다. 다음과 같은 붓다의 연기적 언어시설은 이상의 논의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던 왓지야마히따 장자에게 외도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사문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난행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시고 칭송해야 할 것은 칭송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을 비난하시고 칭송해야 할 것을 칭송하시면서 분석적으로 설하시는 분이지, 획일적으로 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왓지야마히따 장자는 외도들의 주장을 굴복시킨 후 붓다를 찾아가 외도들과 나눈 대화를 아뢰었다. 붓다는 장자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나는 모든 고행을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고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소임을 실천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소임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놓아버림을 놓아버려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놓아버림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결정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고행을 하여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쇠퇴하면, 그런 고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고행을 하여 해로운 법들이 쇠퇴하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하면, 그런 고행은 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노자’ 의 〈도덕경〉에 있는 말씀이다. “아는 자는 말이 없고(知者無言)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言者不知).”

‘노자’ 의 〈도덕경〉이나 ‘장주’ 의 〈장자〉에는 심오한 정신세계가 있다. 막힘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다.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다음에 옮기는 구절은 〈채근담〉에 있는 말씀이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 여니 한 글자도 없다. 항상 큰 광명이 가득할 뿐.’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는 구절을 불교 쪽으로 옮겨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달마대사가 그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네 명의 제자를 불러 그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보라고 일렀다. 제일 먼저 ‘도부’ 라는 제자가 나서서 말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언어문제에 집착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지도 말아, 오루지 문자는 도를 깨닫는 도구로만 이용해야 될 줄 압니다.”

‘도부’ 의 말을 듣고 달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두 번째는 ‘총지’ 라는 비구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 가 석가 이전의 부처님인 ‘아촉불’ 의 불국토를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총지’ 의 말을 듣고 달마가 말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세 번째는 ‘도육’ 이라는 제자가 나서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과 불, 그리고 공기와 흙의 사원소가 본래 텅 비어 있고 눈, 귀, 코, 입, 몸이 또한 항상하지 않아 나라고 하는 것도 실재(實在)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형태를 끊임없이 옮겨갈 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달마는 ‘도육’ 의 말을 듣고 조금은 만족한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네 명의 끝자리에 서 있는 ‘혜가’ 는 차례가 되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달마대사를 향해 합장으로 인사만 한차례 할 뿐 서 있는 자세로 말이 없었다. 달마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야말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달마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선불교의 초조(初祖)가 되고 말이 없이 서 있던 ‘혜가’ 는 달마로부터 인가 받아 선불교의 2조(二祖)가 되는 것이다.

지혜는 책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마음 열림서 광명을 만날 수 있다

다음은 〈채근담〉에 있는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 여니 한 글자도 없다. 항상 큰 광명이 가득할 뿐’ 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먼저 육조 혜능 스님의 말씀부터 들어보자.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괴었으며, 밝기로는 해와 달 같고 어둡기는 칠통의 그믐밤과 같아서 항상 나의 움직임과 머묾 속에 작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크기로는 하늘과 같고 작기로는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는 것, 밝기로는 태양과 같고 어둡기로는 칠통 속과 같이 어두운 것, 천하를 다 삼켜도 도리어 남음이 있고 티끌 속에 들어가도 다 차지 않는 것, 이것은 종이와 활자로 된 책 속에는 찾아낼 수 없는 것, 그러나 종이와 글자는 없으나 펼쳐들면 큰 광명이 천하를 비추는 것, 이것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전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참지식의 큰 지혜는 책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열림에서 광명의 빛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선가(禪家)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라는 말을 즐겨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뿐 진리의 열린 세계를 언어문자로는 표현할 수도 전해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이나 설법하셨던, 그 숱한 진리의 내용에 대해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 마디의 진리를 설한 바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책이 아닌 책, 펼쳐 여니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이 가득한 책을 나와 당신이 펼쳐들 차례이다. 하여, 혜능 스님의 물음에 ‘예’ , 하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게.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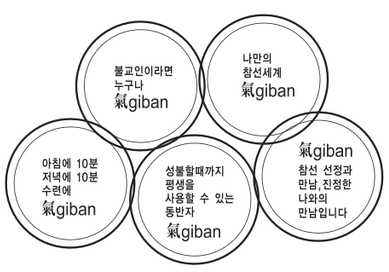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일본 불교, 지나친 상업화로 '쇠퇴의 길'

장례식장 · 술집 · 카페 등 운영에 비난여론 '봇물'

일본에서 불자가 해마다 급감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불교계는 해결책으로 '상업화'를 내세워 더한 우려를 낳고 있다.

'The Irishtimes'는 11월 12일 "승려 요시노부 후지오카(Yoshinobu Fujioka)는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쾌락으로부터 벗어난 금욕만 강조하는 설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때문인지 최근 후지오카 스님은 밤에 술집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The Irishtimes'에 따르면 후지오카 스님은 도쿄 한 복판에 위치한 불교 종단이 운영하는 술집 '보우즈(Vowz)'에서 고객들을 응하고 있다. 후지오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는 방법에는 다른 경로가 있다. 영적 각성은 '대화'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를 두고 일각에선 '지나친 상업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은 최근 불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금욕주의 기피'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과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불교 교리지만, 불교 교세가 쇠퇴하며 재정적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사찰들이 장례식장, 술집, 카페 등 운영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사찰의 장례식업이 독보적이다. 맨체스터 대학의 종교 전문가 이안 리더(Ian Reader)는 "수세기 동안 일본 불교계는 영적 치료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식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면서 "일본에서 불교식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선 1회 최대 3백만 엔(한화 약 3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는 전 세계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고발했다.

친숙함 주장하며 상업성 '기세'
독점해 온 장례업도 명목 잃어
"인간존엄성 해치는 행태"
스님 고령화 등 문제 극심

'The Irishtimes'에 따르면 높은 장례비용에 비해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의 경우 의례적이지만 불필요한 절차들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가장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화장할 경우 유족들이 떠난 사람의 잔해를 쟁반에서 세라믹 항아리에 젓가락으로 옮겨 담는 과정들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도쿄의 코우코쿠지(Koukokuji) 사찰은 '자동화 시스템의 실내묘지'를 상업 전략으로 내세웠다. 스마트 카드로 보안되는 유골함에 유골을 보관하고, 유족들은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코우코쿠지 사찰이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는 가격과 옵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업화에 빠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태"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불교계가 지나친 상업화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코우코쿠지(Koukokuji) 사찰은 '자동화 시스템의 실내묘지'를 상업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종교와 일본 사회의 위기〉라는 책을 펴낸 마크 멀린스(Mark Mullins)는 "불교의 장례의식에 대한 선호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가족들이 대신 비종교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숲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거나 가족묘에 매장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불교계가 불자 확보 및 재정 충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나친 상업화가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The Irishtimes'는 "스님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상좌 스님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교계 장례사업도 고비용과 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로 점점 더 쇠퇴할 전망이다. 여론의 무관심 속 일본 불교는 점차 그 빛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캐나다 침례교회, 사원으로 '재탄생'

스리랑카 · 버마 · 태국 불교계 공동추진

스리랑카서 이운한 백불 봉안

캐나다 노바스코샤 핼리팩스(Hailfax)에 처음으로 상좌부 불교사원이 문을 열었다.

'CBCNEWS'는 11월 8일 "지난 9월 헤링코브(Herring Cove) 지역의 침례교회를 매입한 핼리팩스 상좌부 불교계가 1개월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4일 불교사원을 개원했다"고 보도했다. '대서양 상좌부불교문화(Atlantic Theravada Buddhist Cultural, 이하 ATBC)'와 '명상협회(Meditation Society)'가 봉행한 개원식에는 핼리팩스 지역의 스리랑카 · 버마 · 태국계 캐나다인 1백 2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개원식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 사원 리모델링을 손 걷어붙이고 도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설명한 램야 세마라세케라(Ramya Samarasekera) ATBC 총무는 "핼리팩스 첫 상좌부 사원은 평화, 사랑, 친절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보였다.

1개월 남짓 진행된 리모델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대부분 일과 후인 저녁 시간을 선뜻 내어주고 바닥과 지붕을 개조하고 불단을 만드는 데 매달렸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침례교회의 첨탑 구조를 살리고 금속 자재를 덧대 장엄하는 과정에 적잖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핼리팩스 상좌부 불교사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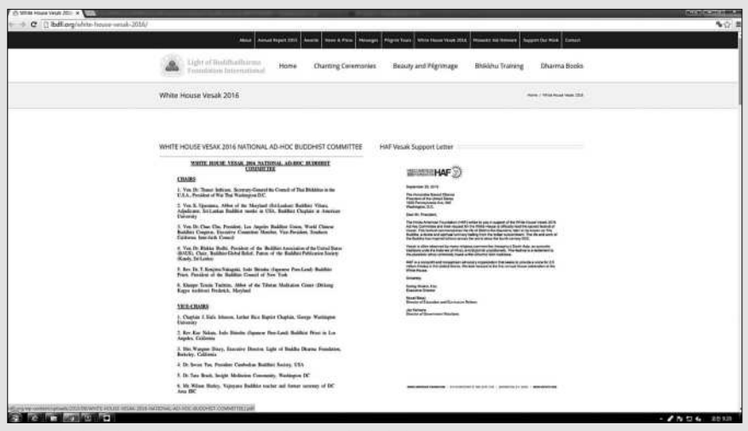
"주불로는 스리랑카에서 이운한 백불(White Buddha)을 봉안했고, 토론토 상좌부 불교를 이끌었던 반떼 시리난다(Bhanthe Sirinanda)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모셨다"고 전한 세마라세케라 ATBC 총무는 "법회와 불교축제는 물론 명상교실과 무료급식 등도 상시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BCNEWS'는 세마라세케라 ATBC 총무의 말은 인용, "핼리팩스의 스리랑카 · 버마 · 태국계 불교공동체는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인근 티베트계나 중국계 사원을 찾아가야 했고, 일부는 상좌부 불교사원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핼리팩스 상좌부 불교사원은 앞으로 지역의 상좌부 불교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백악관서 '베삭 법회' 봉행위해 청원운동

아시아 불교연합체 전미특별불교위원회, 불교계 최대축제 추진


2016년 백악관 베삭법회 개최 청원운동 공식 웹사이트.

아시아 출신 재미불교인들이 미국 백악관에서 '베삭(Vesak) 법회'를 봉행하고자 청원운동에 나섰다.

'베삭(Vesak)'은 남방 음력체계로 5월 15일에 해당하는 부처님 탄생일과 성도일, 열반일을 모두 포함하는 날이다.

2016백악관베삭법회추진전미특별불교위원회(이하 전미특별불교회, 한국불교대표 집행위원 성원)는 11월 6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티베트, 중국, 일본, 스리랑카, 태국 등 각국 출신 재미불교인들이 백악관 베삭법회 개최를 위한 청원운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베삭일은 5월 20일이다.

전 종교 중 불교 행사만 없어
2016년 5월 20일 봉행 목표
뉴욕 원각사 등 한인사찰도 동참

전미특별불교회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에서는 기독교 조찬 기도회, 유태교 유월절 밤 축제 기도회, 힌두교 디와리 빛 축제 기도회, 이슬람교 라마단 금식회향 기도회 등 정기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날로 일컬어지는 베삭 법회만 개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미특별불교회는 "워싱턴 DC지역 불자들이 오래 전부터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베삭 법회 청원운동을 전개해왔다"면서 "향후 뉴욕 원각사, 로스앤젤레스 고려사, 필라델피아 관음사 등 미국 여러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백악관 베삭법회 개최 청원운동 관련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http://lbdfi.org/white-house-vesak-20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원서 양식을 비롯한 기타 사항은 집행위원 성원 스님 이메일(chanjumun@hotmail.com)로 문의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中 가르체 티베트족자치주, 대중법회 성료

중국 쓰촨성 가르체(Garze) 티베트족자치주 설타르카운티(Serthar County)에 있는 라렁갈(Larung Gar) 계곡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대중법회가 봉행됐다. 'NBCNEWS'지는 11일 캐나다 사진작가 케빈 프레이어(Kevin Frayer)의 사진과 전언을 인용, "4천m의 고도에서 7일 동안 진행되는 대중법회 내내 7만여 명 티베트 불자들은 스님들의 법어 한마디 한마디에 신심을 키우며 오체투지를 하고, 저녁에는 3㎡ 남짓한 공간에 머물며 내일의 법회를 기다렸다"며 라렁갈 대중법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NBCNEWS'는 "287개 티베트계 사원이 참여한 올해 대중법회에는 특히 한족 불교도 5백여 명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중법회를 주관한 라렁우밍(Larung Wuming) 불교학교 측은 "티베트의 종교와 사회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이번 대중법회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티베트 대중에게 고유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밝은사람들 총서 |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
326쪽 | 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388쪽 | 2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일시: 11월 21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혜(깨달음)와 자비는 불교의 두 수레바퀴이다.
이 책은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 인도대승 및 티벳불교, 중국대승 및 선불교, 서양철학 및 신학,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자비의 의미와 실천, 그리고 지혜와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 집필/신국판양장/376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그림과 함께 읽는 한영대역판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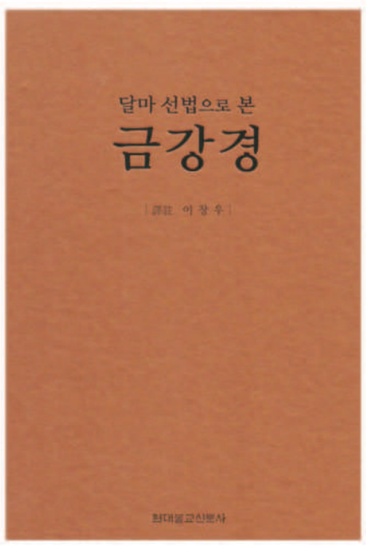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생명과의 상생을 노래해

이호신 작가, 12월 1일까지 백송갤러리서 개인전



이호신 작가 作 '상생의 노래'

생명을 뜻하는 한자 '生' 은 본디 풀과 나무가 땅 위로 나오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다. '생' 속에는 낳고 기르고 키우고 가꾸고 늘리는 온갖 생명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호신 작가가 그린 상생의 노래 속에는 가지 하나 하나, 나무 하나 하나가 '생' 으로 다가온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리산의 자연과 그 속의 수많은 생명들의 움직임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든다. 무한경쟁의 챗바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조화와 공존의 삶을 전하는 자리가 열린다.

수년간 지리산 권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화폭에 담아온 이호신 작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백송갤러리 기획전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이호신 작가는 2010년 산청 남사예담촌으로 거처를 옮긴 뒤 지리산 자락을 누볐다. 지리산의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을 살피며 그 속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려왔다. 그의 그림에서는 현대, 조형이라는 자극적인 색채보다는 제철을 맞은 취나물과 같은 풋풋하고 싱그러운 색감이 선보인다. 이는 기능적이고 기교적인 운영의 결과가 아닌 자연에 대한 우러러 나오는 그의 심경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무심한 듯 빠르게 그어나가는 이호신 작가의 필치는 분방하고 거침이 없다.

이와 함께 이호신 작가는 이 전시의 작품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과정을 제시한다. 모든 생명은 꽃피우기를 원하지만 그 꽃이 지고서야 결실을 얻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계절 중 늦가을과 초겨울의 소재를 택했으며 감과 고구마, 밤과 수수 등을 통해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작품에 대해 이주헌 미술평론가는 "그의 그림에서 해후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 이해에 눈이 어두와 자연과 어머니의 품을 대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초충도나 화조도, 십장생도 등을 반복했다면 이러한 충일감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진실된 관찰 속에 남긴 작품이기에 작품 속 풀잎 하나, 곤충 한 마리가 볼수록 새롭게 느껴진다"고 평했다. (02)730-582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인3색 서양화풍 작품에 투영된 불교적 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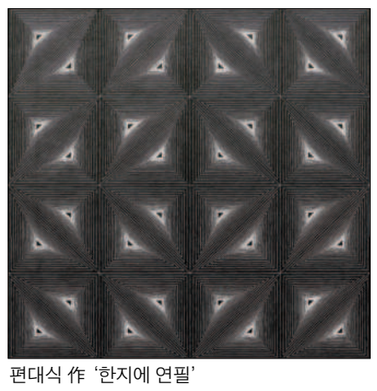
강동권 정물화 속 생명 표현
성수희 '미' 에 대한 새 개념 제시
편대식 한계를 넘는 노력 담아



강동권 作 '장미가족'



성수희 作 '이미 아름다운 그녀에게'



편대식 作 '한지에 연필'

신진 화가들의 작품속에 담긴 불교적 심상이 눈길을 끈다.

강동권 작가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행복/느낌' 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꽃을 소재로 한 정물화 30여 점을 출품한다.

강 작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캔버스 속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꽃' 으로 표현한다. 꽃이 만개한 순간을 포착해, 꽃의 생명과 생의 기쁨, 그리고 생노사의 고뇌를 나타낸다.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고 믿는 강 작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 작품 '행복한 정물' '장미가족' '연' 등에서 보여지는 만개한 꽃은 누군가에게 희망에 꽃이 되기도 하고, 피지 못하고 저버려 아쉬움 그리움의 꽃이 되기도 한다.

강 작가는 "작품 속 꽃을 보는 이들이 순관과 영원, 피고 짐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전을 준비했다. 스스로 위안받고 삶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강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개인전 5회, 단체전 약 40회에 참여했으며 2012년 광주우수예술상을 수상했다.

성수희 작가는 '비의 선물' 을 주제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 와룡동 갤러리 일호에서 전시회를 연다. 성수희 작가는 모래를 활용한 질감이 도드라지는 작품을 구현해왔다. 2002년 첫 개인전 '달의 선물(The gift of moon)' '선물 시리즈' 와 마티에르(matiere) 위에 드로잉과 페인팅을 해 작품을 선보인 성수희 화가의 그림은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나약한 존재들에 대해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이 중 작품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그녀에게' 는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려는 현시대의 사람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준다.

또 작품 'Its raining chocolate' 는 우수에 찬 얼굴 위로 달콤한 쵸콜릿을 선물하듯 그려 넣었다. 여리고 순수해 보이는 소녀의 눈망울은 보듬고 위로해주고 싶은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작가의 눈빛과 닮아 있다.

성수희 작가의 소녀적 감성은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일상을 캔버스위에서 예술로 탄생되며, 위로 받고 싶은 자신을 이야기 한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신진작가 편대식 작가는 11월 24일 스페이스선+에서 'Engrave' 전을 연다. 편대식 작가의 작품은 검은 화면 위에 흰선의 배열을 통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직선의 배치가 곡선으로 변하며 보이는 불균형은 현재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편 작가는 "작업의 행태는 내 삶과 닮아 있다" 며 "작품을 완성하고 불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모이고 공간속에서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며 또 다른 삶을 생각한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파키스탄관광청, 2016년 간다라 주간 연다

간다라는 대승불교와 불교미술의 발상지이자 불교성지 중 하나인 곳이다. 한국의 불교문화가 직간접적으로 간다라에서 영향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간다라지역에 대한 연구나 순례 등은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 관광청과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11월 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3월 한국의 불자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2016 파키스탄 간다라 주간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간다라는 동서양의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 민족, 언어가 서로 융합된 세계화와 퓨전문화의 원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9 · 11사태 이후 테러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거의 끊켜 관광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

파키스탄 관광청은 먼저 간다라를 성지순례지로 홍보하기 위해 대승불교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의 심우장 산시 재조명

경기 광주 만해기념관은 12월 31일까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심우장 산시 특별전' 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해 스님의 〈님의침묵〉과 함께 말년에 심우장에서 쓴 '심우장 산시' 들에 대한 시화작품이 전시된다.

광주 만해기념관 측은 "만해 스님이 남긴 시는 독립운동을 비롯한 민족문화의 상징이 됐다" 며 "스님이 시를 통해 전한 시대정신을 조명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또 기념관 측은 "심우장에서 내면의 성찰을 시어로 표현한 만해 스님의 문학세계를 탐구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1981년 10월 만해 스님(1879~ 1944)의 나라사랑과 문학사상 등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념관은 만해스님의 일생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상설종합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이다. (031)744-3100 **노덕현 기자**

"문화재 조각가 창작물 한자리에"

한국문화재기능인協,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전' … 23일까지

문화재조각 기능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분과(회장 류수관)는 11월 16일~23일 부산 을숙도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불교미술조각, 전통문화재조각, 서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 문화재 조각전을 개최한다.

'제14회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전' 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문화재조각기능인들의 문화재보수 복원 작업의 경험을 창작 작품으로 승화한 작품 50여점이 선을 보인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능 인재 양성 및 한국문화 홍보를 전시 목적으로 두고 있다.

류수관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조각인들은 분발과 도약의 계기가 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전통 불교문화를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 고 전했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분과는 1986년에 창립됐다. 정기 전시회와 성지순례 및 문화재 답사,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아름다움' 이란 제목의 세미나도 개최하며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 왔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박찬수, 이재순 및 무형문화재 이진형, 박찬봉 하명석, 한봉석, 임성안 외 회원 92명이 활동하고 있다. (051)972-8510 **하성미 기자**



박원용 작가의 '염원'



정규복 작가의 '고행상'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BTN 드라마 '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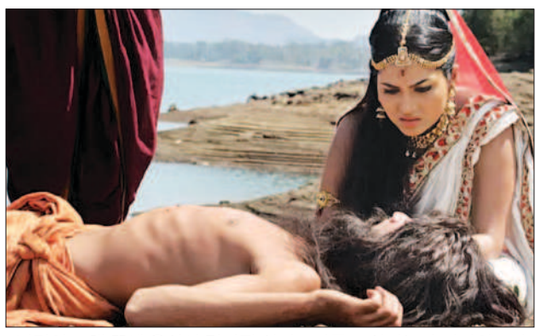
"육신의 욕망 지혜 앞에서 사라져 버리니…"

지난 줄거리

싯다르타는 드디어 고행길에 오른다. 수행자가 된 싯다르타는 알라라칼라마를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 호흡에 관한 수행부터 명상 등을 배운 그는 곧 다시 번뇌에 빠진다. 명상에 빠져있을 때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눈을 뜨면 다시금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이었다. 싯다르타는 더 큰 깨달음을 위해 길을 떠난다. 이 길 위에서 싯다르타는 빔비사라 왕을 만나 동물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고향의 길에 수많은 장애가 닥쳐오지만 싯다르타는 이를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


수행 중 마왕이 보낸 '갈애', '색욕', '욕망'을 이겨내는 싯다르타의 모습. 싯다르타는 이 모든 것이 무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싯다르타는 최후의 정진에 들어가고 곧 마왕이 나타난다.


6년간의 고행 끝에 육신이 망가진 싯다르타를 보살피는 수자타의 모습


고행 중인 싯다르타를 찾아와 제자가 되기를 청하는 다섯 비구의 모습. 단식을 끝내고 수자타의 죽을 먹는 싯다르타를 보고 싯다르타를 떠난다.

데바닷다는 싯다르타를 죽이기 위해 싯다르타를 찾아 다닌다. 길 위에서 싯다르타는 죽어가는 달팽이를 보고 이를 살리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다. 공교롭게도 이 행위로 인해 싯다르타는 데바닷다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싯다르타는 마가다국의 또 다른 수행자인 웃다까 다마붓다를 만난다. 웃다까 다마붓다는 토굴 속에서 명상에 빠져 있었다.

"못과 나사가 그러하듯, 진리는 나사를 돌아가게 하지만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다네. 고요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자연의 중심점이 움직이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네….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게나. 호흡 속으로 빠져 들게나."

우주는 자네 몸의 입자 속에 모두 다있다는 말에 싯다르타는 반문한다.

"저는 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상만을 보았습니다."

싯다르타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윤회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어 좌선에 든 싯다르타에게 코살라국의 자객이 다가간다. 하지만 웃다까 다마붓다의 신통력으로 이 자객의 암살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싯다르타는 이 자객마저 용서한다.

"왕자님은 두 번이나 공격한 저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저처럼 악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였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진리를 죽일 수는 없다네."

싯다르타는 "이 삶의 놀이 뒤에 불멸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자 웃다까 다마붓다는 "정진하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만 나 또한 그 경지에 들지 못했다"고 말한다.

웃다까 다마붓다는 그 경지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싯다르타는 다시금 정진에 들어간다. 싯다르타는 차례차례 스승을 넘어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자 결심한 것이었다.

싯다르타는 고행 중 욕망을 제압하는 수행자를 만난다. 여기서 싯다르타는 영혼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을 받는다.

삿다르타는 나이란자나강과 우루벨라 연못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수행처를 정한다. 싯다르타는 명상 중 그동안 보아온 수행자를 떠올린다. 음식을 먹지 않는 수행자, 옷을 입지 않는 수행자, 주문을 외는 수행자 등이었다. 싯다르타는 이러한 수행법이 진리를 접하는 방법이 아님을 명확히 알게 됐다. 싯다르타는 극단적인 고행에 들어간다. 바로 단식이었다.

6년 간의 고행 끝에 싯다르타의 육체는 너무나 쇠약해졌다. 수자타는 강가에서 쓰러진 싯다르타에게 신에게 올릴 공양물을 먹인다.

이 공양물을 먹고 힘을 되찾은 싯다르타는 나이란자나강에 몸을 씻고 수자타가 올린 죽을 먹는다. 이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진에 들어가기 전 싯다르타는 도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구제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을 알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마지막 수행에 들어선 싯다르타의 머리 속에는 온갖 망념이 떠오른다. 그의 생애와 주변의 인연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다시금 정진에 든 싯다르타 앞에 독사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뱀 앞에서도 싯다르타는 동요하지 않는다. 머리 위에 뱀이 똬리를 틀어도 싯다르타는 꿈쩍히지 않고, 이 뱀은 유유히 지나간다. 이어 핏빛 구름과 함께 마왕이 나타난다.

"나는 너의 육체이다.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나는 욕망이다. 너는 나와 싸워야만 한다."

"나는 영적세계로 들어간다. 너는 나를 묶을 수 없다. 욕망과 싸우면 더욱 욕망은 강해진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

싯다르타의 앞에 마왕은 '갈애' '색욕' '욕망'을 보내고 이는 싯다르타를 유혹한다.

"이들은 모두 무명에서 나온 것이며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 무명이 없어지듯, 자기를 알게되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싯다르타의 말에 마왕의 유혹은 사라진다. 마왕은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사라진다.

한편, 샤카국에서는 왕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망갈라와 데바닷다의 힘이 강해지고 아소다라를 향한 그의 욕망은 더욱 거세어져만 간다. 하지만 아쇼다라는 싯다르타에 대한 마음을 굳게 지키며 라훌을 키워 나간다. 정리=노덕현 기자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깨달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순간일 것이다.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악마(마라)가 나타난다는데 그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세 딸들이 나타나 끝까지 괴롭힌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무상(無常)하고, 괴롭고(苦),무아(無我)여서 나라고 할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탐내고, 성내는 번뇌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어떤 동물이나 종족번식의 본능은 버리지 못하는데 여인들은 바로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수행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과연 어떤 경지들을 얻었는지 등이 알고 싶을 것이다.

먼저 선정삼매를 닦았다고 한다.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서 선정수행을 해서 얻은 경지는 무소유처를 얻는 수행인 무소유처정(定)을 닦아서 그 결과 무소유처천(天)을 얻는다. 정(定)은 수행의 방법이며 삼매의 이름이다. 무소유(無所有)는 '소유가 없다,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有)가 없다'는 뜻이다. 즉, 존재가 없어진 것과 같은 의식수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문장의 띄어 읽기를 살펴본다면 무, 소유가 아니라 무소, 유인 것이다. 웃다까 라마뿟따를 만나서 얻은 경지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정을 닦아서 비상비비상처천을 얻었다. 비상비비상이라는 말은 상도 아니고 상아님도 아니라는 어려운 말로 풀이하지만 '연상(聯想)작용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선입견에 의해 가지게 되는 연상 작용은 제대로 아는데 방해가 된다. 보기를 들자면 뱀에 놀란 사람은 길고 구불거리는 것을 보면 뱀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새끼줄인데도 놀란다. 물론, 거꾸로 뱀을 새끼줄로 보고 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연상 작용이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니 상당한 경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높은 경지를 얻었음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싯다르타는 고행을 극심하게 한다. 드라마붓다에서 열연하듯이 물 몇 모금으로 버티고 음식은 아예 밥 한 덩어리도 입에 넣지 않고 나중에는 물마저도 끊는 것으로 나온다. 개인적으로 물만 마시고 열흘을 견디는 단식정진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몸무게가 무려 12킬로나 빠졌다. 그리고 마치고 났을 때 요구르트 한 병을 마셨는데 거의 한 나절 이상 배가 부르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고, 의식이 명료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가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오다 지쳐서 쓰러진다.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우루벨라의 아가씨 수자타가 유미죽을 먹인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아래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수행을 스스로 닦아 익힌다. 나중에 그것은 위빳사나라고 알려진다. 위빳사나는 관법수행(觀法修行)이다. 관법수행은 단어 그 자체의 뜻과 같이 마음(意)의 지각대상인 법(法,dhamma)를 관하는 것이다. 위빳사나 수행의 결과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물론, 지혜는 다시 중생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나름 고민한 흔적이 진하게 배어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인 마라와 마라의 세 딸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행력을 출연자들의 연기와 컴퓨터그래픽 등을 활용해서 극화하고 있다.

싯다르타는 무엇을 깨달아 부처님이 되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과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가 있고 이룰 수 있으며 이루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서 깨달았다.



이른 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四聖諦)이다. 고(苦)성제, 집(集)성제, 멸(滅)성제, 도(道)성제라고 한다. 문제(괴로움),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 자체를 소멸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 금강체인팔찌 B형 115,000원


10㎜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 금강저팔찌 115,000원


1 3mm 2 4mm 3 5mm 4 6mm 5 7mm 6 8mm 7 10mm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10㎜ 만자 팔찌 130,000원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5~2015.11.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2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5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기적의명상치료	비디아말라버치	불광출판사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 스님	정토
9	무비스님의전심법요강설	무비	(주)조계종출판사
10	황제내경과생명과학	남회근	부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암자는 심신을 맑게 하는 '영혼의 세탁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암자로 가는길 3
글 정찬주
사진 백종하
열림원 펴냄
1만 5천원



경주 남산 보리사 전경. 왼쪽의 석가여래 돌부처님은 '눈 속의 눈'으로 만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전국 34군데 암자 순례한 단상 묶어
사진 100여 컷, 현장미 돋보이게 해줘
1997년 첫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자리도 늘어나고 일상사가 분주해 지는 계절이다. 이럴 때일 수록 삶의 번잡을 떨치고 마음 편한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시기다. 일상의 탈출은 삶에 찌든 노고를 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충전의 달콤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산속 외진 곳에 숨은 듯 자리한 암자를 찾아보며 1년을 마무리 하는 것은 어떨까. 호젓한 암자는 대부분 신도가 없어 가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금은 외롭고 쓸쓸해 산중의 때묻지 않은 고독이 가랑잎처럼 뒹구는 곳이다.

작가 정찬주씨는 전국 유명암자의 순례기를 시리즈로 엮었다. 근 20년간 전국 암자를 찾아다닌 덕분에 '암자 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줘도 시비거는 이가 없을 정도다.

저자가 이번 제 3권에서 추천하는 암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등 20여 개 남짓 된다. 바다를 가슴에 담아가라고 말하는 돌산 향일암과 같은 유명 암자를 포함해 바다안개 쉬어가는 섬 산길 거금도 송광암, 매화향기가 일품인 가야산 희랑대, 회초리 같은 계곡의 찬물을 자랑하는 희양산 동암, 마음으로 쌓아올린 남매탑이 있는 계룡산 상원암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1997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이래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온 〈암자로 가는 길〉은 2004년 첫 번째 책이 개정판으로 출간됐고, 2010년에 두 번째 책이 출간된 바 있다. 이제 첫 출간 후 거의 20년이 흘러 세 번째 책이 출간됨으로써 대한민국 암자 기행문의 대표작 〈암자로 가는 길〉이 전 3권으로 완간된 셈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 반딧불이처럼 지혜의 등불을 이어오는 암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위치 정보 및 풍부한 서지자료, 수행자들의 일상과 고승들의 일화들, 작품사진들을 담아 작가 정찬주 특유의 성찰적인 글로 녹여낸 이 책은 작가의 몇 십 년에 걸친 순례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처들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다.

〈암자로 가는 길〉시리즈는 1권서 52개의 암자를, 2권은 32개를, 3권은 34군데의 암자를 소개함으로써 총 118개 전국 암자들에 대한 방대한 순례기이자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사를 총괄하는 역사자료, 귀중한 사진자료로서 한국 출판계에 또 하나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책은 절판된 〈산중암자〉 개정증보판으로, 작가의 신심을 키워주던 호남과 영남의 암자들에 대한 글을 추가했으며, 사진은 최근의 풍광으로 모두 바꾸었다. 1권의 사진작가 김홍희, 2권의 사진작가인 유동영에 이어 3권의 사진은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에 관련된 사진 작업에 매진 중인 백종하가 작가가 찍은 1백여 컷이 실려 사계절 암자의 고요한 풍광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안심 법문에 들게 한다. 또한 이번 〈암자로 가는 길3〉은 화려한 여행 안내서나 에세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문화를 향한 보다 깊이 있는 여행, 진정한 나의 본류를 찾는 고요한 여행을 잔잔히 권유한다. 새롭고 기발한 것들을 시도하는 용기와 모험심을 북돋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소박한 공간'에 기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텔레비전의 수많은 채널들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환경서 가끔은 미디어가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디지털 문명의 지식과 성과가 채워줄 수 없는 정신의 허기를 느낄 때 이 책은 분명 우리를 인적 드문 산길로, 구도자들이 밟아온 가파른 길로 안내한다.

산중 암자의 역할은, 마치 산골짜기 물의 소임이 맑은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 자체로써 저잣거리의 우리들을 위안하고 평정에 들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수행은 절에서 참선하는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자신의 낡은 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열정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실한 수행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책에서 말한다. 녹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가르침과 절규로 소리 없이 메아리치는 암자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들이 이 책 안에 펼쳐진다.

암자는 저자에게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니다. 시골서 홀로 농사짓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자 흐트러진 내면을 추스리게 하는 침묵의 자리이다. 그리고 가랑잎같은 고독을 친구삼아 자신의 질서를 지키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서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끼기도 한다.

구도자들의 정신적 본향과도 같은 암자의 전경뿐 아니라 법당과 선방의 구석구석을 소개한 이 책은 불교 신자들과 수행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기행 산문집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출가를 결심해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행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암자를 찾아 산길을 오르던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 마치 이 책이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출간되는 책이 아닐까도 싶었다. 아직도 내게 그 때의 감성과 사유가 남아 있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다."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름 삼아 움이 돋듯 내면 어딘가에 새롭게 생겨난 것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나는 암자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과 수행자와의 인연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정찬주 작가는?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글쓰기로 오랜 기간 명상적 산문과 소설을 발표해온 정찬주는 1953년 전남 보성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글을 쓰는 작가로 살던 그는 자연을 스승 삼아 진정한 '나'로 돌아가기 위해 저잣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늘 마음속에 그리던 남도 산중에 집을 지어 들어앉았다. 샘터사에 근무한 십수 년 동안 법정스님의 책들을 십여 권 만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도타운 사제지정을 맺었다. 스님은 작가를 재가제자로 받아들여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내렸다. 산중에 있는 듯 없는 듯 무지렁이 농부처럼 잊힌 듯 살면서 자연의 섭리를 좇아 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솔바람으로 시비에 집착하는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룬다는 뜻의 '이불재(耳佛齋)'라는 집 이름에 담겨 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하늘의 도〉 〈다불〉 〈만행〉 〈대 백제왕〉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산문집 〈암자로 가는 길〉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선방 가는 길〉〈돈황 가는 길〉 〈나를 찾는 붓다 기행〉 〈정찬주의 다인기행〉, 그리고 어른을 위한 동화 〈눈부처〉등이 있다. 1996년 행원문학상, 2010년 동국문학상을 받았다

벼랑 끝서 만난 '마음공부' 과정 소개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6천원



전작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서 살짝 드러낸 것처럼, 저자는 30대 후반부터 80을 앞둔 지금까지 불치의 병과 함께하고 있다. 전작이 아들에게 유훈처럼 남기는 마음공부의 살림살이였다면, 이번 책은 세상을 향해 자신과 같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내놓은 공부글이다. 간간히 풀어놓는 저자의 굴곡진 인생길과, 그 속에서 함께 깊어지는 마음공부의 과정을 읽어가노라면, 저자의 삶이, 저자의 의지가, 저자의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느껴질 것이다.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에게서 흔히 듣는 말 중의 하나는 "내가 살아온 얘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가슴에 맺힌 게 많다는 뜻이다.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저자가 살아온 지난했던 삶, 즉 연좌제 때문에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이야기, 젊은 시절부터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이야기, 결혼 얼마 후 청상이 된 이야기, 어린 아들과 외국에 나가 살아야 했던 이야기, 30대 후반에 찾아온 불치병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의 살아온 신세보다는, 고통 속에서 일구어낸 마음공부 이야기,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음공부 안내서, 불교공부 입문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사성제, 팔정도, 업, 연기법, 삼법인, 계율, 위빠사나, 참선, 육바라밀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저자의 삶에 녹아들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준다. 책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내비치지 않는 성격의 저자로서는 큰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자의 삶과 붓다의 가르침이 얼기설기 엮이면서,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공부를 통해 바로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고통을 벗어나 행복하기를!" 저자가 힘들고 힘들게 이 책을 쓴 이유이다.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한다. 어려움을 피해 달아나거나, 정체 모를 절대자에 의지하거나, 혹은 그에 맞서 싸우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젊은 시절부터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불치병과 그로 인한 생활고로 고생하였지만 용기와 지혜로 버티며 살았다.

용기는 저자의 타고난 성품과 결혼 직후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 세상에 어린 아들과 단 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이끌어낸 삶의 의지였다. 다행히도 그런 환경에서 그녀는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바라보며 마음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저자를 지혜롭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행복' 하다. 고통을 행복으로 승화시킨 마음공부의 내용을 이 책에 담아낸 것이다.

저자 변화시킨 일등공신, 마음공부
고통 안겨준 병도 삶의 동반자로

마음공부는 평생 고통을 안겨주던 병도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 주었다. 나이듦도,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니 부족함과 불만이 사라져갔다.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병고로부터 해방시켜 평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 붓다의 가르침을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이 그녀를 책상으로 이끌었다. 자신이 평생을 통해 온몸으로 공부하고 느끼고 경험한,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이 책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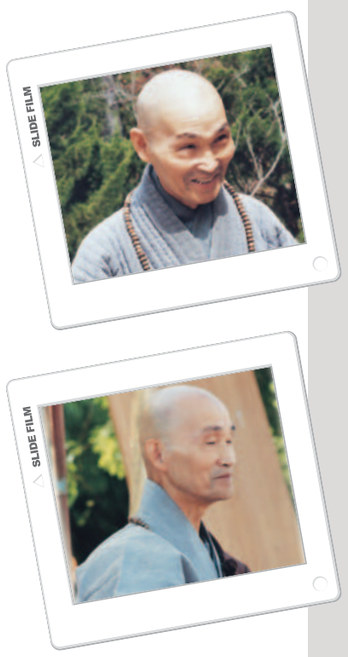


성자의 삶 | 사회문화원 | 356쪽 | 정가 39,000원

참 스승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의 거울이 되어 주신 분...
청하 큰스님의 행장行狀과 역정歷程, 그리고 귀한 법문

생전의 수행처에 대한 수행담과 행장을 통하여 큰 스님의 깨우침과 그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자의 삶



청정스님의 모습은 맑은 햇살과 투명한 바람을 닮았습니다.그래서 스님을 뵐 때면 행복했습니다.굳이 법문이 없으셔도 그 모습 그대로가 법문이신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수행이 형상화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법명 그대로 맑아서 빛나는 분이었습니다.그 분의 미소가 그랬고 어떠한 자리나 지위에도 걸리지 않는 삶이 그러했습니다. 스님의 정진 또한 한 치의 망념없이 순일한 것이었고 스님의 하심은 너무 맑아 눈이 부셨습니다.

- 법장(전 조계종 총무원장)



청화淸華 큰스님 말씀

가장 행복한 공부

성자만이 심상을 봅니다. 성자의 청정안목에서 보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의 가르침 따라 우주가 모두 진여불성이며 본래 부처라고 느끼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화두도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염불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청화 큰스님 말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목차

하 서 – 맑아서 빛나는 청화 큰스님 / 법장 · 5
서 문 – 우리 시대의 큰 스승 / 도일 · 6
간행사 – 우리 곁에 왔다 가신 성자 / 정혜숙 · 7

제1편 행장行狀
진리의 길 성자의 삶
거룩한 이, 태어나시다 · 13
출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다 · 20
좋은 벗(善友)들과 더불어 · 29
독거한처獨居閑處를 찾아 · 35
영생해탈의 길 · 41
위 없는 진리와 함께 · 52
정통불법을 펼치시다 · 57
하화중생下化衆生 · 60
성륜사 창건, 법 바퀴를 굴리시다 · 72
붕정만리鵬程萬里, 미주 포교에 오르시다 · 81
정토 세상을 위하여 · 92
사서辭世, 세연을 정리하시다 · 114
열반에 드시다 · 122

제2편 수행처 탐방
머물되 머무름없이
백암산 운문암 · 129
무안 혜운사 · 137
두륜산 양도암 · 145
두륜산 진불암 · 상원암 · 149
두륜산 남미륵암 · 157
광주 추강사 · 161
지리산 백장암 · 165
지리산 금강대 · 173
백장암 벽송사 · 177
벽송사 두지터 · 185
오산 사성암 · 189
용문사 염불선원 · 백련암 · 197
남해 보리암 · 205
보리암 부소대 · 213
진주 두방사 · 217
장흥 기억산 능엄사(금선사) · 221
부산 혜광사 · 225
강진 무위사 · 229
광명 성도사 · 233
월출산 상견성암 · 237
칠현산 칠장사 · 245
동리산 태안사 · 253
내장산 서래봉 벽련선원 · 263
장흥 탑산사 · 271
완도 범혜사 · 275
미국 삼보사 · 금강선원 · 279
지리산 칠불사 · 287
제주 자성원 · 표선토굴 · 295
도봉산 광륜사 · 303
배향산 무주암 · 311
설령산 성륜사 · 315
성륜사 조선당 · 339

간행기 – 우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달으신 청화 큰스님 / 정진백

구입문의 : 총판 운주사 02)3672-7181~5

행복 법칙 알면 삶 적극적이며 활기차져

행복의 법칙

광덕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2,600여 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듯, 삶의 본질을 꿰뚫는 큰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이미 40여 년 전에 광덕 스님이 설파한 〈행복의 법칙〉 또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가슴 속에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생생히 다가온다. 이 책은 광덕 스님이 1974년부터 월간 〈불광〉에 발표한 글들을 엮었다. 1990년 초판 이후 25년 만에 개정판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4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확실히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인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가슴은 왜 이리도 허허롭고 팍팍하며, 삶은 이토록 고달프기만 한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행복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답을 이 책이 속 시원히 밝혀준다.

광덕 스님은 오로지 우리 안에 깃든 생명의 실상인 불성(佛性)을 강조했다.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행복의 길을 차단하는 번뇌의 근원을 보고, 불법(佛法)의 이치 속에서 행복의 법칙을 찾아냈다. 행복은 행운처럼 요행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법칙에 의해 스스로 창조해가는 것이다. 그 법칙은 불성의 자각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간은 모두 근본 바탕 성품이 불성이다. 우리는 불성의 온갖 공덕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불성을 빼고 다시 다른 권능자는 없다. 무한 창조의 자재한 위력은 우리의 본성에 본래로 갖추어 있다. '일체유심조' 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들의 마음쓰기에 따라 행복도 불행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된 삶인가."

행복의 법칙, 그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다. 이미 내 안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불성, 그 무한가치의 힘을 믿고 있

1974년부터 〈불광〉에 발표한 글 엮어

1990년 초판 이후 25년만의 개정판

행복 창조 원리 설명 및 실천법 제시

는 그대로 갖다 쓰면 그뿐이다. 채널을 KBS에 맞춰야 KBS 방송이 나오고 MBC에 맞춰야 MBC 방송이 나오듯, 마음의 채널을 행복에 맞추면 우리 인생 또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절대긍정의 인생 법칙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행복의 법칙〉은 깨달음과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한 고차원적인 사상이 아니다. 어렵고 난해하지도 않다. 바로 우리의 생활현장 속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청정한 마음의 법칙을 활용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가르침이다. 광덕 스님은 은둔 수행을 과감히 박차고, 도심 속 불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간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이다.

광덕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현대화 ·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한국불교의 물줄기를 바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월간 〈불광〉 창간, 불교의식문의 한글화, 찬불가 작시 및 보급, 경전 번역에 매진했으며, 잠실에 창건한 불광사는 대중법회와 불교교육의 산실로서 현대 도심포교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또한 불광출판사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불서를 매년 수십 종씩 출판하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성장했다. 이처럼 스님의 모든 원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불법을 통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 책의 1장 '행복의 법칙' 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원리를 설명했다면, 뒤이은 2 · 3 · 4장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속속들이 밝히고 있다. 2장 '여성 가정 행복의 장' 에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으며, 3장 '불교인의 생활방식' 에서는 주체적으로 행복을 성취하는 절대긍정의 비결을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 4장 '성공자의 자기관리' 에서는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다.

때론 행복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권태롭기도 하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괴로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복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갖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성취해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미 갖춰진 무가보주(無價寶珠,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석)의 불성을 믿고, 절대긍정의 마음만 내어쓰면 된다.

〈행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환희심으로 가득차 그 안에서 행복은 저절로 완성되어질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저자 **광덕 스님**(1927~1999)은?
1927년 경기도 화성서 출생했다. 암울한 민족의 격동기였던 1950년대 범어사서 당대의 대선지식인 동산(東山) 스님을 만나 참선을 시작, 위법망구(爲法亡軀)의 구도정신으로 수행정진하였다. 1974년 9월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하고, 같은 해 11월 월간 〈불광〉 창간, 불교의식문 한글화, 경전 번역, 찬불가 작시, 불광사 대중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인의 품으로 돌려주며 대중을 일깨웠다.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대중화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존경받았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이라는 절대긍정의 세계를 열어보인 스님은 1999년 세연을 조용히 거두고 입적했다. 지금까지도 스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저서로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선관책진〉 〈육조단경〉 〈무문관〉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를 비롯해 역저서 20여 종이 있다.

증도가 267구에 붙여 쉽게 설명한 깨달음 노래

깨달음의 노래

심성일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의 법문이 팔만 사천 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그 모든 법문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다. 조사들과 선사들의 법문과 선문답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모든 법문이 가리키는 것 역시 단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우리가 흔히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몸이며, 생각 · 느낌 · 감정 · 이름 등 그 몸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렇게 자기를 분리된 개인이라고 믿는 순간, 나와 너가 따로 있고, 나와 세상이 따로 있으며, 안팎의 세상이 무수히 많은 것들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

몸이 죽으면 자기 자신도 죽는다고 믿어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근원적인 불안과 번뇌의 감옥에 갇혀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들은 과연 진실한 것인가? 지은이는 말한다.

"내가 따로 있고 나 바깥에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무명(無明), 곧 어리석음입니다. …… 나와 세계는 곧 하나의 전체로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서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진리만이, 깨달음만이, 이름하여 불성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모두가 하나의 신령스러운 지각의 빛이 빚어낸 작용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이 잡다한 현상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눈앞을 벗어난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눈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갖 번뇌에 시달리는 이유는 존재의 실상, 즉 참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이 무지(無知)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무지의 그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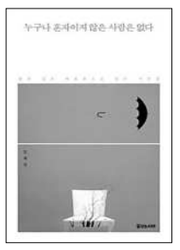
그런데 바른 선지식(善知識)의 지도를 받은 공부인이라면 깨달음은 자기 바깥에서, 혹은 미래에, 혹은 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본성이라는 이름이 알려 주듯이 그것은 본래 늘 있는 것이며, 항상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있는 것이며, 나의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바깥을 보고 있던 눈길을 180도 돌려서 지금 '보는 자' 를,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자기의 진실을 문득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눈앞에 드러난 나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나와 세계가 드러나는 변함없는 바탕이 바로 진정한 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즉각 확인되는 이것입니다. 헤아려 구하지 마십시오. 헤아릴수록 아득해지고 찾을수록 멀어집니다. 멈추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의 노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영원한 진실을 시종일관 분명하게 가리켜 보인다. 분리된 세계 속 개인이라는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근본적인 번뇌망상에서 문득 해방될 수 있도록, 한글세대인 현대인을 위해 증도가 267구에 붙여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설법했다. 눈앞의 분명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흔한 오해들과 그릇된 인식들도 바로잡을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삶의 깊은 외로움으로 읽는 시선집
독자들이 가장 사랑한 詩 120여 편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지음
꿈꾸는 서재 펴냄
1만 1천원

마음의 상처의 기록이자 상처에 대한 치유의 기록인 이 시집은 김재진 시인이 지난 40년간 발표한 작품 중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시 120편을 가려 엮은 시선집이다. 인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한 좌절과 방황의 시기에 쓰여진 이 시들은 그러나 삶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의 문장 대신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안의 언어로 읽는 이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

시인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던 시간 동안 썼던 시이며, 내 인생을 걸고 썼던 시들' 이라고 토로한 시들을 모았기에 시인의 시집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았던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붙였다. 시인은 "이 시집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와 사랑의 흔적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인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던 시간 동안 썼던 시이며, 내 인생을 걸고 썼던 시들' 이라고 토로하는 고백처럼 이 시선집의 시들은 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좌절과 방황의 시기에 쓰여졌지만 그러나 삶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의 문장 대신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안의 언어로 읽는 이의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

"말이 전업작가지 실직자일 뿐이던 그 시절, 가진 재주라곤 글 쓰는 일밖에 없었고, 책이 팔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여기 있는 이 시들을 탄생하게 했다." 고 시인은 고백한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제목, 그 문장은 우리 마음의 현을 울리게 하는 감동이 있다. 그것은 아마 인생의 위기 앞에 절실하고 간절했던 시인의 삶이 제목 속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은 시인이 "시집 원고를 읽어가는 동안 적잖이 절창들이 있어 어이쿠 하고 어디다 이마를 찧은 듯한 아픔이 몇 번 있어야 했습니다."라 평한 시인, 책 말미에 덧붙여진 인터뷰서 고형렬 시인으로 하여금 "시단 밖에 있으면서 어느 시인보다 치열하게 사유하고 아파하는 시인, 언제나 현역이고 스스로에게 아웃사이더인 시인."이라 말한 시인 김재진은 신춘문예 시 당선과 함께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지는 벌써 40년이다.

그런 그가 옛 시집을 다시 읽으며 엮은 이번 시선집에는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시〈못〉에서부터 희미하게 스러져가는 노모를 간병하며 쓴 신작시 〈꽃〉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애환과 파란곡절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래서 김재진 시인은 "이 시집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와 사랑의 흔적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쓰는 시가 세상을 위로하는 잔잔한 읊조림이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쓰는 이 문자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암호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시가 되길 원한다."고 시인의 말에 적어둔 김재진 시인은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에서 놓여나고, 슬픈 사람들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아픔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혼자가 된다〉 〈벼랑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결례〉 〈마음의 빈집〉 등 수십 년간 쓰고 고치고 읽어온 120여 편의 시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홀로 있음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도반들에게 영혼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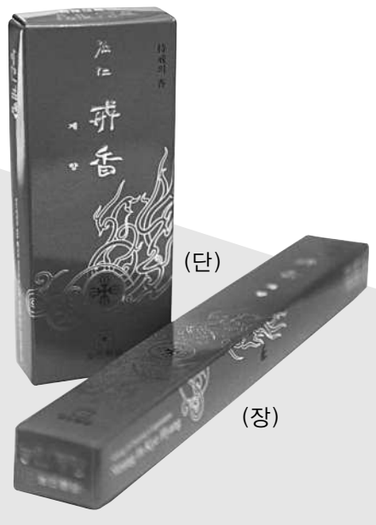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원나라 침략 속에서 내려진 '선종의 뿌리'

17. 元 간섭기 불교계의 변화



대몽항쟁 당시 용인 처인성 전투를 묘사한 민족 기록화.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원 황실의 티베트 불교 등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선종도 유입돼 중국식 의례와 청규 등이 자리잡았다.

고려는 최씨 무인집권기였던 1231년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몽골의 7차례 침입에 맞서 싸웠고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를 감행하면서까지 항쟁을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 개경을 포함한 전국토가 유린되었고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과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 등 다수의 불교 문화유산이 불에 타는 등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1259년 몽골과 강화한 후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성공한 1366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원간섭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독특한 시기였다.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하는 이유는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고려 국왕들이 원 황제의 사위로서 황실의 일원이 되었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반면, 고려 국왕의 자치가 인정되고 풍속이 유지되는 등 고려의 자율성이 용인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역대 원의 황제들이 대고려 정책의 준거로 삼은 쿠빌라이 칸의 '세조구제'는 고려의 풍습을 바꾸지 않고 존립을 보장한다는 '불개토풍'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실제로 원은 고려에서 군대와 행정관 다루가치 등을 철수시켰고 직접적 조세 수취를 의미하는 호구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치, 경제, 군사 등 제반 영역에서 고려는 세계제국을 건설한 원의 구심력 하에 있었고 원의 세계체제의 일원으로 존속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불교계에도 변화를 추동하였다.

이 시기 불교계의 변화는 원의 영향력 증대와 원 황실의 티베트불교 전래, 중국 임제종풍의 유입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고려의 주요 사찰들은 원 황실과 귀족의 원찰이 되기를 자청하기도 했는데, 원찰로 지정된 사찰들은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후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불교계의 판도가 달라졌다. 고려 불교계를 대표하던 수선사도 일본 정벌을 위해 징발된 남해안의 토지를 되돌려달라는 탄원을 올려 성사되었고 원찰 지정을 청원하면서 원 황실의 비호와 특혜를 받게 되었다. 수선사와 함께 결사운동으로 유명했던 천태종 백련사 계통도 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충렬왕의 왕비 제국대장공주가 원찰로 개경 묘련사를 창건하고 백련사 출신 정오 등을 주지로 삼으면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밖에도 주요 사찰에서는 고려 국왕과 왕실에 앞서 원 황제와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성대히 열렸다. 특히 금강산은 〈화엄경〉에 나오는 담무갈(법기)보살의 상주처로 알려지면서 원 황실 및 귀족들의 원찰로 지정되고 후원과 불사가 집중되었다. 법기신앙의 중심지는 표훈사였는데 주전인 반야보전에는 법기보살상 6구가 동쪽 법기봉을 향해 안치되었다. 또 장안사는 고려 여인으로 원 순제의 정식 비가 된 기황후가 황제와 황태자를 위해 불사를 크게 벌였고 은으로 사경한 대장경이 하사되었다.

한편 원 황실의 공주가 고려의 왕비가 되고 황실 일원과 관료들이 고려에 빈번히 오게 되면서 몽골에 전해졌던 티베트불교 계통의 원 황실불교가 유입되었다. 티베트불교의 사상적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이후 불교 의례와 미술 및 건축 양식 등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진언 다라니의 유행과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사리기와 사리탑, 경천사 10층 석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비해 고려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행해지던 법회나 의례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아니면 성격이 달라졌는데, 국가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 외침의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던 담선법회 등이 원의 압력에 의해 열리지 않았다. 또한 고려의 국제가 제후국에 맞게 격하되면서 국사 칭호도 국존이나 국통으로 바뀌었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불교가 원에 역수출된 사례도 나타났다. 원으로 끌려간 고려 여인과 환관을 비롯해 원에서 지내며 활동하던 고려인들을 통해 고려불교가 역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 황실과 귀족 집안에는 기황후의 경우처럼 많은 고려 여인들이 존재하였다. 그 결과 원의 수도 대도에는 고려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찰들이 생겨났고, 이들 절에는 고려 출신 승려가 주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학승들의 주된 근거지가 되었다. 또 원에서 대규모 경전 사경을 추진하면서 전문기술자인 고려 승려 100명이 파견되었는데, 법상종 계통 혜영 등이 주도하면서 고려 내에서도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경전을 글자 그대로 베껴 쓰는 사경은 고려에서 공덕신앙으로 크게 중시되었는데, 금자와 은자로 쓰는 등 고위층의 발원에 의한 사경이 많았고 〈법화경〉과 밀교계통 경전의 사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원의 세계체제라는 국제화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고려의 왕자나 학자들이 원에 장기간 머물기도 했는데, 충선왕은 대도에 있을 때 만권당을 세워 중국의 일류 학자들과 이제현을 비롯한 고려의 젊은 문사들 간의 학술교류를 도왔고 이는 성리학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선왕은 원의 불교계를 직접 후원하기도 했는데, 의천 당시 고려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항주의 혜인사를 지원하였고 대장경을 인출해 중국 강남지방 사찰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당시 강남의 임제종을 대표하는 승려였던 중봉 명본과도 깊이 교류하였고 정토교 계열인 백련종의 복교 운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원 황실 티베트 불교, 고려에 유입돼
법기신앙 중심 금강산, 원 후원 집중
中 선종도 유입… '백장청규' 자리잡아
태고·나옹·백운, 中 선종 법맥 전파
여말 간화선풍, 한국 선종 근간 세워

이 무렵 원의 강남지방에는 한족 중심의 중국불교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은 선종과 정토신앙이었다. 당시 중국 선종은 임제종이 주류였는데 인적 교류를 통해 고려에 본토의 임제종풍이 직수입되었다. 임제종 간화선풍은 깨달음에 대한 스승의 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고려에서도 원에 유학하여 강남지역 임제종 승려의 법을 전수해 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특히 13세기 후반부터 무자 화두와 본분종사의 인가를 중시한 몽산 덕이의 간화선풍이 혼구와 만항 등을 통해 고려에 전해지면서 이후 몽산의 저작이 다수 간행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14세기 중반 무렵이 되면 임제종 간화선풍이 고려 불교계의 트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선종 규범서인 〈백장청규〉가 수입되어 사찰 의례 및 일상생활의 준칙이 되었는데, 이때 들어온 것은 원 황제의 칙명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칙수백장청규〉로서 황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기는 등 국가불교적 색채가 짙었다.

원간섭기에는 많은 고려 승려들이 원에 건너가 임제종 법맥을 전수받고 간화선풍을 체득하여 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태고 보우, 나옹 혜근, 백운 경한의 여말 3사를 들 수 있다.

먼저 태고 보우(1301~1382)는 태고법통의 주인공으로서 한국 선종의 중흥조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태고는 9산선문의 가지산문 출신으로 승과에 합격한 후 〈원각경〉을 통해 지해를 타파하였고 개경 전단원에서 무자화두 참구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북한산 중흥사에 있을 때 태고암을 짓고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태고암가'를 지었다. 46세의 늦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1346년 대도에 머물면서 원 황실에서 〈반야경〉을 강설하였고, 다음 해에는 강남의 임제종 선승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았으며 다시 대도에서 황태자 축원법회를 주관하였다. 1348년에 귀국하였고 1356년 왕사로 책봉되자 주석하던 광명사에 원융부를 설치해 '9산의 원융과 5교의 홍통'을 내세워 9산선문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돈에게 배척되어 밀려났다가 신돈이 축출된 후 재기하여 1371년에 국사가 되었다. 그는 〈백장청규〉를 널리 유포시키는 한편 교훈이 되는 법어 등을 모은 〈치문경훈〉을 원에서 들여와 간행하기도 하였다.

태고 보우와 쌍벽을 이뤘던 나옹 혜근(1320~1376)은 조선시대에도 지공-나옹-무학의 3화상으로 존숭되었다. 나옹은 1344년 양주 회암사에서 깨우친 후 1347년 원의 대도로 가서 인도 출신 승려 지공을 스승으로 모셨고, 1350년에는 임제종승 평산 처림에게 인가를 받았다. 1356년 원의 순제에 의해 대도 광제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개당법회를 주관하였고 1358년에 귀국하였다. 이후 공민왕의 인정을 받아 국왕의 원찰인 해주 신광사에 주석하였고 승과인 공부선을 주관하였으며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에는 왕사로 봉해졌고 송광사를 거쳐 다시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는데 이곳에 스승 지공의 유골을 봉안하였다. 지공은 고려를 3년간 방문한 적이 있고 무생계법과 같은 금욕적 계율관을 주창하면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나옹은 스승의 유풍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 나옹은 1376년 회암사 중창공사로 인해 사대부들의 탄핵을 받아 밀양 의영원사로 가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나옹의 제자로는 환암 혼수 등 다수가 있지만 나옹에서 무학 자초-함허 기화로 이어지는 계보가 여말선초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 2권을 편집한 백운 경한(1299-1374) 또한 54살이 되던 1351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태고와 같은 석옥 청공의 법을 전수해 왔고 나옹이 스승으로 모신 지공에게 법을 묻기도 했다. 1353년 석옥 청공이 입적하면서 전법게를 지어 백운에게 전하게 한 사실에서 그가 석옥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백운은 귀국 후 공민왕에 의해 신광사 주지로 임명되었고 왕비 노국공주의 원당인 흥성사 주지도 맡았으며 1370년에는 공부선을 주관하였다. 그의 선풍 또한 기본적으로는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었지만 무심의 경지를 특히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백운이 1346년 청양 장곡사 약사여래좌상 조성의 발원문을 쓴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50세 이전 행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그는 본격적으로 선수행을 하기 전에 교화활동에 주력하였고 국가가 시행한 기우제를 주관했던 만큼 기도의 영험함으로 큰 명성을 떨쳤음을 알 수 있다.

원간섭기의 임제종 간화선풍 유입과 중국식 의례의 도입은 고려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는데, 조선 개국 초에 서울의 조계종 흥천사 주지 상총이 태조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당시 불교계의 경향성에 대한 우려와 지눌의 수선사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져 있다. 상총은 명리를 다투는 폐단이 아직 남아 승려들이 선수행과 교학 연찬을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선과 교를 겸수해야 하며 특히 선종은 보조 지눌의 유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풍의 불교를 높이 받드는 모화승들이 의례작법에서 전통을 계승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지눌의 수선사 작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원간섭기 이후 크게 유행한 임제종 법맥 전수와 간화선풍은 조선시대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한국불교 선종 전통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58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명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 56 156761 (조명숙)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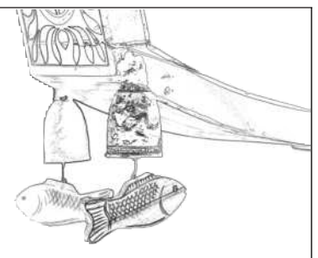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한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길명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 / 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건강 태극권 개인지도

남양주시 화도읍
노후 건강 관리법
치매 중풍 예방법
20년 수련
031-591-9023

인 연 명 리

명리 속성반 모집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모집 중)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 림
010-4630-8005

* 내집처럼 편안하게 숙식하며 컴퓨터 워드, 잘 하시는분 모십니다.
* 비구니스님, 여신도분, 여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명가 김명품 정담선사
사주, 작명, 힐링 템플스테이
광명선원 : 부산 051-334-8184
스님직통 : 011-488-0316

포교원 양도 양수

건물주가 관리겸 협조함
권리금 일체없음
부전스님 할분,쓸분
법당철거 전문
010-5381-1419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0-3346-2328

60대 불심깊은 독신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571-655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특수한 기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60-70대)
010-5209-74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남원 관음사)
010-5065-480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514-3721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 사찰 관리하실 분 65세 이상 1명.
▶ 사찰 과수원 관리에 도움 주실 분 (나이제한 없음)
(충북 단양)
010-5960-208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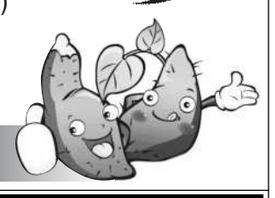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상담 010-5801-2203 부천 상동역

해남 황토 고구마

산지 직송
1BOX 10kg 25,000원
(택배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3602-04-0065595 예금주 : 황향숙
010-3349-880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치포핼스 11월 강의일정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강연회 : 3차 - 11월 12일(목) 밤 7시30분 / 4차 - 11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퍼시픽호텔 우측 지하 〈면역공방 가위 바위 보〉
- 3기 터치포핼스 : 〈1〉코스 : 11월 21일(토), 22일(일) / 장소 : 상동 / 비용 : 30만원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땅속 혈과 맥을 잡아내는 족집게 도술풍수!!!

太極山水穴脈地理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한다!
- ◆명당은 반드시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다!
- ◆혈과맥 짚어내는 비술 득통(풍수계 최초)
- ◆혈맥터는 반드시 발복흥성 되는 생기복덕처다!

▶ 터감정 명혈점지 알선상담 ◀
절터 · 사업장 · 아파트 · 주택지 · 묘지 · 납골 · 수목장 등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 **태극산수혈맥지리**는 자연과학과 장심통수련으로 백발백중 감정·점지 할 수 있는 획기적 풍수지리다 : **비술전수자모집**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81 절로암 참설당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법을 듣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되리라.

- 화엄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 (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 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원주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3천(조절가능)

010-9070-938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서울
◎ 대지:55평 ◎ 종교용지:65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60평 ◎ 전철역5분,주차가
◎ 양도:9억원 ◎ 양도:2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건물 중 2층 60평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관음인등 100불, 영가인등 100위, 산신인등 50불, 호신불 72불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30만원 법당 시설물 2,500만원
- 인연닿는 스님께 조건에 맞게 절충가능

010-6278-14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 2층 임법당, 대지 99㎡
- 1층 방2, 부엌, 창고, 욕실
- 2층 법당 삼존불
- 옥상 휴게실, 텃밭. 주차가능
- 지하철, 버스, 시장 가까운 곳
- 가액 : 1억 4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대웅전 10평, 산신각2평, 용왕각1평반, 요사채15평. 11평
- 차실8평, 종교부지176평
- 가액 : 1억 9천

010-3793-10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전남곡성, 옥과IC 5㎞, 초중고, 대학교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안산매봉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소나무속 암자, 노천약사석불,
- 血사리봉안, 선원, 별장가함
- 가액 : 3억5천(답사후절충가)

010-8224-1688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전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중 2층 45평, 법당, 방3
- 원목탁자, 삼존불, 탱화3점, 에어컨2대
- 냉장고, 세탁기
- 8년간 운영(절을 지어 이사하게 됨)

02)762-0108
02)433-010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 / 장성읍에서 12㎞ /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영산 갓바위 자락
- 대지 225평, 답 289평, 도로인접
- 1층 시멘트 벽돌 슬라브 주택 26.47평 1층 슬라브 창고, 법당 21.22평 1층 시멘트 블럭조슬라브 12평 62평 방4개 응접실, 주방, 욕조, 화장실 0.8평
- 주불 지장보살, 탱화, 신중, 칠성, 산신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0-6534-1777
010-3511-67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7-3379
010-4576-22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대 형 포 교 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권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 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강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역 앞) 대문앞 차도(버스)
- 대지 약 112평, 건(2동) 약 30평
- 법당2, 방2, 거실, 공양간, 마당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100만원

010-4840-3939

오후 1시 이후에 전화 하십시오.

토 굴 안 내

- 위치 : 울산 호계부근
- 친견방, 대기실 10평
- 미니 인법당 및 철학관 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관리비 포함)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버스터미널에서 차로 10분거리
- 대지 1,500평(일부 전)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다용도 건물1동
- 법당 및 요사채 시설완비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 전세 및 월세 (가격상담 후 결정)

010-5437-8500

사찰최적지전통한옥

(밀양 얼음골)

- 총부지 6,200평, 전통 한옥 2채 (45평 30평) 및 한옥보일러실, 해발 400M 전망 최고의 명당
-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인접
- 현재 팬션 운영중
- 가액 : 33억

주인직 010-6563-3122
010-7100-6203

도심속의 포교당

- 카페 같은절
- 위치 : 경남창원 18평
- 1,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889-5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

010-7161-2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거창 수려한 경관 고찰터에 위치한 사찰
- 대지1000평, 전통법당40평 , 요사채100%, 황토40평
- 공양간30평,후원10평,대형창고, 삼성각, 365일물흐르는 용왕당, 사과 아로니아 200평
- 가액 : 8억 5천

010-6534-4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28평, 1층 방3
- 주방거실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 상단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법종, 소불 108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5천 월세 3천에 70만원

010-8611-75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270-2
- 평수 : 약 50평(2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함 스님 불사 이전 관계

010-9389-7457

사찰지(급) 안내

- 위치: 장흥, 일영(서울10분)
- 임야 18,372평, 대지 437평, 평지 1500평(건물 8동)
- 정남향, 20m 좋은 냇가
- 신축 216평 (3층가능)
- 숙박허가, 힐링센터 가능
- 가액 : 15억 (융4억 포함)

010-3237-3618

포 교 원(급)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암 자(급) 안 내

- 위치 : 합천 해인사쪽 도솔암
- 기도처 155평
- 요사채 1동 법당포함
- 도로포장 잘되었음
- 임산 배수로 경관이 좋고 800고지에 차량출입
- 선착순
- 가액 : 1억 2천

010-3900-305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3분
- 대지 300평, 남향, 청기와, 빨간 벽돌집
- 내부 40평, 방3, 거실, 부엌, 화장실, 창고2개, 마당,반송3, 단풍, 라일락, 텃밭, 뒷뜰 넓고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대법당.삼존불. 탱화.실내화장실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9945-2030

사 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 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양도

010-5019-5385

사 찰(급)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사 찰 안 내

바닷가 근처 예쁜 사찰들

- 위 치 : 동해, 남해, 거제도 바닷가
- 총부지 : 동해 약 600평, 남해 500평, 거제도 약 400평
- 건 물 : 법당, 산신각, 용신각(용왕당), 요사채 등등
- 가 액 : 동해 2억5천, 남해 2억 5천, 거제도 3억 5천
- 조망권 : 바닷가 200m이내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전망
-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5〉 연기수행 ㊦

과거 · 현재 · 미래 "궁금하십니까"



무명 · 갈애 · 취착 · 행 · 업이 원인
과거 원인 때문에 현재 결과 발생
숙고하면 5온의 정신 · 물질 보여
나와 연관 있는 것 찾아야
미래생 보는 법도 같아
현재 상태 따라 달라질 뿐

안팎으로 5온 식별하기

다섯 번째 방법은 5가지 과거 원인(무명, 갈애, 취착, 행, 업) 때문에 5가지 현재 결과(식, 정신-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가 일어나고, 5가지 현재 원인(무명, 갈애, 취착, 행, 업) 때문에 5가지 미래 결과(식, 정신-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 연기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5가지 과거 원인인 무명, 갈애, 취착, 행, 업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원인이란 과거 생의 원인이다. 따라서 과거 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생이란 이생 이전의 생, 즉 전생을 말한다. 전생에 있었던 무명, 갈애, 취착, 행, 업을 보고 이생의 식, 정신-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결을 봐야 한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생을 보는 것이다. 전생을 보고 전생의 무명, 갈애, 취착, 행, 업을 알아야 한다. 전생을 보기에 앞서 전생을 보는 훈련을 한다.

지금까지는 5온을 자기 안에서만 보는 훈련을 했다. 자기의 의문과 심장토대에서 봤다. 전생을 보려면 전생의 5온을 봐야 한다. 그러려면 5온을 밖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5온이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훈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의 각각의 선정에서 나와 자기 안에서 선정의 정신과 물질, 즉 5온을 보고 난 뒤 밖에 5온이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5온을 보면, 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5온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5온을 식별한다. 자기 안과 밖에서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것을 정신과 물질을 안팎으로 식별한다고 한다. 때론 안팎이 다른 것, 즉 안은 자기 것이고 밖은 남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아나빠나사띠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초선정의 정신과 물질, 즉 5온을 식별한 후 정신과 물질이 밖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정신과 물질이 밖으로 이동한다. 쭉 이동한다. 그러다가 스스로 멈춘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조금 이동하다가 멈춘다. 멈추면 그 자리에서 정신과 물질이 안에서와 똑같이 전개된다. 나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이선정으로 들어간다. 이선정에서 나와서 선정의 정신과 물질, 즉 5온을 안에서 보고 난 뒤 정신과 물질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면 정신과 물질이 이동한다. 초선정 때보다는 길게 이동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 그러고는 이선정의 5온이 안에서 봤던 것 그대로 밖에서 자동으로 전개된다.

이제 삼선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삼선정의 5온을 식별한 후 바깥으로 이동시키면 이선정보다는 길게 이동하다가 멈춘다. 그러고는 안에서 봤던 것 그대로 밖에서 삼선정의 5온이 식별된다.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은 듯하다. 지혜의 눈이 작동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 사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에서 5온을 식별하고 밖에서 5온을 식별한다. 이때는 5온이 밖으로 나갈 때 한참을 나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까시나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안팎으로 5온을 식별한다.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의문에서 5온을 식별하고 5온을 밖으로 이동시킬 때는 아주 오랫동안 5온이 이동한 후 멈춘다. 멈춘 후 정신과 물질의 식별이 일어난다. 선정의 정신과 물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정신의 6문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인식과정 모두에 대해 안팎으로 보는 훈련을 한다. 어떠한 인식과정이든 안팎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전생에 일어나는 어떤 인식과정도 어려움 없이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참 놀라웠다.

같은 방법으로 전생과 미래 생을 본다.

전생을 보는 방법

전생을 보는 방법은 2가지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로 이동해서 볼 수도 있고, 전생으로 바로 이동해서 볼 수도 있다. 숙달되면 2가지 방법이 똑같지만, 처음에는 2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다 해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좀 더 유용하기도 하다.

먼저 이 순간부터 점차 과거로 이동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지금이 만약 밤이면 낮으로 이동하여 그때의 5온을 식별한다. 그다음 어제로 이동하여 그때의 5온을 식별한다. 이렇게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 하는 식으로 과거로 이동하여 그때마다의 5온을 식별한다. 태어날 때로 이동하여 그때의 모습과 인식과정을 본다. 어머니 배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식별한 5온의 과거 원인이 뭔지 알고 싶다면 전생으로 이동한다.

이제 전생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에 차례차례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팎으로 5온을 식별한 후 '정신과 물질은 정말 괴로움이다. 지금 이 정신과 물질의 과거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숙고를 하면 바로 과거의 정신과 물질을 볼 수 있다.

우 실라 스님으로부터 2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먼저 점차 과거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전생을 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의 5온을 안팎으로 식별한 후 첫 번째 전생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전생의 무명, 갈애, 취착, 행, 업을 찾아보았다. 참고로 설명하면, 무명은 실재를 보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것이다. 갈애는 무명을 바탕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다. 취착은 갈애가 계속되는 것이다. 첫 번째 탐욕이 갈애고 두 번째 이후의 갈애가 취착이다. 행은 의도다. 업은 실제 행위다. 무명, 갈애, 취착을 '오염원인의 회전'(kilesa vatta)이라고 하고 행과 업을 '업의 회전'(kamma vatta)이라고 한다.

첫 번째 전생에서 무엇이 무명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이니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였다.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유신견으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전생의 무명이었다. 이 무명이 윤회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이 무명이 일어날 당시의 안문 인식과정과 의문 인식과정을 봤다.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 탐욕과 사견이 있고 희열이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부수 20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명을 식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전생에서 갈애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삶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애착이다. 취착은 그런 애착이 계속되는 것이다. 갈애와 취착도 의문 인식과정의 자와나에, 탐욕과 사견이 있고 희열이 있으면서 자극 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부수가 20가지 있었다.

행을 식별할 때는 임종 시 마음의 행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생을 살면서 많은 행이 있다. 그런데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행은 임종 시 마음에 있는 행이다. 임종 시 마음의 행이 다음 생의 원인이 되는 행이다. 임종 시의 표상과, 다음 생의 재생연결의 표상과, 바왕가의 표상과, 한 생의 마지막 마음인 죽음의 마음의 표상은 같다. 이 4가지 마음의 표상은 똑같다. 이때 표상은 3가지 중의 하나가 된다. 먼저 업이 표상이 되기도 한다. 업이 남을 돕는 것인 경우 남을 돕는 행위가 표상이 된다. 다음으로 업의 대상이 표상이 되기도 한다.

업은 행이 있을 때 있는 행위다. 또는 행이 있는 마음, 마음부수가 가지는 업력이다. 행을 업으로 봐도 된다.

현재 있는 일의 전생의 원인을 찾아보고 선 놀랄 때가 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일의 과거 생의 원인이 궁금해서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과거 생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그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생의 원인을 찾을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누가 나인지 분간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지금의 나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두 사람의 정신과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정신과 물질이 나와 연결된다. 나와 연결이 없는 사람은 정신과 물질이 연결되지 않는다.

미래 생을 보는 방법

미래 생을 보는 방법도 과거 생을 보는 방법과 같다. 다만 미래 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상태가 달라지면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미래 생을 보기 전에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모두 경험하고 각각의 선정에서 나와 의문에서 5온을 본 후,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밖에서 5온을 본다. 그러면 자기 밖에서도 자기 안에서와 똑같이 5온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의문에서 5온을 본 후 자기 밖에서 5온을 본다. 그런 다음 '현재 생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미래 생에 어떻게 연결될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정신과 물질, 5온이 이동을 한다.

미래 생을 보는 데도 2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이동하는 방법과, 미래 생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처음에 나는 미래 생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을 썼다.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의문에서 5온을 본 후, '지금 이 생을 원인으로 미래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이니 밖의 정신과 물질이 미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계속 이동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했다. 전생을 볼 때는 한 생이 끝나면 멈추고 그 생이 전개되었는데, 이번에는 멈추지를 않고 계속 이동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멈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 이생에서 점진적으로 이동하여 이생의 임종으로 이동했다. 이생의 무명과 갈애, 취착은 다음 생에는 스님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임종 시의 표상은 수행자였고 마음, 마음부수는 희열과 지혜가 있는 34가지였다. 첫 번째 미래 생의 재생연결도 마찬가지로 표상이 수행자였고 마음, 마음부수도 희열과 지혜가 있는 34가지였다. 첫 번째 미래 생에서 일찍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스님으로서 선정과 위빠사나 수행을 많이 했다. 수행 시 빛이 있었다. 임종 시 표상은 천상이었다.

두 번째 미래 생은 천신으로서의 생이었다. 긴 시간 이동했다. 천신에게 남성 물질이 있었다. 선정 수행을 많이 했다. 행은 수행이었다. 세 번째 미래 생은 범천이었다. 범천에게 성 물질이 없었다. 선정 수행을 많이 했다. 수명이 굉장히 길어선지 무척 오래 이동했다. 무명은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임종 시 표상은 수행자였고, 행은 수행이었다. 네 번째 미래 생은 스님으로서의 생이었다. 일찍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스님이 되어 선정을 닦았고, 니밋따가 빛이었고, 위빠사나 후 정신과 물질이 끝이 났다. 정신과 물질이 이동하던 것이 뚝 끊겨 없어졌다. 더 이상 존재가 없었다.

과거 생에서 하듯이 미래 생의 5온도 앞선 생과 연결하여 원인과 결과를 식별한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전강 스님 후기

치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법문'

예술은 모순이다.

나는 그림에서 어떤 뜻을 표현하는데 모순을 생각하고 상충된 것의 조화를 구현하려 노력했다. 서로 맞서는 대립은 생성이고 긴장이며, 힘이다. 모순은 '공존' 이다.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다. 창조와 동시에 부정이 있고, 상승과 동시에 추락이 있다. 상반된 것이 '원융무애' 이다. 모든 가치의 상대성을 중시한다. 중도의 진리이다.

또한 예술은 역설이다.

나는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역풍자' 가 그것이다. 역풍자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공격성을 지닌 풍자이면서, 거꾸로 풍자의 대상이 풍자를 즐기는 주체 즉, 풍자화를 풍자하는 것이다. 이는 원효의 화쟁 사상과 헤겔의 변증법에서 간취되는 바이다. 주와 객이 부정과 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지향하는 것이다. 대립과 모순이 하나로 꿰뚫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 대립 · 모순되는 것들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때론 대상에 대해 비웃고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닫고 너와 같이 높은 정신으로 나아간다. 풍자 정신은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정신의 차원과는 다르다. 모순과 역설, 그리고 역풍자는 생명의 깊은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예술의 어법과 스님의 어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폐술이 그것이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스님이 쓰시는 언어 체계와 논리 방식, 그리고 수행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폐술은 말 그대로 못쓰게 만든 후 스스로를 일어서게 만드는 고도의 방편이다. 원래 폐술은 한방에서 쓰는 용어중 하나이다. 병이 깊어 고치기 힘든 경우 사용하는 극단의 처방이다. 우선은 그 병을 더 아프게 유도하여 결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도저히 뜸을 떠서는 안 되는 환자에게 뜸을 떠서 환부를 덧나게 만드는 등의 처방이 그것이다. 아픔은 죽음의 끝단까지 가게 되면 그 순간 다시 소생한다. 그 끝단까지 몰고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살릴 줄도 알아야 한다. 생명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면 폐술은 가능하지 않다. 스님은 끊고 죽이면서 동시에 살리는 처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상 세계의 대문호들은 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들리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자기 욕심, 자기 울타리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스님은 또 다른 과거의 역사와 다양한 타자들의 소리까지를 호명하여 말씀해 주신다.

의미는 뜻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게 한다. 내용은 꽉 채울수록 독선으로 흐르거나 단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미는 비우는 것이 더 어렵다. 비우면 자기와 타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며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다종다양한 타자들의 소리를 통해 의미를 파악 한다. 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소리가 이어진다. 여백에서 소리가 난다. 여운이 길다. 이어지는 것, 그 속에 근원적인 무수함이 들어 있다.

전강스님께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속에 있는 여백과 그 여백 속에 있는 무수한 생명과 인간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골계와 갈등이 같이 있다. 이럴 때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내 속에 많은 내가 있다. 수많은 내레이터가 나온다. 그리고 이야기를 걸어온다. 그것이 여백이고 여운이다. 의미가 증식하고 번식한다. 분열한다.

의미는 비워야 한다. 그러면서 채우는 것, 역설이 여기에 있다. 스님의 말씀엔 내가 있고, 타자의 눈이 있다. 자아를 세계로부터 철저히 타자화 시키면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다.

나는 이렇게 스님에 대한 자기 진리를 나름대로

아픔은 죽음 끝에서 소생해
생명의 경계 알아야 가능
스님은 동시에 생사 처방법
세상 소리까지 모두 담아내

생각하며 스님의 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종이는 의성산 참닥과 해남산 삼지닥을 3:7로 섞어 만든 수록한지를 사용했다. 밑그림은 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목탄으로 간략하게 그렸다. 그리고 유탄으로 간략하게 그린 선을 정리하면서 지우고 생성시켜 함축된 스님의 성정을 찾아갔다.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자, 비수가 없는 담박한 필선으로 인물의 전체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요약적으로 그렸다. 이 때 윤곽선은 얼굴과 손의 경우 육색으로, 옷과 주장자는 먹을 사용하였다.

스님의 얼굴과 손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단계까지 그렸지만 상대적으로 옷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정도의 단순함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했다. 윤곽선만으로 스님의 인상과 그림의 인상이 방불하다 생각 될 즈음 종이를 뒤로 돌려 뒷면에서 그리기 시작했다. 배채법이다. 스님의 정신세계를 그리는데 주요하게 선택하여 적용시킨 형식이다.

그 색은 특히 얼굴과 손 등 피부에 집중하였는데 뒷면에서 칠한 안료가 앞면으로 우러나와 은은한 피부 질감이 살아나도록 했다. 이때 안료는 옅고 투명한데 여러 번 칠하여 물감 층을 쌓아 나가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을 따랐다. 배채법은 우선 채색을 보다 선명하게하면서 변색을 최소화하고 안료의 박락을 막아 보존성을 높여 주는데 있다. 사용한 안료는 불교의 성지인 둔황에서 구해 온 황토를 사용하였다. 눈동자는 고려 조선조의 초상화 전통에 따라 호분을 사용하여 맑고 청수한 눈빛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 벨? 모자와 법복도 담묵으로 은은하게 배채 하였다. 그러면서 주장자만은 먹만으로 그려 악을 물리치는 도구와 상징으로서의 강한 의미를 흑백의 대비로 높이고자 했다.

예술은 인간의 사유 구조 안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형식화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술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인간에 대한 철학 없이 인식이 확장 될 수 없다.

스님의 법문은 온몸으로 삶을 치열하게 쓴 시이다.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법문이다. 스님의 모습을 보면 우주 삼라만상의 기운이 작동한다. 생명의 소리이다. 생명의 세계이다. 頂門一鍼, 奕兀之筆, 무정한 사물과 교유하는 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강 대선사 진영의 뒷면 배채 상태



전강 대선사 진영, 종이에 수묵 채색, 140X72cm, 2015
스님은 자아를 타자화 시켰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자 세상보기

명품보다 자신의 내면을 채워라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센터 원장

과시적 소비로 인해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오르는 '베블렌 효과'가 한국을 덮고 있다.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는 미국의 사회 · 경제학자 베블렌(Veblen)의 주장이 허영심에 기반한 과시욕의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억' 소리 나는 물품들이 '한정판'으로 걸리면 노숙까지 불사하는 '민폐형 명품족'들이 등장해 싹 쓸어가니 외국 브랜드 회사들의 배짱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에 개소세를 인하해서 명품 값을 내리겠다는 정부 시책이 2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일이다. 명품회사들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제품의 값을 안 내렸기 때문인데 이번 일을 두고 혹자는 '글로벌 호구'라는 용어를 써가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이 장기 불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럭셔리 사치품 시장은 별개인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 공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디드로 효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허감 속에서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다른 물건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증폭해서 생기고 나중에는 구입한 물건 자체가 심리를 지배함으로써 거의 중독 수준에서 연쇄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중생이 욕망에 젖어 넋을 잃음은 마치 덧에 걸린 토끼와도 같나니"라는 비유를 통해 중독현상을 경계하고 "그들은 욕망의 족쇄에 얽혀 있어 한량없는 둑카(고통)을 받고 또 받는다."고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결국 어리석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마침내 자신을 삼켜버릴 지경에 이르면 그 결과는 황폐화한 사고와 메마른 정서 뿐인 것이다.

공허감은 '텅 빈 듯한 허전한 느낌'을 말하고 그 텅 빈 마음에 좋지 않은 바람이 든 것이다. 〈선가귀감〉에 나오는 8풍의 경계에 걸린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예(譽), 칭(稱), 락(樂)의 바람과 관련이 깊다. 예(譽)는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라는 헛바람이다. 비싼 것을 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모한 소비를 시도한다.

칭(稱)은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거라는 헛바람이다. 럭셔리한 물품을 본 사람들이 물품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VIP대접을 해줄 거라는 착각으로 정신은 이미 혼미하다.

락(樂)은 즐거움의 헛바람이다. 한정품을 소유했다는 생각이 감정의 흐름을 왜곡하여 쾌락 속으로 몰고 간다.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한 바람은 조금씩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시비비를 판단할 정견의 뿌리를 잘라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적 공허감으로 인한 무모한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야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공(空)으로 '바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라'고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비싼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공허감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큰 지 '바로 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01년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 쿡스에 의해 진행되어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로 정리되어 발표되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우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심리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신체적으로 불면증과 만성 통증이 완화되고 있다.

명품공화국이라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열차에서 내뿜는 공허감의 매캐한 연기를 멈추는 것은 보시바라밀의 강력한 정화작용이다. 바라밀의 계속은 질주하는 모든 것을 멈추어 제자리로 돌리는 회복의 도피안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명품 백 대신에 명품 빵으로 충만한 텅빔의 진정한 행복을 나누자.

정주영과 불교

올해 11월 24일으로 현대그룹 창업주 故 아산 정주영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기념학술연구를 맡았던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정주영 회장의 1982년 특별훈시 내용을 본지에 보내왔다. 정주영 회장은 훈시에서 원오극근 선사의 어록을 인용하며 현재를 살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궜던 정주영 회장의 훈시 내용 일부를 발췌 · 정리했다. 〈편집자주〉

게으름은 인생의 녹, 항상 매진하라



12세기 중국의 선승으로써 원오 극근 선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재로 쓸 정도로 한국 불교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야전기현(生也全機現) 사야전기현(死也全機現).'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살 때는 삶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또한 죽음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는 삶에 철저 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도 유감없이 마음껏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양상입니다.

또한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미련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중간히 반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큼도 기분 나쁜 죽음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은 것 또한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 때는 철저하게 살고 죽을 때는 또한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력을 다해서 살아야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신속하게 물러나와 버려야 돼요. 꽃은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생과 사를 물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 하는 것, 자기 인생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생야전기현(生也全機現) 사야전기현(死也全機現).' 살 때는 삶에 철저하게 그 전부를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서 전부를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한테 남겨요. 그때 이제 남긴 말이 무어냐 하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간단해요. 80년 동안 살면서 성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치고는 너무나 평범해. 평범한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질서에요. 우리 마음도 변하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생산적으로 변하느냐. 창조적으로 변하느냐.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이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 이것 굉장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최고의 악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것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게으름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는가? 습관과 함께 시작돼요. 본래부터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게으름이란 누룽지가 생긴 것이지. 본래부터 게으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악덕은 습관과 함께 시작됩니다. 습관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느냐. 녹이에요. 아무리 강한 호미 강철을 지녔다 하더라도 게으름의 습과, 게으름의 악덕, 이것이 녹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총명한 밝은 지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심성을 지녔다하더라도 게으르게 되면 그것이 녹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죽음이 닥칠지 누가 압니까? 내일 큰 재난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이고 내 과제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생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산, 「특별훈시」, 1982. 10. 28

社說

화합·상생, 종교가 아름다운 이유

남북 종교계 지도자들이 북한 금강산서 평화 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측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호텔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남측 KCRP 회원 150명과 북측 조종협 회원 50명이 참석했다. 남북 종교인들이 대규모로 한데 모여 모임을 가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경색된 남북 불교교류가 이처럼 새롭게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0월 15일 신계사 복원 8주년 기념법회부터이다. 이 자리에서 남북 불교 지도자들이 오랜만에 합동법회를 열며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금강산서 가진 종교인 회동도 신계사 합동법회의 연장 선상서 이뤄진 쾌거라고 볼 수 있다. 평화를 소중히 가꾸고,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해 통일의 씨앗을 싹틔우는 것은 종교인들의 사명이다.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면서 애국애족의 마음과 남북 선언에 기초해 종교인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된다면 평화통일도 먼 장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종교화합의 분위기는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종로 지역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서울 금선사 · 서울교회 · 세검정성당 · 원불교사직교당은 11월 11일 금선사에서 '제3회 종로 지역 종교인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지구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상생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리는 의미가 깊다. 종교가 아름다운 이유를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지도자들의 사명인 것이다.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한국불교 화두

조계종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초자료 수집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가 올해에만 3번에 걸쳐 진행 중이며 내년 등재신청서 작성과 2017년 등재 관련 실사 등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24일에는 공주 마곡사에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4일에는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에 대한 국내 석학들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7개 대상 산사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11월 20일에도 '불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2차 국제학술회의가 순천에서 열린다. 불교 유산이 주제인 만큼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산들의 역사적 배경,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세계유산 등재 후 현황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특히 1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외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산사에 대한 답사를 진행해 '한국의 전통산사' 등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통산사는 세계문화유산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만큼 등재 사업을 추진해 2018년 등재의 쾌거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사)세계불교법왕청 각료 임명장, 재가 국제포교사 선임 임명장 수여 및 세계평화상 수상 행사

Buddhists of The World King & World Peace Prize Awawding Ceremony 2015

(미얀마연방승가회,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 초청 공식행사 / 10월 31일 ~ 11월 5일)

(사)세계불교법왕청(법왕 : Dr 우 꾸마라 미얀마 종정스님 / 이사장 목탁 대승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얀마연방승가회 및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 공식초청으로 4박 6일간의 미얀마 방문행사를 진행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회장 목탁)가 2009년부터 세계불교도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여 2013년 (사)세계불교법왕청을 정식 등록하고 2015년 6월 2일 세계불교법왕청 임시각료와 미얀마연방승가회가 합의하여 現 미얀마연방승가회 종정이신 Dr 우 꾸마라 스님을 세계불교도의 법왕의 자리에 추대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일정으로 11월 1일 (사)세계불교법왕청 각료 임명장을 법왕으로부터 직접 수여 받아 실질적인 정식 조직을 갖추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법왕청 이사장 목탁 대승정을 비롯하여 세계법왕청 소속 임시 각료와 세계불교지도자협회 재가 국제포교사, 세계평화상 관계자인 세계평화봉사단 한민수 총재 및 일행 등 81명이 동참하였으며 전체 일행은 출발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선서를 합동 낭독하고 한국불교지도자와 불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미얀마 양곤에 도착한 일행은 11월 1일 양곤 종교성 내 사사나 승가대학 강당에서 법왕청 각료 임명장 수여에 이어 오후에는 세계평화봉사단이 주최하는 세계평화상수상행사를 진행했다.

세계종교화합이라는 대의에 의해 세계불교도의 구심점인 법왕청 법왕이신 Dr 우 꾸마라 미얀마 종정스님과, 세계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회장 킨 쉐이 국회의원, 일본 천황의 손녀인 카오루 나카마루 공주가 수상했다. 세계평화상 오후 만찬에 이어 2일 양곤 북동쪽 160km에 위치한 미얀마 최고의 불교성지인 몬주의 짜익티요 파고다에서 불교도의 단합을 위한 철야기도를 마치고 3일에는 짜익티 사웅 파고다와, 카군 동굴사원, 카렌주의 쿼 카렛 파고다와, 윈 세인 파고다를 방문하고 4일 양곤으로 이동하여 종교성 내 까바예 파고다에서 마정수기를 봉행하고 미얀마의 상징인 양곤의 쉐다공 파고다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합동예불을 봉행한 후 행사에 참여한 인원 중 노고가 많은 임원들에게 미얀마종교성의 감사패가 수여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세계불교법왕청 각료 정식 임명장 수여

Buddhists of The World King

11월 1일 미얀마 종교성 내 사사나 승가대학 대강당에서 Dr 우 꾸마라 법왕(現 미얀마연방승가회 종정)이 참석한 가운데 법왕청 정식 임명장이 법왕님으로부터 직접 수여 됐다. 현재까지는 임시각료로서 조직이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정식 임명장 수여를 계기로 실질적인 세계불교법왕청의 조직이 완료되는 뜻 깊은 행사였다. 미얀마연방승가회 승가지도자 50여명과 세계평화상 수상자인 킨 쉐이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회장, 카오루 나카마루 공주와 종교성 직원 등이 참석했다. Dr 우꾸마라 법왕은 축원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불교법왕청의 신임 각료에 대해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함께 노력하여 세계불교도를 하나로 모아 불교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축원 및 환영인사에 이어 킨 쉐이 불교수호협회 회장과 카오루 나카마루 공주, 방문단 일행의 법왕님과 승가지도자들에 대한 공양이 이어졌다. 환영행사를 마치고 공식행사인 법왕청 각료 임명장이 수여됐다. Dr 우꾸마라 법왕은 예봉사 구달스님을 시작으로 세계불교법왕청 각료 임명장과, 부채, 선물을 수여했다. 각료 임명장 수여에 이어 세계불교지도자협회 재가 국제포교사 전원에게도 직접 임명장과 선물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법왕청 임원 및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임원들과 일일이 기념촬영을 하시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세계불교법왕청은 향후 일정으로 내년 1월 태국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을 방문하여 각국 승왕 선출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9월 이후 한국에서 법왕님을 모시고 법왕청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평화상 시상식

World Peace Prize Awawding Ceremony 2015

세계평화봉사단(총재 한민수)은 지난 9월 세계평화봉사단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2015 세계평화상 수상자에 세계불교법왕청 Dr 우 꾸마라 법왕과,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 대승정,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회장 킨 쉐이, 일본 천황의 손녀인 카오루 나카마루 공주 등 4인을 선정하고 수상행사를 통해 세계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것이다. 한민수 세계평화봉사단 총재는 선정이유에 대해 '세계평화봉사단의 주요 구성원이 기독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종교화합의 큰 목표에 다가가고자 세계불교도를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불교법왕청 Dr 우 꾸마라 법왕과, 이사장 목탁 대승정,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회장 킨 쉐이를 선정하게 되었고 일본 천황의 손녀인 카오루 나카마루 공주는 대외 민간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미얀마 양곤의 깐도지 호수에 위치한 카라윅 연찬회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미얀마 불교 최고 지도자인 바딴타 쿠마라 아미대사 바모 스님과 세계불교법왕청 법왕 Dr 우 꾸마라 미얀마연방승가회 종정스님, 세계평화봉사단 한민수 총재와 임원, 슈웨 만 미얀마 하원의장, 종교성 주요 임원 및 특별 초청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법왕 Dr 우 꾸마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세계평화봉사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세계평화상을 보내주신 의미는 세계 종교의 화합을 위해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밝혔다. 킨 쉐이 회장과 목탁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Dr 우 꾸마라 법왕과, 목탁 대승정, 킨 쉐이 회장, 일본 천황의 손녀인 카오루 나카마루 공주 순으로 세계평화상 패와 메달이 차례로 수여되었고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일행은 세계평화상 수상식 행사 후 양곤 남부에 위치한 미얀마 고대 문화유물 박물관을 관람 하고 수상행사장의 연찬회장에서 만찬을 겸한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세계평화상 수상자인 킨 세이 미얀마불교수호협회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만찬에서 킨 쉐이 회장은 세계평화봉사단 한민수 총재와 심사위원 일행과 이번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해 준 국제구호기구 이진우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은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과 미얀마연방승가회에 컴퓨터, 만년필, 정수기 등을 전달하고 끊임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세계평화상은 前 존F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당시 극동사령부 공보처장인 現세계평화봉사단 총재 한민수 목사의 인연으로 시작되어 발족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민간단체로 현재는 미국법인 세계평화봉사단을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세계 18개국 주요인사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부정기적 심사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여 심사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세계평화상 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과 동시에 심사위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현재의 활동은 한민수 총재가 주도하고 한국본부에서 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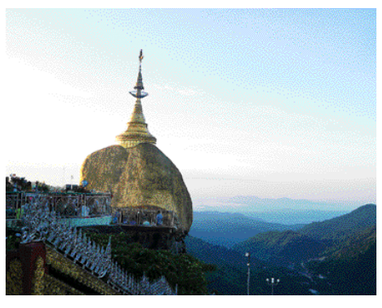




미얀마연방승가회,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 초청 성지순례

법왕청 각료 임명장 수여 및 세계평화상 수상행사를 마친 방문단 일행은 미얀마연방 종교성과 킨 쉐이 불교수호협회장의 주관으로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을 진행했다.

미얀마 양곤 북동쪽 160km에 위치한 미얀마 최고의 불교성지인 몬주의 짜익티요 파고다에서 불교도의 단합을 위한 철야기도를 진행했다. 현지의 쌀쌀한 겨울 날씨속에서도 참회의 정진을 다하는 일행의 기도 의지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날 3일에는 몬주의 짜익티 사웅 파고다를 참배했다. 100일 전 입적한 짜익티 사웅 스님은 미얀마 최고 승가로 칭송받고 있으며 400여개의 탑과 수 많은 명상센터를 건립하여 후학양성에도 최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다. 특히 입적 후 유언에 따라 자신의 유해를 법당에 모셔 공개하여 많은 신도의 신심을 일깨우고 있다. 일행은 짜익티 사웅 스님의 유해를 직접 참배하고 기도했다. 이어 카렌주의 카군 동굴사원을 방문했다. 카군 동굴사원은 10세기 이전에 지어진 동굴사원으로 깍아지른 절벽 전체에 작은 부처님들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동굴사원에는 수 많은 불상들이 있는 한국불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얀마 불교 유적지이다. 이어 방문한 카렛 파고다는 섬 가운데 절벽에 모셔진 파고다로 주위 경치가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이어 방문한 윈 세인 파고다는 세계최고의 와불(180m×40m)을 모신 곳으로 유명하며 이곳 윈 세인 스님도 입적 후 유해를 화장하지 않고 공개하여 신도들의 신심을 일깨우고 있다. 일행은 몬주와 카렌주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4일 양곤으로 이동하여 종교성 내 까바예 파고다에서 마정수기를 봉행하고 미얀마의 상징인 양곤의 쉐다공 파고다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합동예불을 봉행한 후 행사에 참여한 인원 중 노고가 많은 임원들에게 미얀마종교성의 감사패가 수여된 후 미얀마연가승가회 및 미얀마연방정부 종교성 공식 초청 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료봉사 40년 약왕보살,

병원불자연합회 고문 **류재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과장)



류재환 교수는 … 경희대학교 한의과와 의과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과 과장 및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2004년에 조계사불교대학 43기 수료, 2007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5기)을 수료했다. 2007년 5월 병불련 3대 회장에 취임해 2014년(5대)까지 회장을 지냈다. 2012년~2013년 중앙신도회 부회장에 선임됐고 2014년부터 병불련 고문단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 6월 사단법인 신청 중인 (사)병불련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2006년 연화보현상(동국대 불교대학원), 2014년 포교대상 공로상(조계종 포교원)을 수상했다.

서울 회기동에 자리한 경희의료원. 본관 로비와 각 병동을 잇는 통로는 많은 환자들로 붐볐다. 여전히 세상엔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한방병원 연구실 3303호. 연구실의 주인은 평생 의료봉사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 류재환 교수(의학박사)다.

연구실의 문을 두드렸지만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약속 시간이 5분정도 지났을 때 연구실의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법당에서 오는 길이었다. 경희의료원 바로 곁에는 연화사가 있다. 그는 오전 진료(내과)를 마치고 외출했다 병원으로 돌오는 길에 연화사에 들렀다.

"수시로 시간이 나면 오다가다 연화사에 들러 기도하고 옵니다."

그의 말속엔 단단해 보이는 불심이 있었다.

의료봉사의 시작

류 교수의 불심은 그의 어머니에서 왔다. 어머니의 종교가 고스란히 유전자로 전해졌다. 어려서부터 의심 없이 품었고, 몸과 마음이 자랄 때 함께 자라고 단단해졌다.

1974년 경희대 한의과에 입학한 류 교수는 교내 불교 동아리에 들어갔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스스로의 종교를 시작했다고 할까. 몸과 마음이 새로운 궤도를 시작한 것처럼 그의 종교도 새로운 궤적을 시작했다.

그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됐고, 봉사가 주는 보람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아리 내 의대 · 한의대 · 치의대 연합 의료봉사모임인 '녹원'에 가입하면서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3학년 때인 1976년, 강원도 양양의 산골마을로 첫 의료봉사를 나갔다. 당연히 봉사란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곳의 환경은 류 교수가 살고 있는 환경과 너무나 달랐다. 의료혜택이 부족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류 교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의술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앞으로 평생 의술을 통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류 교수는 단순히 의술만을 들고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봉사와 보시에 대해 생각했다. 진정한 의료봉사는 의술만을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아픈 이들의 마음도 함께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의대를 졸업하고 의대에 재입학하고 난 후에도 꾸준히 의료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새로운 궤적을 그리기 시작한 그의 종교는, 불심은 바로 '보시'에 눈뜬 것이었다.

약왕보살의 서원,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만약에 불자가 일체의 앓는 사람을 볼 때에는 언제나 정성껏 공양할 것이 부처님과 똑같아야 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 복전 중에는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일의 복전이다." -<범망경>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은 법을 전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다.

어떤 중생이든지 자기 명호를 들으면 병고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약왕보살의 서원이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상법의 시대에 일장(日藏)이라는 비구가 대승의 위없고 청정하며 평등한 지혜를 대중에게 설법하고 있었다. 그 때 대중 가운데 성수광장자가 그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기뻐 설산 중에 나는 양약으로 일장비구와 그의 제자들을 공양했다. 그리고는 그 공덕으로써 보리로 회향하여 위와 같은 서원을 세웠다.

1999년 10월, 그 약왕보살의 서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 당시 국립서울병원 김효주 간호과장이 중심이 되어 서울 시내 7개 병원 불자회 대표들로 구성된 창립 발기인대회를 거쳐 다음 해인 2000년에 병불련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1976년 대학 불교동아리서 첫 봉사
첫 현장서 평생 봉사 원력 세워

의료봉사활동하며 '보시'에 눈 떠
2000년 병불련 합류, 봉사단 이끌어
병불련 3, 4, 5대 회장 역임
내년부터 해외 개안수술 시작

휴가, 주말 반납 병불련서만 100회 봉사
"봉사활동, 포교에 많은 도움 돼"
반야회 이끌며 병원 법당 추진
병불련 사단법인 추진 이사장에 추대

병불련이 출범하자 류 교수는 대학교 시절에 불교 동아리를 찾았을 때처럼 병불련에 합류한다. 단순히 합류의 차원이 아니었다. 류 교수는 병불련 주요사업인 의료봉사의 매뉴얼을 만들고, 봉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비로 제공하는 등 의료봉사단의 중심이 되었다.

2000년 10월 1일, 류 교수가 합류한 병불련의 의료봉사단은 강원도 홍천 구만리에서 첫 공식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류 교수는 주로 병불련을 통해 의료봉사를 하게 된다.

경희의료원 동서의학과장으로서 강의와 진료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병불련 3대, 4대, 5대 회장직까지 맡아 병불련의 의료봉사를 이끌었다.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갔다.

"의료봉사는 병원 진료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보다 더 세심하게 환자를 살펴야 하죠. 마음까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회장직을 놓은 현재까지 류 교수가 참여한 병불련의 공식적인 의료봉사는 100회에 이르고, 총 진료인원과 검사인원은 해외를 포함해서 각 69,078명과 19,983명에 이른다. 1999년에 경희의료원에 부임한 류 교수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경희의료원 봉사단체인 한마음봉사단체를 통해서도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포교,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것

"백령도에는 군인 4천 명, 민간인 4천 명이 살고 있는데 90%가 기독교에요. 사찰이 하나 있는데 신도가 거의 없어요."

병불련은 재작년부터 섬 지역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그 첫 지역이 백령도였는데 의료 환경도 열악했지만 불사도 많이 열악했다. 백령도 주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인천까지 나가야 하는데 약 5시간이 걸린다. 병불련 의료봉사단은 첫 해 주민들 반응이 좋아 작년에도 다시 백령도를 찾았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시 찾은 봉사단을 반갑게 맞았다.

"첫 해, 봉사를 마치고 떠나올 때 봉사단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흔드는 손에서 느낄 수 있었죠.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봉사단의 진료를 받은 백령도 주민들은 거의 타종교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봉사단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 류 교수를 비롯한 봉사단의 따뜻하고 진심어린 봉사에 고마움을 느낀 주민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봉사단을 기다린 것이다.

류 교수는 의료봉사 활동이 포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의료봉사의 목적이 포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할 수는 있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포교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봉사현장에서 특별히 포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저 불자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것 보여주는 거죠. 서로 염화미소,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포교라고 생각해요."

한 두 번의 봉사로 그들의 종교를 흔들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주민들이 봉사단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병불련이라는 이름이 기억된 것이 분명하고, 그것만으로 흐뭇한 일이 아니겠냐고, 불교를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류 교수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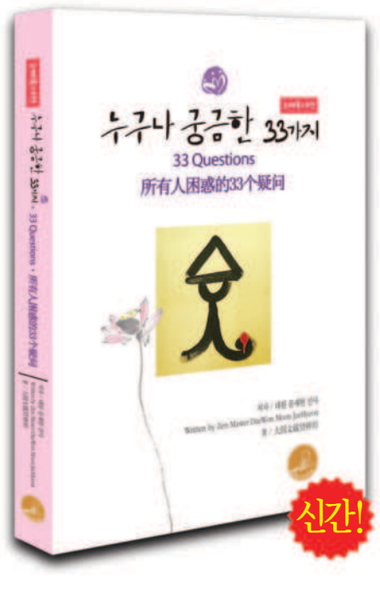
병불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사찰순례 자비나눔 의료봉사'와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의료봉사, 도서 지역 등 오지를 포함한 지역주민 의료봉사, 라오스, 몽골, 네팔, 인도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의료봉사, 그리고 종단과 관련된 종단의료봉사가 있다.

"의료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찰 주변 낙후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병불련 의료봉사단은 봄 · 가을로 안거 해제에 맞춰 사찰순례 의료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이 사찰지역의 의료봉사를 다녀가면 사찰 이미지까지 좋아진다고 한다. 사찰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사찰 행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의료봉사는 굳이 포교라는 거창한 간판을 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심는 일이다. 봉사단이 전하고 온 것이 몇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영중 3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 모든 이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 하는 문제, 삶과 죽음, 종교와 진리에 대한 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깨달은 이는 실증한 체험을 통해 만인을 마음의 평화와 죽음의 속박을 초월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 책이 그 이변을 앞서서 이끌어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4번째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 031-534-3373 / 도서출판 문젠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환자 아픈 마음까지 돌 봐야죠”


2008년 3월 진행된 병불련 춘계 연합의료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류재환 교수(오른쪽).


2010년 티베트 라싸의 데붕사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류재환 교수.


2014년 양양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한 류 교수.


2015년 티베트 데붕사원 봉사에는 초음파기기도 사용됐다. 진료를 보고있는 류재환 교수.

알의 약과 의술만은 아닌 것이다.

병불련 의료봉사단은 2000년대 초부터 몽골을 시작으로 인도, 라오스, 페루 등 해외봉사도 시작했다. 류 교수는 해외에서도 그 옛날 강원도 산골에서 느꼈던 걱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의료는 그 다음이었죠. 눈앞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들에게 병세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말은 그야말로 난센스였죠.”

류 교수는 생각했다. 당장의 진료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그래서 류 교수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이들을 위한 개안수술을 생각했다. 류 교수는 2010년 인도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시력을 잃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류 교수는 힘든 삶이라도 살아가기 위해선 우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력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죠. 바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이니까요. 그 드라마틱한 의술을 봉사에 쓴다면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더더욱 잊지 못할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력을 찾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삶을 증대시킬 수 있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개안수술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다. 안과 전문의를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병불련에는 이비인후과나 안과 같은 특수과 의사가 없었다. 그래도 류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안과 의사를 찾았다. 그리고 안과를 비롯한 특수과 의사들을 충원할 수 있었다. 병불련은 내년 해외의료봉사부터는 개안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해외의료봉사에서 보람을 느낄 때는 다시 그 지역을 찾았을 때, 우리를 알아보고 세관 통과 절차를 편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뜻하고 진정한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었다.

불자로서의 소명

“병원에 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쉽지 않네요.”

류 교수는 지난해부터 병원 내 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고, 가깝게 연화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건립 추진은 현재 낙관적이지 않다. 류 교수는 경희의료원 내 불자직원 모임인 ‘반야회’의 수장이다. 경불회에서 이어진 반야회는 2010년에 창립됐다. 회원은 현재 60명 정도다. 처음엔 호기심에 모인 회원이 많았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화사에서 정기법회를 갖는 정도였다.

류 교수는 회원들에게 사찰순례 의료봉사를 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됐다. 소풍가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벽예불도 경험하고, 법문도 들으면서 불교에 가까워지고 깊어지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나서서 정기적인 법회를 열고 경전공부반도 만들었다. 류 교수는 그런 반야회를 보면서 회원들과 함께 할 법당을 가지고 싶었다. 류 교수는 병원 내 법당 건립이 빠른 시간에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연화사와 병원을 직접 잇는 길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의료원 인근 연화사 진입로 개방’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연화사측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 류 교수는 의료봉사 외에도 병원 안팎에서 많은 불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세월을 함께 해온 병불련은 현재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인가 신청 중이다. 올해 6월 사단법인 출범 총회를 개최했고, 류 교수가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2014년 병불련 회장직을 놓으면서 평회원으로 돌아가 의료봉사에만 전념하고 싶었던 류 교수였다. 하지만 류 교수는 이번에도 기꺼이 이사장직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불사이고, 그 불사에 동참해야 한다면 해야죠.”

류 교수는 지금도 일 년에 10회 정도 의료봉사를 나간다. 평생 의료봉사를 실천해온 류 교수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덤덤하게 대답했다.

“반야회 회원들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병불련 살림 많이 늘어서 의료봉사 더 많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법당 만들고 싶고요.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본관 로비로 돌아왔다. 아직도 약왕보살의 명호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전법일기

품앗이 초청법회의 인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몽운사 불사를 우여곡절 끝에 이뤄냈다. 이후 장산곶 너머 평양을 바라보는 곳에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해수관음보살 점안법회를 준비했다. 그래서 날도 날이니만큼 큰스님을 모셔서 법력으로 환희 장엄한 법회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초청법회를 준비하였으나 총무원장이나 포교원장을 맡고 있는 큰스님들에게는 말씀드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이름 높은 이 스님 저 스님들께 문안을 여쭈며 법사 초빙을 부탁드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뱃길로 네 시간이나 걸리는 백령도라는 말에 난색을 표하기만 했다.

그렇게 실망감에 젖어 있던 차에 용기를 내어 당시 포교원장을 맡고 있던 도영스님을 뵈러 갔다.

“스님, 도와 주십시요. 백령도에도 불자들이 있습니다. 배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이지만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신다면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스님에게 열악한 사세로 인하여 여비조차 드릴 수 없는 사정과 뱃길로 이동해야만 하는 고충을 말씀드렸다.

“다소 먼 곳의 섬에 있는 법당이지만, 힘을 내시게. 부처님께서도 법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셨지 않는가.”

스님은 오히려 포교에 대한 당신의 열정과 어려움을 극복한 얘기로 격려를 해주시며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다.

이후 백령도 몽운사에서 수계법회, 수륙재 등을 진행했다. 법사로 혜남스님, 수안스님, 계성스님이 방문해 환희로운 설법으로 감동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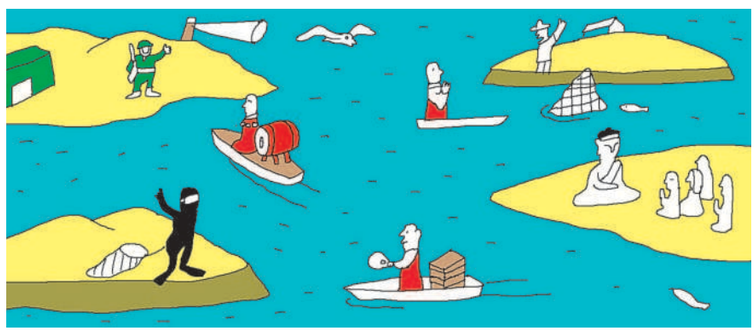
스님들이 찾자 백령도의 신도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큰스님이나 인기 스님들을 직접 보고 법문을 듣는다는 환희심에 감동했다. 또 그러한 감동은 불사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스님, 항상 TV에서만 뵙던 스님들을 직접 보고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섬에도 오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신도들이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말에 저절로 흥이 났다. 처음에는 몇 안되던 신도들도 여러 스님들의 도움 끝에 점차 늘게 됐다. 오늘의 몽운사를 있게 한 원동력이 바로 스님들의 십시일반 때문인 것이다.

불교계에는 많은 초청법회가 있다.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인기를 얻은 스님들과 유명 저자인 스님들이 각 사찰의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러 다닌다. 이러한 초청법회는 불교계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신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포교 방편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청법회는 규모가 있는 절이나 재정적 능력이 되는 포교당에서 적극 활용될 뿐, 백령도 몽운사와 같은 오지의 사찰이나 사세가 어려운 포교당에서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하지만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초청법회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


그림 · 박구원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에 앞서 당시 선조에게 편지를 띄운다.

“신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불교계에는 아직 많은 스님들이 있다. 이들 스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불교계가 지닌 특징이 법사로 다양한 스님들이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백령도 같은 오지의 섬이거나 신도 몇 명 안되는 포교당에서조차 매월, 더 나아가 매일 법력 높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한국불교 포교를 지금보다 훨씬 힘을 얻을 것이다. 작은 절의 스님이나 법사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얻을 것이고 보잘 것 없는 작은 절에서 신심 하나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님들도 환희심이 배가 될 것이다.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모든 거를 용광로에 넣는 작업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도 여러분 모습이 다르고 내 모습이 다르고 처소가 다르고 그런 까닭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작업을 해야만 되는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오가 단단히 선, 견고한 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용광로에 넣는 작업이 첫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우리는 일체 모든 생활에서 그 일체를, 자기 몸까지도, 생과 사도 거기에 놓는 작업을 한다.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기고, 외로운 것도 괴로운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거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빨리.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육안으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길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엎드러진 놈이 있으면 "어이구!" 하고 빨리 일어나는 놈도 바로 그놈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잘된다 못된다를 다 놓는 그 작업에 세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다 놓고 들어가실 때는 모든 일체 오간지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온 습이 모두 끊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릇이 꽉 찼던 것이 비고, 빈 것도 없고 담긴 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될 때에, 바로 '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이 되면 그때서부터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됐으면 그때 가서는 기둥을 세우게 돼 있죠, 집을 짓는 데. 기둥을 세우는 데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요거는 기둥이고 요거는 서까래고, 요거는 기왓장이고 요거는 벽돌이고, 흙이고 흙손이고, 재료의 이름은 다 아신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집을 짓는 데는 견고하게, 어떠한 재료든지 이름을 찾지 말고 그냥 갖다가, 벽돌이 있으면 '이거 벽돌이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을 집어 오너라." 하든지 집어다간 그냥 쌓는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 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남들을 불러서 가르치려면 "저 서까래를 가져오너라." 이러지마는 자기가 쓸 때는 그냥 서까래를 집어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일꾼들이 아무 소리 없이, "서까래를 올린다." 하면 벌써 일꾼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냥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대들보가 올라가죠. 대들보에 간접적으로 붙어 돌아가는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몸뚱이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재료가 많이 붙어 돌아간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 집을 지으려면 대들보가 올라가듯이, 탑을 세우면 위 봉우리가 올라가듯이, 우린 그 재료로 인해서 망상이나 모든 악행, 거기에 쓸모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자가 되고, 선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봉우리가 올라가고 대들보가 올라가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그 모두가 없다면 해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와 같고, 우리가 벌써 집을 지으려면, 내가 그런 말을 하죠.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벌써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무너지면 세 가지째는 벌써 나를 발견한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애가 학교에 가야 하니까, 가난하니까, 일이 안되니까, 모두 정신이 다 거기 가 있습니다. 진짜 해결사한테 마음을 둬야만이 그것이 해결될 텐데, 해결사는 벌써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결사를 붙들고 늘어져야 할 텐데, 그 일하는 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나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러거든. 진실히 믿기는커녕 해결사를 붙들어야 할 텐데 딴 데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슬픈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를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면 저도 울어지고 여러분이 웃으면 저도 웃어집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둘이 아닌 까닭을 모르시죠. 왜 둘이 아니라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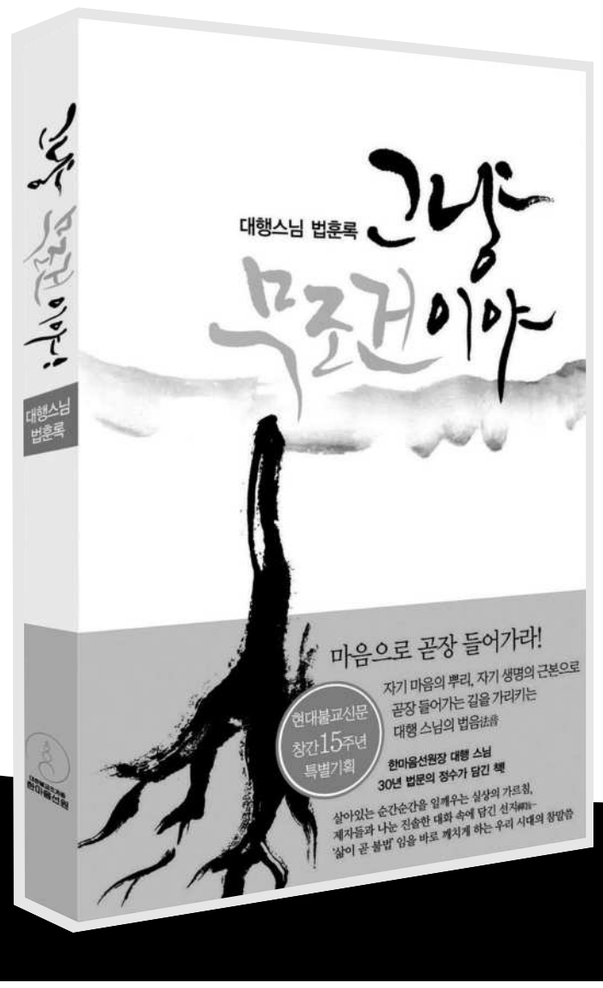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러니까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 이것을 이름 따라서 꼭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외우다 보면 재료의 이름을 외우는 셈이나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를 배우지 않고, 그 재료 이름만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근을 말하자면 내 몸뚱이에 있는 여섯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눈이 가는 데에 귀가 가고 귀가 가는 데에 눈이 갑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인데 한 손가락 가지고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무슨 일을, 뭘 집으려 해도 다섯 손가락이 다 이렇게 가서 집지, 한 손가락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육근을 여섯 가지로 보지 말고, 그건 일심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가 여섯 가지라면 여섯 가지가 아니라 일체입니다, 전부입니다. 바깥으로 봐서 들이는 게 또 여섯 가지라면 일체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놓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의식 자체가 육식입니다. 그래 이것이 한데 합치면 십팔(十八)이 되죠. 십(十) 이러면은 그냥 만(卍)으로 돌아가는 그게, 팔(八) 하면 사유사무(四有四無) 이것을 한데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팔 심(心), 그 인연에 의해 연(緣)에 따라서 뭉쳐진 거죠. 식(識)입니다. 의식으로 한데 뭉쳐서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 분잡하게, 고달프게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일심에서 내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에서, 자성불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일거일동, 물질로다가 이름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세우려 하지 말고, 학술로다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다가 알 양으로 하지 말고, 아는 거를 쓰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그것이 둘이 아니요 셋이 아니요 넷이 아니요,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고정되지 않다 했죠. 그것을 옛날의 선지식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말과 매이지 않는다는 말과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과 또는 여여하다는 말과 그것이 모두가 한 뜻입니다, 다. 걸리지 마라 하는 것도,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거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지, 둘로 본다면 걸림이 벌써 있죠. 그래서 풀 한 포기도 둘로 보지 말라는 거고 버러지 하나도 둘로 보지 말라는 거죠. 둘로 보지 않고 한데 뭉쳐서 씀씀이를 하는 도리가 바로 한마음에서 나가고 한마음으로 들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현재 의식 쪽, 잠재의식 쪽이 동시에 써집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나 자신의 그 모두를 100% 쓸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른다면 몸뚱이로는 부지런하나 머리로는 게으르다 이겁니다.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저 서천국이나 딴 나라는 몸뚱이는 게을러도 머리는 빨라서 선진국이 되고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데, 몸뚱이는 부지런하면서도 한국 사람은 머리가 둔해요. 게을러!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린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발전이 돼도 감당할 수가 없고 경제가 넓어져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에 딱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로 본다 하면은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겁니다. 왜 뒤지고 있느냐? 전자에서부터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뒤졌나. 남의 것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남의 것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 것 주려고 하지도 않으니, 지금 이북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선진국도 되기 이전에 그 난리를 만나고 집도 뺏기고 온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얘길 하다 보니깐 딴 데로 샜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데 뭉쳐서 그렇게 하는데, 또 팔정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덟 가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냅니까? 한마음 속에서 그것이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하고, 옳게 정진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 속에서 여덟 가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들어서 무심 유심이 같이 합해서 이게 팔정도라면 사무사유(四無四有)도 바로 없는 겁니다. 그냥 수레바퀴가 굴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팔정도대로 본다면 '이거는 여덟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요, 여덟 가지가 바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시공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똑바로만 안다면 나의 자성불(自性佛), 불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같이 해서 굴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깥으로만 찾고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 뜻을 알고 안으로 잡고 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심성과학입니다. 이 도리는 생활이자 참선이고, 참선이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심성(心性)을 빼놓고는 과학을 이룰 수가 없고, 그때는 학(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전부 버릴 게 없으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여섯 가지의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육바라밀의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당당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인이 돼라!

그러나 모든 것을 비울 때에, 없을 때에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건 소승이니까 버리고 이건 대승이니까 갖고 이런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이 빌래야 빌 수가 없죠. 그릇 자체도 공(空)했는데 말입니다. 공 자체도 공했는데. 응?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겁니다. "벽돌을 쌓으려면 벽돌을 그냥 집어다가 쌓지, '벽돌 벽돌' 하고 쌓는 게 아닙니다." 하고요. 쌓고 싶으면 그냥 갖다가 집어다 쌓는 겁니다. 물 먹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는 겁니다. 그게 즉석에서 요리하는 방법이고 즉석에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물쭈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이러는 거는 우리 인간이 깨달은, 즉 말하자면 그 본각심(本覺心)에서, '본각심'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한데 합쳐진, 아까 얘기했던 불바퀴다 이겁니다. 그 불바퀴 같이 굴리는 마음으로서 음으로나 양으로나 마음 한생각을 내주는 것이, 또 물질을 하나 줘도 이게 모두 같이 주기 때문에 보시가 되지만, 물질 하나 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생각 해 주는 보시가 그렇게 크단 얘기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아니라 바로 본각심에서 모든 그 여섯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여섯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일체 하늘 땅 인간 전체를 한데 합친 그런 본각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무궁무진하게 모든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슬슬,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슬슬 여여하게 돌아가니까 취할 것도 없고 안 취할 것도 없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응(應)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보살의 육바라밀의 행이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그거를 낱낱이 하나하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여섯 가지를 다 뜯어서 요걸 하나하나 배우려면 어느 천 년에 여러분이 자신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육바라밀의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당당할 수 있는, 떳떳할 수 있는 참다운 자유인이 돼라 이 소립니다.

어느 승려들이 쭈욱 앉아서 공부를 하고, 모두 돌아앉아서 참선을, 좌선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쓰윽 돌아보더니 "그 얼굴은 참 잘생겼구먼, 모두 돌아앉아서 벽을 보고 앉았는데 벽에 얼굴이, 사진이 딱딱 박혀 있구먼."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진은 거기 있는데 어디서 사진을 또 찾노?" 아, 이러더라는 겁니다. 글쎄 자기 사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벽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다고 벽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서슴없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禪)에는 어느 거든지 거기 붙어 돌아가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한 철 나자고 하더랍니다, 그 스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철을 같이 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참, 말이 무겁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얼마나 참 따갑게 찔러 주시는지, 모두 숭배를 하고 거기 주지스님으로 올려 앉혔답니다. 그랬는데 아예 '주지도 없고 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지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런데 무슨 주지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모두 좋아하고 모시고 있는데, 하루는 "메밀씨를 갖다가 심어라." 하니까 모두 메밀씨를 갖다가 심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스님한테 여쭤 보기를, "이제는 메밀국수나 메밀떡이나 메밀장국은 틀림없이 먹겠죠?" 하니까 "두고 봐야 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또 메밀싹이 나서 커다랗게 꽃이 피니까 이제는 "메밀떡을 꼭 먹겠죠?" 하니까 "그것도 먹어 봐야 알지." 아, 또 이제 메밀꽃이 시들고 거기에 열매가 맺으니까, 틀림없이 다 익었으니까 "먹겠죠?" 하고 또 물으니까 "그것도 또 먹어 봐야 알지." 다 앗아서 가루를 만들어 놓곤 "스님! 스님! 이 가루를 이렇게 앗아서 다 해 놨습니다. 이제도 못 먹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먹어 봐야지." 그러더랍니다.

나중에는 메밀을 개서 장떡국을 했단 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해서는 그냥 다 장떡국을 해서 처음 그릇에다 갖다 놓고는 "이제도 못 먹습니까?" 하니까, 하하하, "먹어 봐야 안다." 그래서 이제 발우공양을 하는데 전부 한 그릇씩 떠서 전부 놨단 말입니다. 떠억 입에다 넣자마자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하곤 그냥 호령이 났거든.

그래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글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메밀 장떡국을 잘 먹겠습니까? 예?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라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도1(남) 그냥 먹죠.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허. 그럼 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스님이 말씀한 거는 무효가 되잖아요?

신도1(남) 생각 없이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일초 전도 일초 후도 생각 없이 순간에, 일초 전도 일초 후도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한다 이겁니다.

큰스님 우리 처사님, 말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걸 안으로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말을 자꾸 바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함이 없이 지금 했다고 봅니다, 함이 없이. 그 정도라면 그래도 처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그랬는데, 아 이걸 입에다 넣고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는, 그 뜨끈뜨끈한 거를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을 막돼먹은 분이 그렇게 한다면 별거 아니지마는, 참 그 엄중한 분이 그러시니 도무지 이거는 뱉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속에서 슬금슬금 그냥그냥 녹아서 넘어갔거든. 허허허. 나중에 "그 떡이 그대로 있느냐?" 하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어떡하다 보니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거든. "그것을 어찌 생각하느냐?" "그냥 삼킨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거다. 그 도리를 알겠느냐?" 그때서야 그냥 고만 앉았던 제자들이 딱 깨친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을, '아하! 이것이 생떡국이 생떡국이 아니고,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뱉는 게 뱉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는 그대로 아까 저 처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그대로구나.' 하고선 깨쳐 가지고 참 열 명이 다 성불을 했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건 왜냐? 넉넉한 생각이라면 지혜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지혜도 공(空)한 것도, 그 공한 것도 또 공했으니, 거기에 제하거나 또는 거기에 또 걸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공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바로 걸린 거니까, 그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걸렸다 안 걸렸다도 없이 여여하게 우리가 생떡국을 그냥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슬그머니 녹아서 넘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생떡국 하나가 우주 천하를 다 싼 그겁니다. 즉 말하자면 요 그릇 안에다가 (물 컵을 가리키시며)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천체를 갖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습니다.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모두가 공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음은 모양이 없느니라." 그런데 난 애들도 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체가 없다' 고 그랬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걸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법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지을 수 있는 마음이요, 또 유의 쪽으로는 몸이 행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둘 아니게 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